

2008 연구보고서 수시과제-1

중앙아시아와 여성정책 협력사업을 위한 탐색연구

백영주 · 이수연 · 김영혜 · 이선주 · 김인순

2008 연구보고서(수시과제)-1

중앙아시아와 여성정책 협력사업을 위한 탐색연구

연구책임자: **백 영 주**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수 연** (본원 연구위원)
김 영 혜 (본원 연구위원)
이 선 주 (본원 연구위원)
김 인 순 (본원 전문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국제사회는 지구적 빈곤퇴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새천년개발목표」를 제시하며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모성보건 증진 등의 목표 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해방이후 불과 20여년 만에 개발원조의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여성정책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들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및 제도의 체계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내문제의 해결능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여성 이슈를 개발하고 외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교육, 보건, 빈곤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우리의 발전을 모델로 이들에게 맞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 UN 새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여성분야의 지원실적은 1.6%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여성관련 분야 지원의 필요성이 아직 공론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 젠더관점의 통합이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여성정책관련 협력사업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협력사업의 대상국으로는 최근 협력외교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도 중점협력국인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국제사회에서 다시 부상하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역사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실크로드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현재에는 국제정치상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한편 이슬람의 영향으로 성평등의식이 낮고 가부장적 문화의 뿌

리가 깊은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와 사회제도적 구조로 여성의 삶의 질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對) 중앙아시아 국제개발협력은 행정제도, 교육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성 관련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대(對)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젠더관점의 접근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협력사업에서 성 인지적 관점 통합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중앙아시아 5개국의 현황과 주요 젠더이슈를 분석하여 가능한 협력사업을 탐색하였으며 사업 추진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여성정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UN 새천년개발목표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협력외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자문과 관련 정보 자료를 제공해 주신 중앙아시아 지역 전문가 및 관계자, 그리고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태 현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5
4. 연구의 한계	6
5. 기대효과	6
제2장 국제개발협력과 한국	7
1. 국제개발협력	9
가. 배경	9
나. 사업 지원규모 및 분야	10
다. 국제개발협력의 현황	12
2.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현황	14
가. 위상의 전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14
나. 사업현황	18
3. 한국의 對 중앙아시아 여성관련 국제개발협력의 현황	24
제3장 중앙아시아의 젠더이슈와 협력사업의 탐색	31
1.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배경과 여성의 지위	33
2. 카자흐스탄	36
가. 개요	36
나. 여성현황 및 성평등 관련 제도	43
다. 젠더이슈	47
라. 협력사업	49

3. 우즈베키스탄	57
가. 개요	57
나. 여성현황 및 성평등 관련 제도	66
다. 젠더이슈	72
라. 협력사업	75
4. 키르기즈스탄	82
가. 개요	82
나. 여성현황 및 성평등 관련 제도	89
다. 젠더이슈	94
라. 협력사업	97
5. 투르크메니스탄	110
가. 개요	110
나. 여성현황 및 성평등 관련 제도	120
다. 젠더이슈	123
라. 협력사업	127
6. 타지키스탄	137
가. 개요	137
나. 여성현황 및 성평등 관련 제도	144
다. 젠더이슈	150
라. 협력사업	152
제4장 중앙아시아와의 여성정책 협력사업의 전망과 추진전략	159
1. 협력사업의 전망	161
가. 협력사업의 분야와 형태	161
나. 우선 협력 분야	162
다. 장기 협력 분야	165
2. 협력사업 추진전략	175
가. 국제 컨퍼런스	176

나. 각국의 여성관련 조직 및 여성단체 조사, 연락 및 방문	176
다. 주한 각국 대사관 및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과 협력체계 조성	177
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조체계 조성	177

제5장 결 론	179
----------------------	-----

부 록	189
------------------	-----

1. 중앙아시아 5개국 현황 비교	191
2. 중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계자 명단	195
가. 각 국 주재 한국대사관	195
나. 각 국 주한 대사관·영사관	196
다. 중앙아시아 지역전문가	196
라. 주요 여성단체	197
3. 국제기구의 對 중앙아시아 젠더관련 협력사업	199
가. UNDP의 對 중앙아시아 젠더관련 협력사업	199
나. EU의 對 중앙아시아 젠더관련 협력사업	201
다. ADB의 對 중앙아시아 젠더관련 협력사업	203

표 목 차

<표 2-1> 역량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11
<표 2-2>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자금의 구분	12
<표 2-3> 전세계 ODA 지원분야	14
<표 2-4> 한국의 ODA 수원 역사	15
<표 2-5> 한국의 개발협력 연혁	16
<표 2-6> 한국의 국제협력사업 중점 협력분야	20
<표 2-7> 프로젝트 연도별 실적	21
<표 2-8> 프로젝트 분야별 실적	21
<표 2-9> KOICA의 무상원조사업 지역별 현황	22
<표 2-10> 한국의 對 중앙아시아 무상원조사업 분야 및 규모	24
<표 2-11> 한국의 對 중앙아시아 무상원조사업 중 ‘환경 및 기타’ 분야 세부사항	25
<표 3-1> 주요경제지표 - 카자흐스탄	39
<표 3-2> 성별 문해율 - 카자흐스탄	40
<표 3-3> 교육수준별 성비 - 카자흐스탄	40
<표 3-4> 전공별 성별비율(2003/2004) - 카자흐스탄	41
<표 3-5> 카자흐스탄과 UNDP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51
<표 3-6> 카자흐스탄과 EU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53
<표 3-7> 인구 - 우즈베키스탄	58
<표 3-8> 주요경제지표 - 우즈베키스탄	59
<표 3-9> 전체고용인구의 여성 비율 - 우즈베키스탄	60
<표 3-10> 교육수준 - 우즈베키스탄	63
<표 3-11> 모성건강 - 우즈베키스탄	65
<표 3-12> 1985-2004 여성국회의원 수 - 우즈베키스탄	67
<표 3-13> 우즈베키스탄과 UNDP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77

<표 3-14> 인구 - 키르기즈스탄	83
<표 3-15> 산업구조 - 키르기즈스탄	84
<표 3-16> 주요경제지표 - 키르기즈스탄	85
<표 3-17> 고등교육의 전공별 여성비율 - 키르기즈스탄	87
<표 3-18> 아동건강 - 키르기즈스탄	88
<표 3-19> 가족계획 - 키르기즈스탄	88
<표 3-20> 공무원 성별비율 - 키르기즈스탄	90
<표 3-21> 키르기즈스탄과 UNDP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99
<표 3-22> 키르기즈스탄과 EU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100
<표 3-23> 키르기즈스탄과 스웨덴의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102
<표 3-24> 키르기즈스탄과 일본의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103
<표 3-25> 인구 - 투르크메니스탄	112
<표 3-26> 주요경제지표 - 투르크메니스탄	115
<표 3-27> 양국간 교역현황 - 투르크메니스탄	116
<표 3-28>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 투르크메니스탄	116
<표 3-29> 유급·무급노동 종사자 현황 - 투르크메니스탄	116
<표 3-30> 초등학교 등록율과 문해율 - 투르크메니스탄	117
<표 3-31> 성별 문해율 - 투르크메니스탄	117
<표 3-32> 여성의 학교급별 등록율(남성대비) - 투르크메니스탄	118
<표 3-33> 모성건강 - 투르크메니스탄	119
<표 3-34> 영아, 유아 사망률 및 영양결핍 - 투르크메니스탄	120
<표 3-35> 공중위생, 하수시설 - 투르크메니스탄	120
<표 3-36> 의사결정직 여성비율 - 투르크메니스탄	121
<표 3-37> 투르크메니스탄과 UNDP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129
<표 3-38> 주요경제지표 - 타지키스탄	139
<표 3-39> 직업분야와 젠더에 따른 고용비율 (1999년/2003년)	
- 타지키스탄	140
<표 3-40> 고등 2차 전문 교육 참여 여학생 비율 (교육 분야별)	
- 타지키스탄	142

<표 3-41> 정당별 여성 의석 비율 - 타지키스탄	145
<표 3-42> 공무원 중 여성비율 - 타지키스탄	146
<표 3-43> 주요 여성관련 단체 및 활동 - 타지키스탄	150
<표 3-44> 타지키스탄과 UNDP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153
<표 3-45> 타지키스탄과 EU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154
<표 3-46> 타지키스탄과 스웨덴의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155
<표 4-1> 장기 협력이 가능한 사업분야 - 카자흐스탄	168
<표 4-2> 장기 협력이 가능한 사업분야 - 우즈베키스탄	170
<표 4-3> 장기 협력이 가능한 사업분야 - 키르기즈스탄	171
<표 4-4> 장기 협력이 가능한 사업분야 - 투르크메니스탄	172
<표 4-5> 장기 협력이 가능한 사업분야 - 타지키스탄	173
<표 4-6> 장기 협력 분야 국가별 비교	174

그림 목 차

(그림 2-1) 1991년~2005년 Net ODA	13
(그림 2-2) 한국의 국제개발사업의 추진방향	18
(그림 3-1) 국가공교육 시스템 - 우즈베키스탄	63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5
4. 연구의 한계	6
5. 기대효과	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의 여성정책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들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및 제도의 체계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이제 우리는 국내문제의 해결능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여성이슈를 개발하고 외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가 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교육, 보건, 빈곤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우리의 발전을 모델로 이들 나라에 맞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줄 의무를 가진다.

여성정책의 개발 및 지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공여국 반열에 들어가기 위하여 2010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원조를 지속적으로 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공적개발원조) 비율은 0.05%로서 UN의 권고기준인 0.7%에 미달할 뿐더러 같은 경제규모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GNI 대비 ODA의 비율을 0.2%(약 2조8천억 규모)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공적원조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업무는 외교통상부 소관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의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특히 개발협력사업의 중점분야로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촌개발, 환경·여성, 정보통신, 산업·에너지의 7개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이 중 환경과 여성 분야가 따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상 모든 분야가 여성의 복지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많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높은 영아사망률, 열악한 모성건강, 높은 성병 및 AIDS 감염률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 인지적 관점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국제사회가 ODA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MDG(새천년개발목표)도 성평등 증진, 여성세력화, 모성건강 증진 등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4 중앙아시아와 여성정책 협력사업을 위한 탐색연구

개발협력사업이 여성정책과 결합되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수행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정책 관련 협력사업을 개발도상국과 공동으로 수립·수행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여성발전을 꾀하고 우리나라의 협력외교의 전략에 있어서 젠더관점의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정책 관련 협력사업의 대상국으로서는 최근 협력외교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도 중점협력국인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국제사회에서 다시 부상하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실크로드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는 국제정치상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지정학적으로는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보고이자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러시아, 중국, 인도 등과 인접해 있어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한편 이슬람의 영향으로 성평등 의식이 낮고 가부장적 문화의 뿌리가 깊은 사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화와 사회제도적 구조로 여성의 삶의 질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對) 중앙아시아 국제개발협력은 행정제도, 교육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성 관련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낮으며 UN 「새천년개발목표」지원의 8가지 목표 중 하나인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과 같은 영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對)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젠더관점의 접근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될 중앙아시아 5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은 각각 경제발전 정도와 문화, 제도, 관습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상국의 상황에 적합하고 개발 수요(needs)에 부응하는 맞춤형 협력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발전현황과 성별 구조, 그리고 여성관련 아젠다를 조사하는 사전 탐색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가별 현황을 조사하고 주요 젠더이슈를 도출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협력사업과 국가의 현황 비교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여성정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

회 발전을 지원하고 UN 「새천년개발목표」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협력외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을 개괄하고,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KOICA의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현황을 소개한다. 중점 추진하고 있는 7개 주요 영역을 살펴보고 성 인지적 관점 통합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둘째, 중앙아시아 5개국의 현황을 조사하고 주요 젠더이슈와 협력사업을 제안한다. 국가별 현황으로는 인구, 경제, 교육, 건강 부문에서 주요 통계 및 관련 현황을 소개하고 의사결정직의 성별 비율 등 여성 대표성 관련, 여성관련 법·정책과 여성관련 기구·조직 등 성평등 관련 제도를 조사하였다. 사회, 문화, 역사, 정치적 배경에 의한 주요 젠더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셋째, 국가별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우선 협력사업 및 장기 협력사업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전략을 모색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중앙아시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여성의 사회적 위상 및 정체성 관련 논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엔 문서, 국제기구 자료 등을 분석, 종합하였다. 웹을 통한 자료 검색에는 한계가 있어 방문객을 통하여 현지 정책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국가별 현황 및 주요 젠더이슈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지역학 교수 및 중앙아시아 학자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협력사업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담당공무원, 대상국에 주재한 전직 대사, KOICA 담당자 등과 지역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협력사업 대상국가의 현황을 조사하고 개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 방문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상대국가 정책담당자로부터의 구체적 요구 사항이나 피드백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시에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관련 정보자료 참조, 중앙아시아의 지역전문가, 현지에서 거주한 전직 대사, 해당 지역 담당 외교통상부 공무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인 등을 통하여 자문과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밝힌다.

5. 기대효과

본 연구는 젠더 관련 국가 현황을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사전 탐색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후속연구나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도상국, 특히 중앙아시아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인지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의 협력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2장

국제개발협력과 한국

- | | |
|-----------------------------------|----|
| 1. 국제개발협력 | 9 |
| 2.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현황 | 14 |
| 3. 한국의 對 중앙아시아 여성관련
국제개발협력의 현황 | 24 |

1. 국제개발협력

가. 배경

국제개발의 시작은 2차 대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 대전 후 식민형태를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들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개발 노력을 보였으나 발전의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국가의 인프라 구축, 자원 활용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역량이 단시간 내에 성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그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조금한 개발을 일삼아 자원의 낭비, 부패 양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제국주의적 종속발전을 벗어난 1970~80년대에는 새로운 다국적 기업·초국가적 기업(multinationals)으로부터 경제발전과 부의 축적과정에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되었고,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발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미 상대적으로 발전되고 선진화된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책임 및 주인의식 향상이 전제된 개발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등의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 개발도상국의 변화의지와 주인의식이 없는 대(對)개발도상국 원조는 성과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원조피로(Aid Fatigue)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종래의 시혜자와 수혜자라는 일방적인 공여자-수혜자의 관계에서는 개발원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07: 28). 결국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 정보의 격차만 양산할 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의 일방적 원조가 아닌, 양방향의 협력적 원조 및 개발협력이 추구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1990년대 중반 OECD/DAC 회원국들은 그동안의 국제개발협력을 반성하며 21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 9월에는 UN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가 설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MDGs는 국제개발협력을 개도국의 개발지원 또는 도덕적 책무라는 소극적 관점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도국의 발전이 선진국의 발전과 이해에도 매우 중대하다는 인식의 이른바 ‘Enlightened Self-Interests’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발협력의 모티브를 상정한 것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07: 29).

나. 사업 지원규모 및 분야

최근 들어서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보다는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이라는 넓은 개념을 쓰고 있다. ‘개발원조’는 일반적으로 개발에 관련된 재원이 이전되는 것을 칭하며 원조는 일방적 관계를 나타낸다. ‘개발협력’은 쌍방의 관계를 나타내고 공적개발원조, 기타 공적자금의 흐름, 민간자금의 흐름과 NGO에 의한 지원 등이 포함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2000년대 들어 최근 국제개발협력은 과거의 선언적 개발목표를 벗어나, 지구적 빈곤퇴치의 개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과지향적인 주요 목표와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0년 「유엔 새천년 선언」을 통해 탄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에는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4) 아동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등 8개 목표(Goals)와 18개의 세부목표, 성과지표로서 48개를 두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개발원조사업의 준비와 실시 전 과정에 있어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협력적 관계’임을 중시하게 되었다. 상호 책임성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수원자와 공여자간의 원조일치(alignment), 공여자 간의 원조조화(harmonization)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2002년 멕시코의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개발을 위한 재원에 관한 국제회의’에는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통해 수원국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개도국의 개발지원에 대해 ‘전체적인 접근(a holistic approach)’을 주문하였다. 또한 개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 금융기구들이 주축이 되어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고 있다. 2005년에는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주인의식, 조화, 일치, 성과와 상호책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 2007: 33-35).

오늘날 기존의 원조와의 차이점 중 또 하나는, ‘역량개발’에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경제·사회적 인프라 개발과 더불어 ‘거버넌스(governance)’와 같은 공공부문의 역량강화에도 관심을 가져, 개발도상국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스스로 강화 및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표 2-1〉 역량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현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의 성격	경제 및 사회적 조건의 향상	올바른 능력의 구축을 포함하는 사회적 변혁을 포함
효과적 개발협력의 조건	외부로부터 처방될 수 있는 좋은 정책	내부로부터 생성되는 좋은 정책
공여자·수여자 관계	일반적인 파트너십과 상호존중이 기본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상호작용을 중시
역량개발	건강한 조직과 연계된 인적자원개발	개인, 조직의 역량은 물론 사회적 역량의 구축과 상호연계
지식의 습득	지식은 이전될 수 있는 것	지식은 습득되어야 하는 것
지식의 형태	남측국가로의 이전을 위해 북측국가로부터 개발된 것	다른 국가들로부터 습득된 지식과 결합되어 토착화된 지식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07), 36쪽에서 재인용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자금의 흐름은 공적개발원조,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 NGO증여로 구분된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에 의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을 의미한다. OECD에 의하면 ODA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충족조건을 지닌다. 첫째, 중앙·지방정부를 포함한 공적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될 것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할 것 셋째, 차관일 경우 양허성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이 최소한 25%가 되어야 한다.

〈표 2-2〉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자금의 구분

구분	양·다자	유·무상	내용
공적개발원조(ODA)	양자간	무상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지원 등
		유상	양허성 공공차관
	다자간	무상	국제기구 분담금
		유상	국제기구 출자금
기타공적자금(OOF)	양자간	유상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유상	국제기관 융자
민간자금	-	유상	해외직접투자, 수출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투자 등
NGO 증여	-	무상	NGO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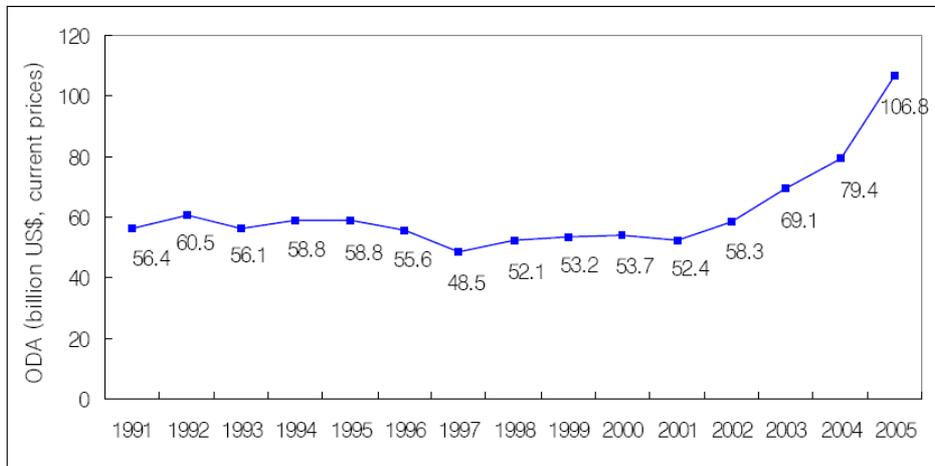
다. 국제개발협력의 현황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규모는 1990년대 초 이후 감소되다가 최근 3-4년 사이에 대폭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 개발도상국에 대한 OECD/DAC¹⁾ 국가들의 개발원조는 1990년대 초 약 600억불, 1990년대 중반에는 약 480억불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가 2002년 이후에는 583억불, 2004년에는 794억불로 증가하고 2005년에는 1,068억불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원조규모의 증가는 2000년 ‘유엔새천년 선언’, 2002년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회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한국국제협력단, 2007). 기존의 선언적·전범위적 목표를 넘어서 구체적·가시적인 목표로 전환되어 목표와 성과의 연계 및 달성정도를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국제개발재원에 관한 2002년 몬테레이회의에서는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고

1) 개발원조위원회라고 부름.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 함께 OECD의 3대 위원회로 불림. 개발이슈 발굴 및 검토, 개발재원 발굴, 개발통계 제공, 원조 효과 증대 방안 등을 연구함.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OECD/DAC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원조의 규모를 ODA/GNP의 비율 0.7%, 극빈개도국에 대해서는 0.15~0.20%를 실현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2005년 개최된 회의결과에 따라 2010년까지 개도국에 대한 원조규모를 60%, 약 500억불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OECD/DAC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선진국의 원조 규모 증대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 OECD/DAC 국가들의 2010년 개발원조 규모는 2004년에 787억불에서 1,256억불 규모로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07).



자료: Statistical Annex from the 2006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7.1, OECD/DAC 홈페이지

(그림 2-1) 1991년~2005년 Net ODA

전세계 ODA 지원 분야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부문, 다부문 지원, 예산 및 식량지원, 부채조정, 구호 및 재건, 행정, NGO 지원 등으로 나누어진다.

〈표 2-3〉 전세계 ODA 지원분야

대분류	세부분야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31.1%)	교육, 보건, 인구, 식수공급 및 위생, 공공행정
Economic Infrastructure & Service(10.8%)	운송, 통신, 에너지,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Production Sectors(5.3%)	농업, 임업, 공업, 광업, 건설, 무역, 관광
Multi-sector/Crosscutting(6.5%)	환경, 여성, 지역개발 등 다분야에 걸친 부문지원
Commodity Aid/General Prog. Ass.(2.5%)	예산지원 및 식량원조, 소비재 지원
Action relating to Debt(27.9%)	부채탕감, 부채 재조정 등
Emergency Ass. & Reconstruction(8.6%)	긴급구호나 재건구호 및 재난방지 등의 활동
Administrative Costs of Donors(4%)	(공여국의) 행정성 비용
Support to NGOs(1.3%)	NGO 지원
Unallocated/Unspecified(1.9%)	미분류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2.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현황

가. 위상의 전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1) 원조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한국은 1945년 해방이후 경제 재건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다. 50년대 말까지는 주로 미국으로부터 전후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안정을 위한 물자원조 및 산업설비 투자가 이루어졌다. 1954~60년에는 연평균 투자율 11.8%로서 그 투자재원은 무상원조가 대부분이었다. 1957년 이후 무상원조가 감소하고 1959년 말부터는 유상원조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부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미국 이외 선진국으로부터의 적극적 외자 도입이 이루어졌다. 통계상으로 1945년 이후 1999년까지 약 127억불의 원조를 받았으며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국 위상을 벗어나게 된다.

〈표 2-4〉 한국의 ODA 수원 역사

구분	긴급구호원조기 (1945~1953)	본격적인 원조기 (1953~1961)	차관전환기 (1962~)	
미국	기본법령	상호방위원조법(MDA)	상호안전보장법(MSA)	대외원조법(MSA)
	성격	긴급구호원조	경제안정과 방위력 강화	차관중심의 경제 원조
	원조담당	행정구조원조 (GARIO)1945~1949	대외원조행정기구(FOA) 1953~1955	국제개발처(AID) 1961~
	기관 및 명칭 주요원조	ECA원조(1949~1950) SEC원조(1951~1953) 구호물자공여	ICA원조 (1955~1961) PL480호 원조(1956~) 군사원조	개발차관
	형태	기술원조, 전시긴급원조등	방위지원원조 (계획원조 및 비계획원조) 잉여농산물원조	개발증여 지원원조 잉여농산물원조 등
국제 기구	유엔	UNRRA (유엔구제부흥기관)	UNKRA(유엔한국재건단) - 경제부흥원조	UNDP(유엔개발계획) - 기술협력
	유엔군		CRIK(한국민간구호계획) - SEC(미육군성물자지원)와 SUN(유엔군 물자 지원)으로 구분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2)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1965년부터 한국 정부자금으로 개발도상국 훈련생 초청사업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유엔기금 등의 자금을 지원 받아 개발원조를 실시 하였으나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원조수요가 매년 증가되 자 점차 한국 정부자금에 의한 원조규모가 확대되었다. 1977년부터는 한국의 기자재를 개발도상국에 공여함으로써 물자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4년에는 무상건설기술 용역사업,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1988년 이후에는 외채 감축과 국제수지 흑자의 실현으로 한국의 개발원조가 본격화되는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조성하여 개발원조 유상협력의 본격적 계기를 갖게 되었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설립으로 그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기술협력, 인적교류 사업 등이 통합관리 되고 있다.

〈표 2-5〉 한국의 개발협력 연혁

구분	년도	내용	주관부처
60년대	1963	미국 AID원조계획 및 자금을 의거 개도국 연수생 초청훈련 최초 실시	외무부, 과기처
	1965	정부자금에 의한 연수생초청사업 시작	외무부, 과기처
	1967	정부자금에 의한 전문가파견사업 시작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외국인초청 훈련 실시	외무부,과기처
	1968	정부자금에 의한 기술공여 시작	과기처
70년대	1975	개도국 기능공 초청연수 시작 · 1975~1982년은 과기처에 위탁 실시 · 1983년 이후 노동부 자체 실시	노동부
	1977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외국인초청 기자재 등 물자공여 사업 시작	외무부
80년대	1981	공동 연구사업 시작	KAIST
	1982	국제개발연찬사업(IDEP) 시작	KDI
	1983	건설기술자 초청연수 시작	건설부
	1984	무상건설 기술용역사업 시작 직업훈련원 설립지원 시작	건설부
	198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창설 과학재단에 대외기술공여사업 업무위탁	재무부 과기처, 외무부
	1988	대(對) 개도국 통신기술지원 무상용역사업 시작	체신부
90년대	1989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KYV) 파견사업 시작 무상기술용역사업 시작 대외경제협력기금 최초 자금지출	UNESCO 경제기획원 한국수출입은행
	1991	한국국제협력단 ODA 무상원조기관 설립	
	1992	프로젝트형사업 시작	한국국제협력단
	1995	국제협력요원파견사업 시작	한국국제협력단
	1995	민간원조단체(NGO) 지원사업 시작	한국국제협력단
	1996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간지출액 1억불 최초 초과	
2000년대	1997	국제협력연수센터(CTC) 개원	한국국제협력단
	2000	대외경제협력기금, IDB와의 최초 협조 용자 승인	재경부
	2001	대외경제협력기금 누적승인액 16억불 초과	재경부
	2002	아프간지원사업 시작	한국국제협력단
	2003	이라크지원사업 시작	한국국제협력단
	2005	서남아시아 지진해일복구(스나미)지원사업 시작	한국국제협력단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최근에는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개발, 원조실시의 방향과 방법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선진국들의 전통적인 원조방식 및 내용과는 차별성을 지니는 한국만의 원조정책을 개발하고 원조의 성과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보다 새로운 원조모델 수

립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형 원조모델에 있어서 전략적 지원 분야는 우리의 비교우위가 될 수 있는 1) 경제기획 등 경제개발 경험, 2) 보건위생·환경, 3)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4) 인프라 구축, 5) IT 등의 분야를 들고 있다. 바람직한 원조의 형태와 방식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풍부한 선진공여국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개발경험의 전수와 인적자원 개발 중심의 무상기술협력과 유상원조의 병행, 중기적으로는 유무상 원조 수단을 다양하게 혼합 연계하여 추진하는 부문별 원조(부문접근) 방식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07: 24)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한국국제협력단, 2005)’에 관한 연구 결과가, KIID(Korea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라는 이름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서, 12개의 핵심적인 정책과제에 추가하여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등 4개의 과제를 포함하여 모두 16개의 ‘한국형 개발협력 프로그램’ 과제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의 검토를 통해 현재는 정책 프로그램적인 성격의 사업보다는 중점 협력분야를 중시하는 분야적인 접근을 통해 주요 중점 협력분야 및 각 분야에 있어서 주요 개발협력 과제를 선정하였다. 7개의 중점 협력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여성 등이다.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 수여국의 위치를 넘어서 한국만의 경험과 기술 등 우위분야에 있어서 노하우와 재정을 지원하는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위치에 올라섰다. 신흥 원조공여국이라는 위치에서 급속한 신장세를 보여 온 대외원조의 규모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한국 원조사업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형 국제협력 사업으로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최대 활용한 우수한 원조사업을 펼쳐나감으로써 원조사업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대내적 책무에도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07: 37).

나. 사업현황

1) 사업 추진방향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주관 아래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 UN 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 인도주의적 지원 및 민간안보 강화를 추진목표로 두고 있다.

주요 방향은 ODA 규모 및 무상원조 비중 확대, 수원국 수요(Needs)에 따른 성과중심적 원조시행,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 발전, 민간참여 확대, ‘선택과 집중’ 원칙 유지(지원국가 및 분야), ODA 추진역량 강화, 비 구속성 원조(UNTIED) 확대이다.

주요 방향					
<table border="1"> <tr> <th>ODA규모 및 무상원조 비중확대</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한 ODA 규모 확대 노력 · 원조효과, 국제적 추세 등 고려, 무상원조비율 제고 </td> </tr> </table>	ODA규모 및 무상원조 비중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한 ODA 규모 확대 노력 · 원조효과, 국제적 추세 등 고려, 무상원조비율 제고 	<table border="1"> <tr> <th>‘선택과 집중’ 원칙 유지(지원국가 및 분야)</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아래 7개 분야를 중점지원하고 분야별 지원목표(GOAL)와 세부목표(TARGET) 설정을 통해 주제적 사업수단 투입 ① 교육(EDUCATION), ② 보건의료(HEALTH) ③ 행정제도(GOVERNANCE) ④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⑤ 정보통신(CT) ⑥ 산업에너지(INDUSTRY & ENERGY) ⑦ 환경여성(ENVIRONMENT & GENDER) · 소액 다국가 지원을 탈피, 협력 대상국 위주로 지원 </td> </tr> </table>	‘선택과 집중’ 원칙 유지(지원국가 및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아래 7개 분야를 중점지원하고 분야별 지원목표(GOAL)와 세부목표(TARGET) 설정을 통해 주제적 사업수단 투입 ① 교육(EDUCATION), ② 보건의료(HEALTH) ③ 행정제도(GOVERNANCE) ④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⑤ 정보통신(CT) ⑥ 산업에너지(INDUSTRY & ENERGY) ⑦ 환경여성(ENVIRONMENT & GENDER) · 소액 다국가 지원을 탈피, 협력 대상국 위주로 지원
ODA규모 및 무상원조 비중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한 ODA 규모 확대 노력 · 원조효과, 국제적 추세 등 고려, 무상원조비율 제고 					
‘선택과 집중’ 원칙 유지(지원국가 및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아래 7개 분야를 중점지원하고 분야별 지원목표(GOAL)와 세부목표(TARGET) 설정을 통해 주제적 사업수단 투입 ① 교육(EDUCATION), ② 보건의료(HEALTH) ③ 행정제도(GOVERNANCE) ④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⑤ 정보통신(CT) ⑥ 산업에너지(INDUSTRY & ENERGY) ⑦ 환경여성(ENVIRONMENT & GENDER) · 소액 다국가 지원을 탈피, 협력 대상국 위주로 지원 					
<table border="1"> <tr> <th>수원국 NEEDS에 따른 성과중심적 원조시행</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개발계획(NCP), 빈곤감소전략(PRSP) 등과 부합하는 사업지원 </td> </tr> </table>	수원국 NEEDS에 따른 성과중심적 원조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개발계획(NCP), 빈곤감소전략(PRSP) 등과 부합하는 사업지원 			
수원국 NEEDS에 따른 성과중심적 원조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개발계획(NCP), 빈곤감소전략(PRSP) 등과 부합하는 사업지원 					
<table border="1"> <tr> <th>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 발전</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개발경험을 대외원조 사업에 효과적으로 접목 · 수원국 여건과 상황에 적합하고,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td> </tr> </table>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개발경험을 대외원조 사업에 효과적으로 접목 · 수원국 여건과 상황에 적합하고,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개발경험을 대외원조 사업에 효과적으로 접목 · 수원국 여건과 상황에 적합하고,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table border="1"> <tr> <th>민간참여 확대</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분의 KOICA, 사업참여 확대 </td> </tr> </table>	민간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분의 KOICA, 사업참여 확대 	<table border="1"> <tr> <th>ODA 추진역량 강화</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 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둔 사업평가 기능 강화 · ODA 홍보를 통한 국민 지지확보 및 참여확대 </td> </tr> </table>	ODA 추진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 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둔 사업평가 기능 강화 · ODA 홍보를 통한 국민 지지확보 및 참여확대
민간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분의 KOICA, 사업참여 확대 					
ODA 추진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 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둔 사업평가 기능 강화 · ODA 홍보를 통한 국민 지지확보 및 참여확대 					
	<table border="1"> <tr> <th>비 구속성 원조(UNTIED) 확대</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언타이드 추세를 고려, 단계적 언타이드화 추진 · 언타이드 확대 추진과정에서 제도적인 미비점 보완 </td> </tr> </table>	비 구속성 원조(UNTIED)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언타이드 추세를 고려, 단계적 언타이드화 추진 · 언타이드 확대 추진과정에서 제도적인 미비점 보완 		
비 구속성 원조(UNTIED)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언타이드 추세를 고려, 단계적 언타이드화 추진 · 언타이드 확대 추진과정에서 제도적인 미비점 보완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그림 2-2) 한국의 국제개발사업의 추진방향

2) 사업 분야

사업의 분야는 크게 8가지로 나누어진다.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촌 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재난구호·복구, 환경·여성 분야다. 사업형태는 프로젝트,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해외재난복구지원, NGO 지원사업, 국제기구 협력 등이 있다.

특히 프로젝트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훈련, 보건·의료, IT 분야 지원 등 특정 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물적 협력수단(Hardware)과 전문가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 협력수단(Software)을 결합하여 다년간(통상 2~5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발굴, 계획, 실시, 심사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협력사업 수단이다.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물적·인적 자원을 수원국과 상호 협의하여 분담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원국측은 부지, 현지비용, 현지인력 등을 부담하며 한국국제협력단은 물적·기술적·인적 협력수단을 지원한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56개국 1국제기구에 221건의 사업을 지원하여 약 191,864천불 상당의 인프라 건축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한국 비교우위 분야인 IT, 직업훈련, 보건, 농림수산 분야 등을 중심으로 26개국에 40건 28,055백만원 상당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표 2-6〉 한국의 국제협력사업 중점 협력분야

분야	주요개발협력과제
교육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개선,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교과과정 및 교재개발, 교육자 및 교육행정 인력 역량강화 등, 교육연구 지원 등
보건·의료	보건의료 시설 등 인프라 구축, 안전한 식수공급 및 개발, HIV/AIDS 및 말라리아 퇴치, 전염병 예방 및 퇴치, 영양공급 지원, 보건인력 역량강화 등, 가족계획 및 인구정책 수립
행정·제도	공공정책기관 역량강화(입법, 사법, 무역투자, 금융, 경제, 시장경제, 민영화, 무역, 중소기업육성, 관세, 경영, 통계 등), 정부행정 전산화, 투자 및 수출 진흥 육성, 예산제도·재정 인력양성 지원 등, 지방분권화, 시민단체 역할 강화
농촌개발	농촌지역 주거환경 등 생활환경 개선 지원, 수출작물 육성 등 농업 소득증대, 농업/임업/수산업 인력양성 및 기술이전, 농업/임업/수산업 정책 및 제도 개선, 농업/임업/수산업 금융지원, 축산업 연구·축산업 진료 및 개발 지원 등
정보통신	IT센터·원격 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분야 전문인력 육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원격의료 시스템, 병원 전산시스템 구축, 통신망·전산망 구축, e-Government 구축, 언론인 방송 및 출판인력 교육, 정보통신 정책 및 제도 구축 등
산업·에너지	산업인프라 시스템 개발, 광업/교통/운송 분야 전문인력 능력 배양, 수자원 개발 등, 광물 및 자원 탐사 조사 및 연구, 에너지 개발 정책 및 연구, 관련시스템 개선 및 관리 운영
재난구호·복구	긴급구호 및 난민구호, 긴급 식량 원조 등, 비상사태/재난구호 지원
환경·여성	여성개발/환경개발/도시개발 정책, NGO 지원, 생물다양성/권력 및 자연문화유산 보호, 스포츠 등 문화협력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07)

여러 가지 사업 형태 중 특히 프로젝트 사업의 실적을 보면, 1997년까지는 점차 지원국가수가 증대되다가 그 이후로는 지원액은 1.5 배까지 향상되었으나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서 점차 지원국의 수는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에서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재난 구호 및 복구를 제외한 7가지 분야로 구성되는데, 교육훈련, 보건의료의 비중이 높다. 한편, 환경·여성 분야의 지원 비중이 가장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표 2-7〉 프로젝트 연도별 실적

구분	'91	'92	'93	'94	'95	'96	'97		
지원국가수	8국	4국	12국	17국	30국	30국	32국		
사업수	전체사업수	8	4	13	21	43	55	55	
	신규사업수	8	3	9	12	28	28	33	
지원액(천불)	781	672	3,112	6,029	10,040	11,740	14,445		
	'98	'99	'00	'01	'02	'03	'04	'05	
지원국가수	24국	17국	11국	17국	21국1기구	25국1기구	31국1기구	25국2기구	
사업수	전체사업수	39	27	20	33	36	41	55	50
	신규사업수	6	3	7	21	14	15	34	25
지원액(천불)	11,799	11,389	14,540	10,565	12,653	33,099	50,997	21,842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표 2-8〉 프로젝트 분야별 실적

분야	총계	교육훈련	보건의료	행정제도	산업에너지	정보통신	지역개발	환경여성
총계	246건	73건	53건	14건	13건	48건	41건	4건
비율	100	29.7	21.5	5.7	5.3	19.5	16.7	1.6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3) 사업 지역

한정된 대외 무상원조 재원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사회 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별,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대외무상원조가 시행되고 있다. 빈곤상황(소득수준, 절대빈곤인구 비율 등), 가버넌스 상황, 우리나라와의 경제적·외교적 관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대외무상원조 지원대상국을 다시 중점협력국과 일반협력국으로 구분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대외무상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구분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구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중동으로 하고 있다. 대외무상원조 지원액 규모를 보면 오세아니아를 제외하고, 동구 CIS에 대한 원조 규모가 가장 작다.

〈표 2-9〉 KOICA의 무상원조사업 지역별 현황

지역	구분	합계		2001		2003		2005		2007		
계	금액	1,197,278,015,262		69,718,289,944		147,899,932,463		215,120,453,722		251,085,885,447		
	달러	1,132,991,868		54,010,434		124,088,565		210,014,989		270,217,268		
	국가수	기구수	167	46	138	15	130	10	138	20	130	20
	건수	인원수	1,934	26,562	218	2,589	294	3,162	366	4,418	325	5,215
아시아	금액	440,515,220,301		31,821,227,895		58,939,237,542		69,984,573,105		80,470,354,461		
	달러	412,369,295		24,651,757		49,450,226		68,323,625		86,601,759		
	국가수	기구수	23	0	19	0	21	0	21	0	22	0
	건수	인원수	540	14,497	79	1,606	89	1,869	118	2,375	111	2,349
중남미	금액	315,358,917,912		690,325,797		50,252,547,306		79,873,705,940		54,335,074,010		
	달러	301,178,552		534,792		42,162,068		77,978,060		58,475,113		
	국가수	기구수	14	0	11	0	10	0	9	0	8	0
	건수	인원수	213	2,955	6	66	53	142	49	658	23	819
아프리카	금액	126,848,216,115		5,949,910,596		9,572,232,005		16,103,811,713		39,368,031,528		
	달러	122,605,759		4,609,368		8,031,136		15,721,619		42,367,662		
	국가수	기구수	53	0	42	0	40	0	46	0	47	0
	건수	인원수	492	3,493	49	283	59	355	84	533	75	1,047
중남미	금액	94,485,466,382		3,998,674,247		8,015,995,057		12,295,652,625		33,116,058,414		
	달러	91,483,936		3,097,754		6,725,448		12,003,839		35,639,322		
	국가수	기구수	33	0	31	0	31	0	32	0	31	0
	건수	인원수	365	2,459	35	206	54	298	63	375	65	590
오세아니아	금액	7,999,024,197		828,092,769		879,675,819		810,802,952		1,656,139,554		
	달러	7,485,996		641,520		738,051		791,560		1,782,328		
	국가수	기구수	13	0	11	0	6	0	10	0	10	0
	건수	인원수	65	348	12	40	9	47	9	48	8	63
동구및 CIS	금액	54,358,701,484		7,562,812,836		6,010,724,699		9,551,576,927		6,990,496,752		
	달러	49,677,601		5,858,876		5,043,018		9,324,889		7,523,135		
	국가수	기구수	31	0	24	0	22	0	20	0	12	0
	건수	인원수	145	2,800	21	383	19	450	23	426	12	347
국제기구	금액	30,568,931,572		6,886,442,566		1,204,257,947		8,310,271,379		10,259,233,101		
	달러	29,079,867		5,334,895		1,010,377		8,113,043		11,040,931		
	국가수	기구수	0	46	0	15	0	10	0	20	0	20
	건수	인원수	112	16	15	4	11	1	20	3	30	0
기타	금액	127,143,537,299		11,980,803,238		13,025,262,088		18,190,059,081		24,890,497,627		
	달러	119,110,862		9,281,473		10,928,242		17,758,354		26,787,019		
	국가수	기구수	0	0	0	0	0	0	0	0	0	0
	건수	인원수	2	1	1	1	0	0	0	0	1	0

자료: 국제협력단 통계사이트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과 무상원조 및 협력사업의 가능성이 진단되고 있다. 동구·CIS 지역은 28개국에 약 4억 7,3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총 면적은 2,345만km²로 이 중 러시아가 동 지역의 72.8%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카자흐스탄이 12.6%를 차지하고 있다. 동 지역의 국가들은 구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전환과정을 상당 수준 완료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구권 국가의 경우 폴란드, 헝가리 등 10여개 국가들이 유럽연합(EU)에 가입하는 등 경제사회적 발전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서부 발칸반도 지역은 분쟁과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CIS 회원국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발전의 양상에 있어 그 격차가 국가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실업문제, 두뇌 국외유출, 농촌지역 빈곤, 사회기간시설 노후화 등의 과제는 동 지역개발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동구·CIS 지역의 MDGs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빈곤감소 목표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일부 국가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15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동 성장세가 보다 더 가속되어야 한다.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목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달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 및 산모 사망률 감소, 그리고 HIV/AIDS 확산방지 목표 관련 성과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는, 동구·CIS 지역이 체제전환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국가별로 발전의 수준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안정적인 이행 달성을 위해 행정제도 및 인적자원개발(HRD) 등을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3. 한국의 對 중앙아시아 여성관련 국제개발협력의 현황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여성정책 협력사업을 논하기에 앞서, 현재 한국에서는 對 중앙아시아 사업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무상원조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2-10>과 같다.

〈표 2-10〉 한국의 對 중앙아시아 무상원조사업 분야 및 규모
(2000~2007년 사업 중심으로)

원조목적코드명	금액		비율
	원	달러	
교육	14,895.49	13,940.87	27.4
보건·의료	7,159.23	6,385.64	13.2
행정제도	13,111.76	11,794.78	24.1
지역개발	1,041.32	941.12	1.9
정보통신	7,237.60	7,066.75	13.3
산업에너지	3,428.91	3,288.04	6.3
환경및기타	3,417.31	3,066.75	6.3
긴급구호	4,067.07	3,193.65	7.5
계	54,358.70	49,677.60	100.0

자료: 국제협력단 통계사이트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실시된 사업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표 2-10>에서 나타나듯이 對 중앙아시아 무상원조 사업에서는 행정제도, 교육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2-6>에 의하면 여성관련 분야는 ‘환경 및 기타’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 및 기타’ 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다. <표 2-11>에서는 여성관련 원조가 포함된 ‘환경 및 기타’ 분야의 세부사업을 알 수 있는데, 여성정책관련 무상원조사업은 6차례만 시행되었으며 시행 횟수뿐만 아니라 규모도 다른 사업에 비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한국의 對 중앙아시아 무상원조사업 중 ‘환경 및 기타’ 분야 세부사항

세부내역	사업기간	사업규모(달러)
(프)아제르바이잔 압세론지역 토양오염정화사업	2007~2010	4,800.00
(물)슬로바키아 사무기기		
(물)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복구지원 현금		
(연)지역개발정책 5명	2000	
(연)환경보호기술 4명	2000	
(연)해양오염방제 시뮬레이션 2명	2000	
(연)환경시설관리 4명	2000	
(연)한.일 수환경개선 3명	2000	
(연)해양환경보전(APEC) 2명	2000	
(연)신도시개발 및 도시정비 2명	2001	
(연)관광개발 전략 1명	2001	
(연)카자흐스탄 관광개발전략 14명	2001	
(연)환경보호기술정책 3명	2001	
(연)해양환경보전(APEC) 2명	2001	
(연)한일 호소수질 관리 5명	2001	
(연)사막화방지 7명	2002	
(연)관광개발전략 8명	2002	
(연)한.일 호소수질관리 3명	2002	
(연)환경연안평가기술(APEC) 2명	2002	
(연)대기오염방지기술 4명	2002	
(연)아시아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4명	2002	
(연)태권도 기술향상 및 기법교육 4명	2002	
(연)태권도 기술향상 및 기법교육 5명	2003	
(연)산림관리 3명	2003	
(연)사막화방지 4명	2003	
(연)해양오염방제 시뮬레이션 3명	2003	
(연)한.일 호소수질관리 2명	2003	
(연)대기오염방지기술 3명	2003	
(연)태권도 기술향상 및 기법교육 3명	2004	
(연)산림관리 3명	2004	
(연)환경보호정책 6명	2004	
(연)해양오염방제 시뮬레이션 4명	2004	
(연)여성건강 및 권익향상 2명	2004	
(연)지역개발정책 4명	2005	
(연)산림관리 3명	2005	
(연)환경보호정책 7명	2005	
(연)한일공동연수 1 (호소수질- 교차) 1명	2005	
(연)여성건강 및 권익향상 2명	2005	
(연)태권도 기술향상 3명	2005	
(연)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1명	2006	

26 중앙아시아와 여성정책 협력사업을 위한 탐색연구

세부내역	사업기간	사업규모(달러)
(연)산림관리 1명	2006	
(연)여성건강 및 권익향상 2명	2006	
(연)UNDP 몽골 행정정보화관리 19명	2007	
(연)여성관리직 공무원 리더십 향상 2명	2007	14,626.23
(연)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2명	2007	14,626.23
(연)환경영향평가 2명	2007	14,626.23
(연)여성인권과 여성발전 1명	2007	
(연)학위/연구과정-개발협력-여성개발(석사) 1명	2007~2008	
(진)태권도_4단 3명	2001~2007	
(진)태권도_5단 6명	2001~2007	
(진)태권도_6단 1명	2000~2006	
(진)도시계획 1명	2001~2003	
(봉)태권도_3단 21명	2007~2010	69.02
(봉)태권도_4단 9명	2003~2005	
(봉)환경공학 1명	2003~2005	
(봉)관광 1명	2007~2009	16.46
(봉)환경관리 2명	2003~2005	
(봉) 2명	2006	
(봉)사서 1명	2007~2009	21.85
(N)러시아 한방해외의료 봉사사업		
(N)우즈베크 의료지원 사업		
(N)우즈베키스탄 칼라칼팍스탄 한방의료		
(N)우즈베키스탄 시범농장 운영		
(N)카자흐스탄 광성기술학교 지원		
(N)타지키스탄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N)카자흐스탄 농촌개발사업		
(N)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자치공화국 한방의료 지원사업		
(N)키르기즈스탄 추이 농업지도자 훈련원건축사업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통계사이트

한편, 사업형태로서 ‘연수생 초청 사업’의 경우를 보면, 연수생 초청 및 파견 사업 중 여성관련 프로그램으로서의 연수생 파견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도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여성관련 연수 프로그램 참여가 전혀 없거나 아주 소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연수 프로그램 가운데 여성이 한 번이라도 참가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경제기획과 산업개발’, ‘중소기업육성’,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동구 CIS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병행발전’, ‘동구 CIS 파트너

십’, ‘구주CIS파트너십’, ‘구주CIS 한국어 교육’, ‘예산제도 및 재정운영’, ‘무역 투자진흥’, ‘외교관 연수’, ‘ESCAP 주최 개도국 고위공무원 방한 특별연수’, ‘가족계획과 생식보건’, ‘국제통상 및 WTO 협정’, ‘기상기술 고위파트너십’, ‘산림관리’, ‘기상예보’ 등이 있다(김상철, 2008).

국가별로 연수 참여자들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에서 참여한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여성들은 여성관련 연수생 프로그램에도 초청된 실적이 없으며 타지키스탄은 여성의 사회적인 권리신장보다는 전체 사회변화와 관련이 되는 프로그램 정도에만 연수생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 정치적인 결정권한이 많이 부여되는 분야들보다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들이 많다. 여성의 건강문제와 직접 연관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가족계획과 생식보건’ 프로그램이 2003년, 2004년에 실시되었는데 2003년에는 참여자 중에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이 없었고 2004년에는 참여한 2명 모두 여성이었다. 여성문제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들로는 ‘가족계획과 생식보건’, ‘여성건강 및 권리향상’, ‘여성 소규모 창업’, ‘여성 관리직공무원 능력향상’ 등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여성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여성 연수생의 참여는 매우 미미하였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중앙아시아 초청 연수생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2% 수준이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여성관련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초청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김상철, 2008).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한국의 對 중앙아시아 여성관련 협력은 가시적(분야구분의 명칭)으로도, 내용적(환경 및 기타 분야의 세부 사업 목록)으로도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여성관련 원조 및 협력사업의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인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원조 공여국으로서 한국에서 여성관련 분야 지원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독립된 분야로서 여성관련 부분을 다루지 않고 교육, 보건의료 등 타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분없이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외무상원조 및 국제 개발협력 사업에서 아직 성(性) 인지적 접근이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외무상원조 사업이 MDGs의

8가지 목표 중 하나인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과 같은 영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UN에서는 MDGs 목표 및 달성과제를 세우고 모성건강, 직업훈련, 여성질병 치료, 여성관련 정책수립 지원 등의 원조를 펼치고 있다.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의 영역에서는 교육에서 성별 간 차이를 초, 중등교육에서는 2005년까지, 모든 교육수준에서는 2015년까지 제거하는 것을 세부목표로 하여, 초중고등교육의 남성 대 여성비율, 15~24세 남성대 여성 문자해독률, 비농업부문의 여성고용 비중, 국회 여성 의석 비중 등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돕고자 국제기구, 스웨덴,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기구 협력사업 자금지원에 협조하고 있다.

둘째, 원조 수원국으로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UNDP, EU, ADB 등의 국제기구로부터 여성정책 관련 분야의 협력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성(gender)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역사적·문화적으로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성(gender)과 관련된 이슈들은 정책결정자들이나 고위층 정치인들에게 그다지 주목받는 영역이 아니다. 또한 경제 및 금융관련 이슈에서도 성(性) 인지적 차원에서의 분석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도시보다는 농촌, 남성보다는 여성의 임금수준 및 생활수준이 매우 좋지 않고 가정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은 문화도 여성인권 향상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문제들은 국가계획에서 일반적이고 규범적 단어들로만 언급되고 있으며 세부 실천계획이나 관련 예산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당면한 국가 발전과제로 인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여성관련 정책은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참여 및 관련 정책의 시행이 확산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된다.

요약하면, 1)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젠더이슈와 협력사업의 연계 노력 부족, 2) 수원국으로서 중앙아시아의 사회구조적 장애물이 있지만, 2000년대 들어 對 중앙아시아 여성관련 국제개발협력이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고려해 볼 때, 한국의 경우에도 수원국으로서 여성관련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비교적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2005년 외교통상부의 「정부개발원조(ODA) 선진화 방안」 이후 새롭게 모색된 ‘한국적 개발협력 사업(KIID)’에서 전략적 지원 분야(한국의 비교우위 분야)²⁾를 선정한 것과 여성관련 협력사업을 연계하면 더욱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다. 보건위생·환경,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IT 분야 등에서 여성정책 협력사업이 수행된다면, 수원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존중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에 한층 더 원만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2) ① 경제기획 등 경제개발 경험, ② 보건위생·환경, ③ 교육·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④ 인프라 구축, ⑤ IT 등

제 3 장

중앙아시아의 젠더이슈와 협력사업의 탐색

1.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배경과 여성의 지위	33
2. 카자흐스탄	36
3. 우즈베키스탄	57
4. 키르기즈스탄	82
5. 투르크메니스탄	110
6. 타지키스탄	137

1.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배경과 여성의 지위

현대 중앙아시아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요소와 비전통적인 요소가 국가별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바로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인식과 역할의 차이를 명백히 하는 전통 이슬람 여성관과 기계적 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소련시기의 사회주의적인 여성관의 공존은 중앙아시아 사회의 여성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소비에트 정권은 여성의 노동력을 가정에서 사회로 끌어내기 위해 여성해방을 추진하였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여성들을 대상으로 ‘베일 벗기기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이슬람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근절하고 가부장제의 중심인 토착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1927년 국제 여성의 날에 개최된 집회들에 참석한 많은 무슬림 여성들은 베일을 벗고 이를 불태웠다.

오늘날 중앙아시아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은 전통사회에 비해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의한 평등주의적 여성관의 영향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에서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이슬람 여성관이 다시 강조되고 있고 이는 진보적인 소련시기의 여성관과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가에 따라 전통적인 요소를 더 강하게 부활시키려는 국가가 있는 반면 전통적 요소를 도입하면서도 현재의 사회 현실을 더 중시하는 국가도 있다. 중앙아시아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비전통적인 가치관이 두드러지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가족제도와 이와 연관된 여성의 지위 문제라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과거 소련의 일원으로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인종 구성비와 민족별 이슬람의 성향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 안에서도 민족들은 각자의 관습과 종교적 관행에 따라 생활하며 여성들도 자신이 속한 민족의 전통을 의식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다.

민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려인은 여성의 사회 활동을 자유롭게 인정

하므로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고 사회 참여도 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고려인 여성들이 사회 엘리트에 속하는 교수와 교사직 등의 전문직에 다수 진출해 있다는 점은 그들의 지위를 반증해 주고 있다.

러시아계 여성들은 러시아 정교도 전통을 지키며 살아간다. 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세대 러시아인들의 신앙심은 크게 약화되어 형식적으로 변하였다. 러시아 여성은 사회활동이 자유롭고 학력수준이 높아 전문직 진출이 용이하였다. 한편 고등교육을 받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소유한 여성들이 홀로서기를 하면서 독신주의 확산, 이혼율 증가, 조기단산 선호 등의 현상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김대성·조희선, 2004: 227).

사회활동에서 가장 큰 제약을 받는 여성들은 무슬림 여성들이다. 무슬림 여성들은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가 제시한 원리를 따라야 한다(김대성·조희선, 2004: 230).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은 러시아인들이 차지하는 인구비가 커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슬람 성향이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에 비해 크게 보수적이지 않으며 무슬림이라 해도 이른바 명목적인 무슬림들이 많다. 카자흐스탄과 달리 타지키스탄은 시아파 무슬림으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영향을 받아 원리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여성들에게 이슬람 규율을 철저히 따르도록 하고 있어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크게 제한되며, 여아들에 대한 교육조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중앙아시아 무슬림 여성의 생활과 지위에 있어서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여성은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 가운데 다수민족이 우즈베크인이며 중도 이슬람 성향을 보이는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을 정체성의 근간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을 받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부 여성을 제외하면 다수는 이슬람관행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반면 러시아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슬람의 영향력이 약해 여성들의 성향 역시 우즈베키스탄의 무슬림 여성들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³⁾.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 여성들

3) 중앙아시아 각국의 여성과 관련된 통계자료들을 통해 각국 여성의 생활여건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가 가능한데,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5세 이하 영아 사망률은

의 의식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다.

중앙아시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이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많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전통적인 무슬림이 강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사회 진출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이는 전통사회의 남성들이 여성의 사회활동과 다양한 대인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소련 시기에 여성의 교육 및 사회 진출이 증가했지만 일부다처제는 능력 있는 보수적인 남성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⁴⁾ 진보적인 여성들은 양장을 하지만 중도 및 보수성향의 여성들은 화사한 색깔의 전통의상을 입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낮은 남성이 있거나 모스크나 묘지에 가는 경우에는 꼭 머리를 가리며, 보수적인 여성은 얼굴 전체를 다 가려 얼굴을 볼 수 없게 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가사를 책임지며 직장을 가진다고 해도 가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진출의 기회를 가진 소수 여성들은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가정생활을 받아들이는 대신 독신으로 지내기도 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생활 조건은 소련시기보다 독립이후 더 악화되었다. 이는 소련시기에는 평등권이 확대되었으나, 독립 이후에는 남성중심 문화를 강조하는 이슬람 전통이 부활하고,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면서 여성의 노동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출산으로 인한 건강문제 역시 악화되었는데 다산 전통 및 악화된 모자보건 환경으로 인해 독립이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무슬림 여성들은 서로 대립적인 두 가치관을 접하며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순서를 보였다. 남성대비 여성의 중등교육 수혜비율은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낮고, 그 다음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의 순서였다. 여성의 생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피임제 사용은 타지키스탄이 가장 낮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예 통계치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폐쇄적이라는 측면에서 여성과 관련된 인식 역시 유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수치 파악이 가능한 경우들로 한정하여 볼 때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생활여건이 가장 열악하며, 반면 카자흐스탄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김대성·조희선 외, 2004: 231-232).

4) 가정에서도 여성은 남자 손님이 방문했을 때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살아가고 있다. 하나는 이슬람을 부정하고 남녀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부여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이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부정되다가 최근 부활하고 있는 이슬람 원리에 의한 남성우월적 경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했던 여성들은 이슬람 전통의 부활 및 강화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그러나 무슬림 남성들은 여성들이 전통에서 이탈하여 러시아화되고 일부 진보적인 여성들은 혼전이나 혼외관계에 대해서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불만스러운 견해를 표출하기도 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 시기의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 전통의 회복을 통해 소비에트적인 속성을 탈피하려 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소련시기보다 더 악화되는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즉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상호 공통성과 차별성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우리가 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카자흐스탄

가. 개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년 동안 러시아와 구소련연방의 지배를 받았고 다른 CIS 국가들과 함께 1991년에 구소련연방에서 독립한 신생독립국가이다. 러시아에 통합되기 이전에는 국가가 아니라 부족 혹은 씨족의 개념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독립과 더불어 국가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여러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종 간의 갈등이 국가정체성 확립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목표는 민족 간의 화합이다. 실제로 오늘날 카자흐 사회는 상호 협력과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Sancak and Finke, 175).

인구의 인종 구성은 현재 인구 1,500만 중 카자흐인 60%, 러시아인 22%, 우크라이나인 3.7%, 우즈베크인 2.5%, 타타르 2.5%, 독일계 2.4% (2006)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870년 경 카자흐인이 500만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슬라브인들의 유입으로 인구 구성비가 역전되었고 독립 이후 다시 카자흐인의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다. 독립 후 민족정체성 확립과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카자흐어를 국가어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언어 차별 정책 때문에 슬라브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많이 떠나게 되어 많은 전문직, 기술자 잃게 되자 '95년에 다시 러시아어에 카자흐어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식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카자흐 언어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카자흐어는 트루크어의 분파이다. 전통적으로 북쪽에는 슬라브인, 남쪽에는 카자흐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슬라브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쪽을 통합하기 위해 수도를 알마타에서 아스타나로 이전하였다.

공식적인 종교는 이슬람교이고 이슬람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실제 이슬람교가 전파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이슬람교는 8세기에 중앙아시아에 전파되었지만 카자흐스탄 등 북쪽 지역에서는 18-19세기에 받아들였다. 제정 러시아의 카타리나 여제가 유목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슬람교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이들 국가의 종교로 채택하였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표피 아래 중심에는 무속신앙, 천신사상, 조상숭배 등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까지 유목생활을 하여 유목문화의 전통이 많이 남아있다.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에 위치하여 예전부터 여러 종교가 통과하는 지역이고 유목생활을 해서 개방적이고 새로운 것에 유연하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기존에 있던 신앙이나 문화에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1) 인구

카자흐스탄은 넓은 국토에 천오백만명 정도(2004년)로 인구밀도가 낮은 편

이다.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2002년부터는 출산율의 증가와 이민자들의 귀환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율은 2002년 0.1%, 2003년 0.6%이다. 출산율은 1999년 1,000명 당 14.57에서 2003년 16.63으로 늘어났다.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1999년 1,000명 당 4.7명에서 2003년 6.22명으로 높아졌다.

여성은 전 인구 중 52%를 차지한다. 15세와 64세 사이의 인구는 천만으로 남녀 각각 5백만명이다.

기대수명은 여성은 2003년에 71.46세로 1999년의 70.88세에 비해 조금 높아졌는데 남성은 훨씬 낮은 60.45세로 전 기간의 60.62세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

노동 인구는 전체 8백만이고 이 중 여성은 4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경제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는 1990년에 1,480\$에서 2006년에 5,100\$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사회주의 체제와 결별한 후 민족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여성관이 부활하고 이러한 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전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2003년 전후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다.

〈표 3-1〉 주요경제지표 - 카자흐스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GDP	총액(십억불)	22.0	24.5	24.9	41.1	56.2	77.9
	성장률(%)	13.5	9.5	9.3	9.4	9.4	10.6
	1인당GDP	\$1,467	\$1,631	\$2,064	\$2,700	\$3,620	\$5,100
인플레이션(%)		6.4	5.9	6.5	6.7	7.6	8.4
무역 (억불)	교역량	150.3	161.9	189.9	328.7	452.0	561.0
	수출	86.6	97.0	115.9	200.9	278.4	348.2
	수입	63.6	64.9	74.0	127.8	173.5	212.8
	무역수지	23.0	32.1	41.9	73.1	104.9	135.4
외국인 직접투자 (백만불)		4,556.6	4,106.4	4,624.5	8,317.3	6,616.5	5,424.0**
외환보유고(억불)		25.08	35.7	49.6	92.7	70.69	141.8*

자료: 김은성(2007). 2쪽에서 재인용
(자료원: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및 통계청)

주) *표: 2006년 10월 기준

**표: 2006년 11월 기준

카자흐스탄 전체 노동시장은 비정부 영역으로의 인력 재배치와 고용증가로 인해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 2003년 전체 실업률은 8.8%이고 남성 실업률은 7.2%, 여성 실업률은 10.4%이며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93%이고 여성은 90%이다. 여성 실업자 중 중등교육 수료자가 3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등직업교육 수료자로 27%, 고등교육 수료자는 16%이다.

2003년에 여성의 평균 월임금은 \$125(17,000tenge)인데 이는 1999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남녀 임금 격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1999년 여성임금이 남성의 67.6%였다면 2003년에는 60.8%로 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보건, 교육, 사회서비스와 문화활동 등의 영역에서 지속되고 있다.

2001년-2003년 기간 동안 여성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12,000회의 컨퍼런스,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500,000명 정도의 여성이 참여하였다(CEDAW, 2005).

산업 종류별로 성별구성비는 농업에 남성 36%, 여성 34%, 제조업에 남성 23%, 여성 10%, 서비스업에 남성 40%, 여성 56%로 제조업에서는 남성이, 서비스업에서는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기준 여성평균임금은 남성평균임금의 61%밖에 되지 않았다(CEDAW, 2005).

3) 교육

카자흐스탄에서는 중등교육과 초보직업교육이 무료이다. 남녀 모두 교육 수준이 높으며 성별 교육수준의 차이는 없다.

〈표 3-2〉 성별 문해율 - 카자흐스탄

연령대	여성의 문해율(%)	남성의 문해율(%)	전체 문해율(%)
15-24 세	99.9	99.8	99.8
25-44 세	99.9	99.9	99.9
45세 이상	98.2	99.6	98.8

자료: CEDAW(2005)

〈표 3-3〉 교육수준별 성비 - 카자흐스탄

(단위: %)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1-4학년					
여자	49.3	48.8	48.8	48.9	48.8
남자	50.7	51.2	51.2	51.1	51.2
5-12학년					
여자	50.9	49.8	49.8	49.8	49.6
남자	49.1	50.2	50.2	50.2	50.4
고등교육					
여자	54	54	55	57	57
남자	46	46	46	43	43

자료: CEDAW(2005)

카자흐스탄에서 여성이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다. 고등교육을 받는 여학생의 수는 57%, 남학생의 수는 43%이다. 교사의 성비를 봐도 여성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교수성비에 있어서는 수직적 차별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박사와 교수의 81%, 교수 후보자인 'Docent(부교수급)'의 57%, 박사과정 학생의 52%가 남성이다.

〈표 3-4〉 전공별 성별비율(2003/2004) - 카자흐스탄

(단위: %)

	여성	남성
자연과학	65.9	34.1
인문, 사회과학	52.6	47.4
교육	75.5	24.5
의학	66.8	33.2
문화, 예술	69.5	30.5
경제, 경영	70.0	30.0
광업	15.0	85.0
석유, 천연가스	15.2	84.8
전력	11.2	88.8
건설	26.5	73.5

자료: CEDAW(2005)

4) 건강

2003년에는 여성의료기관 27곳이 새로 개설되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의료보호기관으로서 조산원 1,420개소, 여성진료소 79개소가 있다(CEDAW, 2005).

가) 모성사망률

카자흐스탄의 경제사회조건의 향상으로 인해 모성사망률은 1999년 십만명 중 65.3명에서 2003년 42.1명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나)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은 1999년 1,000명 중 20.36명에서 2003년 15.67명으로 감소되었다.

다) 여성건강 관련 법

여성건강 관련 법으로는 마약중독자의 의료와 사회재활법(2002년 5월), 흡연예방 및 금연법, 아이온결핍증 예방법, 생식권과 실행보장법이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밀에 철분과 비타민 강화 의무조항이 있다.

알마아타, 아스타나, 아티라이, 세미팔라틴스크, 타라즈 지역의 가임연령 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ulegenev, 2008).

- 4명 중 1명은 흡연이나 음주 같은 해로운 습관을 가지고 있다.
- 2명 중 1명이 만성적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중 7%에 해당하는 여성의 자녀가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
- 12~13명의 여성 중 1명의 자녀가 선천적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 선천적 발달장애 중 중앙신경시스템 장애가 가장 많고 차례대로 심장, 혈관 장애, 위·대장 장애, 뼈·관절 장애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여성의 ⅓가 난산으로 인해, 신생아의 9.8%가 사산되고 8.3%가 출생 후 사망한다. 또한 5.4%는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고 10.5%는 선천적 발달장애를 갖게 된다.

이 보고서는 여성의 난산 원인으로 해로운 생태학적 요인이 54.4%로 가장 크며, 다음이 사회적 문제(49.6%)라고 주장한다. 자연환경 및 식료품 오염, 낙후된 노동환경, 유해산업, 만성적 질병, 산전교육과 산후관리 부족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아이들이 선천적 발달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다고 한다. 국가가 임신여성과 임신중절에 대해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카자흐스탄 미래세대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지만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에서는 산전교육 시스템이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다.

나. 여성현황 및 성평등 관련 제도

1) 여성 대표성

가) 국회의원 성별비율

2004년 현재 여성 국회의원은 11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9.5%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7.1%이다. 카자흐스탄은 다당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다. 2004년 현재까지 12개의 정당이 등록하였고 이 중 2개당은 여성이 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 공무원 성별비율

국가기관의 여성비율은 1999년 이래로 증가하여 2004년 현재 58.5%를 넘고 있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1%이다.

다) 각료 성별비율

2004년 카자흐스탄 역사 중 처음으로 여성이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에 임명되었다. 여성 장관이 2명이고 차관이 9명이며 산하단체(Central Elections Commission)의 장이 1명이며 7명의 주지사(governor of oblast akims)가 있다.

2) 여성관련 법 및 정책

가) 양성평등 관련

1995년 대통령 산하에 가족, 여성 및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문협의회, 1998년에 여성과 가족 국가위원회가 생겨서 여성지위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었다. 1999년에는 '카자흐스탄 여성지위 개선을 위한 국가적 정책지침'이 수립되어 여성의 결정권과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표로 다

양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2002년의 평가에 의하면 이 계획의 80% 정도가 시행되었다고 하나 여성의 동등한 권리나 기회제공을 보장하는 법률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3년 생활의 모든 면과 공적 활동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CEDAW의 권고와 UNIFEM과 'UN 개발국의 젠더'와 같은 비정부기구의 협력으로 성평등의 개념에 동의하는 정부의 의결이 있었다. 이는 관리기구에 남녀의 균형적 참여를 이루고 경제적 독립, 자기 사업 개발, 일자리를 위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가정에서 권리와 책임의 균등한 행사를 위한 조건을 만들고 젠더에 근거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을 가진다(이는 젠더 교육의 도입, 성별에 근거한 법의 평가, 예산정책에 젠더지표의 통합과 여성건강 증진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에 대한 국가계획 및 프로그램을 동반할 것이다). 이는 2010년까지 정부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로 적절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4년 말부터 국가위원회에서 '2005-2015년 카자흐스탄 양성평등전략'을 구상하였으나 아직도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전략은 법률, 사회정책, 정책참여, 경제, 의료, 여성 및 어린이 폭력근절, 교역, 정보정책, 문화, 과학 및 교육 분야의 양성평등 시행을 위한 대책이다.

나) 여성인권 관련

여성은 폭력 범죄 희생자의 91%를 차지하는데 이 중 65%는 성범죄이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제 확립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내무부 산하의 특별 경찰대의 수는 6.9배 증가하여 137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2001년부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협조하고 있다. 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과 여성을 위해 38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안이 제안되어 2006년 국회에 상정될 계획이 세워졌다.

2002, 2003년에 불법 이민, 범죄조항에 수정조항을 포함시키는 법이 통과되었고 관광에 대한 법도 개정되었다. 이 법들은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단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여성 관련 기구 및 조직

가) 국가 기구

2002년 CEDAW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인권대표부(Ombudsman)를 설립하였고 여기에 젠더이슈 전문가를 두었다. 모든 정부 조직에 젠더조정관을 임명하라는 CEDAW의 권고가 실행되고 있다. 국회 입법처에 가족, 여성,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Ombudsman이 설치되어 있다. 초기에 보건, 교육, 여성과 아동 권익의 법적 지원에 대해 비정부,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법령이 성평등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성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여성 단체⁵⁾

2003년 등록된 비정부기구 총 수는 2,430개이고 이중 여성기관은 150여개이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비정부기구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의 수는 남성에 비해 3배가 많다. 비정부기구는 수도(알마아타, 아스타나)와 대도시 지역 및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도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비정부기구와 협력하는 기관 수는 비정부기구의 회원기관 수를 상회한다. 그리고 후원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가진 비정부기구도 생겨났다. 하지만 비정부기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각 비정부기구 리더들의 열성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산하의 기관으로서 활동하지 않는 비정부기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의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뿐이다.

5) Tulegenov, 2008

국가발전에 여성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큰 공헌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직까지 여성운동은 사회정책상 주변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고 국가정책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긍정주의자들은 반대로 여성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새로운 법안의 마련, 법안의 양성평등의식 유무 점검, 차별조항 폐지, 폭넓은 양성평등운동이 가능해졌고 공무원, 경찰, 청년층, 농민, 빈곤여성 및 여러 계층의 국민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OSCE의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프로젝트를 통해 2001년 여성단체에서는 125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 세미나에는 2천5백 명이나 참석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 및 기회제공, 가정폭력, 비영리기관, 사회적 요구, 교육, 2005-2015 카자흐스탄 양성평등 전략 등에 관한 논의에 활발히 참여했다.

여성문제 분석에 적절한 예산할당 작업을 시작도 하지 못한 정부와 달리 여성 비정부기구는 주정부 및 시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할당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우스트 카메노고르스크의 <Status>라는 여성연합은 「지역정부의 여성예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계 및 학계에서 여성문제를 대하는 시선은 조용히 좌시하는 태도에서 긍정적인 형태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4) 젠더 교육

고등교육에서 젠더 시각을 도입하기 위해 “젠더 이론 개론”이라는 강의보조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2002년부터 카자크 국립 여성 교육원과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젠더, 젠더연구, 젠더사회학을 강의하고 있다. 내무부 산하의 대학에서는 내무부의 ‘젠더문제와 목표’하에 일년에 10시간의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있다. 2001년 정부는 카자흐스탄에서의 도덕과 섹스 교육의 개념을 인정하였다.

다. 젠더이슈

카자흐스탄의 2004년 CEDAW 보고서는 카자흐스탄의 여성 관련 이슈를 정책화하고 성평등을 이루는데 장애를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⁶⁾.

- 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
- 여성의 의사결정 차원에 대표성이 낮다. 여성은 고위직(chief executive officers)의 8%에 불과하다. 아직 여성 oblast나 rayon akims가 없다.
- 사회의식을 바꾸려는 교육이 부적절하다
-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낮다
- 여성의 건강 지표가 낮다
-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사회의 성평등의식이 낮은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젠더문화는 남녀의 역할분담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은 가정, 가사, 육아라는 사적 영역의 담당자로서 인식하는 것이 결국 여성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인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제기구나 카자흐스탄의 여성단체들은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정책 담당자, 공무원 및 각계 대표들의 이데올로기적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여성은 어머니》, 《여성은 가정의 보호자》로 인식하는 등 사회에서의 여성이 역할이 집안일이나 출산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Tulegeneva, 2008). 이러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분명히 카자흐스탄의 젠더관계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임에 분명하다. Sancak와 Finke는 카자흐 여성은 직업을 가지더라도 남편보다 가사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Sancak and Finke, 165)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위계는 공적인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가정에서의 역할분담은 여성의 성격이나 경제적 기여에 따라 개인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ibid.)는 것이다.

6)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05/280/45/PDF/N0528045.pdf?OpenElement>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의 남녀평등 이슈는 단순히 여성의 경제 참여율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2003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90%로서 남성의 93%에 비해 그다지 낮은 편이 아니고 우리나라 여성의 53.9%(15-64세, 2007년)나 OECD 평균 60.1%에 비해서도 대단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남녀평등의 시각에서보다는 국가경제적 필요에서 권장하였던 사회주의 경제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증거는 1991년 독립 이후 전통적인 젠더관이 등장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줄어들었던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실상 가정에서의 가사분담이 공평히 이루어지지 않고 일터에서도 남녀평등의식이 자리 잡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만 강조하는 것은 여성에게 이중부담을 지울 위험성이 크다. 이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60.8%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가정에서의 역할분담의 확대 그리고 여성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개발과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여성에게 공평한 업무부여와 승진기회의 부여와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건강문제는 카자흐스탄의 중요한 여성이슈 중의 하나이다. 우선 여성의 생식건강은 생태환경의 악화와 피임 방법으로서 낙태의 남용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수준은 미미하다(연간 국민 1인당 2센트, 1m²당 1달러). 핵실험으로 인한 오염, 우라늄 및 석유 채굴, 채광 및 화학산업 업체들의 환경오염, 도시 대기 중 오염물질 다량 함유와 과도한 먼지발생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생식건강 수준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 아랄지역인데 염분오염으로 인해 이 지역 가임여성의 90%가 만성 빈혈로 고통 받고 있다. 또 많은 여성들이 의료체계를 잘 알지 못하고 낙태가 쉽다고 여겨 생식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농촌의 빈곤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무작정 대도시로 와서 쉽게 매춘에 빠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Tulegenev, 2008). 사업장에서 모성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노동법상 여성을 야간근무에도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출산휴가는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직장에서의 모성보호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일부다처제는 이슬람 전통과 관련되는 것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용인되고 있다. 일부다처제는 아랄만(중국계 카자흐인)이나 독실한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서 살다가 역사적 고향으로 돌아온 망명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유행처럼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들도 중혼은 카자흐인들이 유목민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제도권 국가들에서는 일부다처제에 제약이 없으며 이로 인해 그 지역에 거주했던 카자흐인들도 이 제도를 따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소위 수숙혼(嫂叔婚)이라 불리는 제도는 전통 카자흐스탄 관습에 따라 시숙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할 권리가 있거나 결혼해야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망명한 카자흐인들 중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갖게 된 남성들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관습이 많이 남아있는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에 살고 있다.

라. 협력사업

1) 현재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사업 현황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의회, 정당, 시민사회와 언론을 형식적으로나마 인정하고 개방적 시장경제의 발전전략을 택하고 있어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한 편이다. 1990년대 초기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고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하고 정책협의회, 무역공동위, 자원공동위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교역량은 1992년 이래 55배 증가하여 2006년에는 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기계, 가전, 엘리베이터 등이며 수입품은 합금철, 강판, 금, 은, 백금, 아연, 우라늄 등이다. 또한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는 2006년 말까지 4억 2,660만 달러이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전 세계 투자대상국 중 투자액이 25위에 해당하는 국가이다(외교통상부, 2007).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은 주로 경제영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차차 문화,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연, 예술, 한국어교육, 방송프로그램,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기술인력 파견과 카자흐스탄 한국 유학생의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하여 <올인>, <완전한 사랑> 등 드라마를 CIS에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을 위한 세종학당 등을 설립하고 있고 체육교류협정 및 태권도 시범단 파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인 교류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

여성문제와 관련한 협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나 시민사회에서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적 협조체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여성정책이 상대적으로 발전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주변 국가에 전파함으로써 대상국가의 여성정책 발전을 도움과 동시에 우리의 정책에 정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어 상호 도움이 되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했듯이 카자흐스탄에는 여러 가지의 여성이슈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문제에 대해 UNDP 같은 국제기구나 국가기구들이 이미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협력사업의 검토를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여성 관련 협력사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국제기구 및 선진국가와 카자흐스탄의 여성관련 협력사업 현황

CEDAW, UNDP, EU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여성발전을 위해 수년간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다. <표 3-5>와 <표 3-6>에서 보는 것처럼, 국제기구와 카자흐스탄의 협력사업은 여성의 경제 자립, 정치·사회적 의사결정직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 성평등을 위한 남녀 협력 증진, 성평등 기반 확립을 위한 연구, 통계 수행, 미디어의 의식 동원기능 제고, 그리고 AIDS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수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아직 성평등이 국가적 목표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인다.

반면 전반적인 여성들의 건강이 환경오염이나 잘못된 피임방법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건강 관련 사업은 아직 시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여성안전을 증진시키는 사업도 새로운 사업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성평등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다양한 접근이 장기적으로는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5〉 카자흐스탄과 UNDP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번호	사업명	사업 집행 기간	자금지원	분야	협력기관	총 예산	내용
1	Expanded micro-credit support for women in Semipalatinsk region	2002년 2월 - 2005년 6월	UNDP, Japan Women in Development Trust Fund contribution	여성 경제력	UNDP, Japan Women in Development Trust Fund contribution	\$438,212	여성기업가를 위한 소액대출 및 재정적 지원 촉진, 여성기업가에게 관련 교육 및 지원 제공
2	Status and economic advancement of women in Kazakhstan	1995년 12월 - 2002년 3월		여성 경제력	UNDP	\$575,169	빈곤여성의 경제적 참여 기회 제공, 경제 및 정치적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양성평등의 기업 및 정부아젠다
3	Support to the Programme on counteracting the AIDS epidemic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01-2005	2003년 4월 - 2006년 12월	UNDP, UNESCO, UNAIDS	여성 건강	UNDP, UNESCO, UNAIDS	\$447,017	AIDS 관련 프로그램 집행 지원,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혁 및 협조 메커니즘 제공
4	Tomiris: Gender, leadership and networking across borders	2004년 5월 - 2007년 6월	UNDP, SIDA, TTF	여성 개발	UNDP, SIDA, TTF, The National Commission on Family and Women's Affair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K	\$311,471	젠더이슈 관련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협력을 강조, 정치영역에서 여성 영향력 신장을 위한 전략 제공, 여성의 기업활동을 위한 교육 제공, 저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젠더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교육

52 중앙아시아와 여성정책 협력사업을 위한 탐색연구

번호	사업명	사업 집행 기간	자금지원	분야	협력기관	총 예산	내용
5	Building capacity of women's organizations to implement National Action Plan on improving the status of women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00년 12월 - 2004년 12월		여성인 권신장			National Commission on Family and Women's Affairs의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서 여성관련 분야에 대한 관리 및 협조역량을 배양함, 젠더관련 입법 추진, 성평등 및 역할변화에 대한 통계와 연구 추진, 성평등을 위한 조직과 재정지원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
6	Gender mainstreaming in decision making in Kyzyl-Orda	2002년 1월 - 2004년 12월	UNDP, TTF, SIDA	여성인 권신장	UNDP, TTF, SIDA, National Commission on Family and Women's Affairs	\$103,044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출판, 통계 연구, 여성의 정치적-행정적 참여를 증진.
7	Gender in Development Bureau	1997년 5월 - 2000년 5월	UNDP, TTF, SIDA, Swedish NGO, ODIHR, Soros	여성인 권신장	UNDP, TTF, SIDA, Swedish NGO, ODIHR, Soros	\$196,390	여성활동 증진을 위한 협조체제 형성, 정책결정의 정치적-전문적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정책결정자로서 여성리더 및 기획가를 양성하여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및 이슈를 제시하도록 함.

〈표 3-6〉 카자흐스탄과 EU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번호	사업명	사업 승인시기	지원 형태	분야	수혜기관	총예산
1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Infringement Rights and Interests of Aged Citizens and Women, Legal assistance Provided to Socially	2005년 11월	보조금	여성, 인권	LEGAL ASSISTANCE PROVIDED TO VETERANS AND PENSIONERS	33,543 €
2	Strengthening Civil Society through Gender Policy Integration in Rural Cross-border and Conflict Prone Areas.	2005년 12월	보조금	여성, 인권	"BEREKE" PUBLIC ASSOCIATION	61,229 €
3	Support of activity of human rights defenders, protecting the rights of vulnerable layers of the population	2006년 2월	보조금	여성, 인권	ASIAN SOCIETY FOR RIGHTS OF DISABLED PERSONS ZHAN PUBLIC ASSOCIATION	25,326 €
4	Establishment of the network program on teaching women's rights "Your rights make your wealthy"	2006년 3월	보조금	여성, 인권	PUBLIC ASSOCIATION "STREET LAW" - KAZAKHSTAN	42,050 €
5	Women and Human Rights	2006년 5월	보조금	여성, 인권	PUBLIC ASSOCIATION "SARYARKA WOMEN"	26,047 €
6	Legal Education for Women and Fostering a Culture of Human Rights in NGOs and National Agencies of Kazakhstan	2006년 5월	보조금	여성, 인권	PUBLIC ASSOCIATION WOMEN RIGHTS CENTER	41,760 €
7	Women in prison	2006년 4월	보조금	여성, 인권	CRISIS CENTER "ZABOTA"	24,584 €

앞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의 협력사업을 제안한다.

3)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사업 제안

가) 여성의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적자원 교환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앞의 현황에서 보듯이 카자흐스탄 여성들의 생식건강은 여러 면에서 위협 받고 있다. 가부장적인 성의식이 아직 팽배한 가운데 여성들은 피임방법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낙태를 피임의 한 방법으로 선호하고 있다. 아랄해 주변의 염분오염과 석유산업으로 인한 국토의 화학오염은 여성들에게 빈혈 등의 만성적 질환을 일으키고 러시아의 오랜 핵실험으로 인해 유전적 질환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당연히 해결방안도 모색되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 여성들의 생식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성교육과 임신 중 검진율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유전적 질환에 대한 실태파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여성의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 ①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수
- ② 임신 중 검진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 ③ 여성의 유전적 질환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 및 설비 제공
- ④ 환경오염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기회요인과 장애요인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경제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국민건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해서는 의료 인프라와 홍보체계가 모두 부족하다. 이러한 실태 때문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의료 협력사업을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카자흐스탄이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성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특별히 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여성의 순결이 아직 중요시되고 사적인 문제로만 간주되는 사회에서 성교육은 공론화하기에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다.

(3) 사업의 기대효과

협력사업은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다. 카자흐스탄에 여성건강과 관련한 우리의 프로그램/정책/시설 등을 전수함으로써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건강을 이슈화함으로써 카자흐스탄 여성의 인권에 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량강화프로그램 및 교육실시

(1) 사업목적 및 내용

사회주의 붕괴이후 여성들의 정치참여와 대표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의 고려와 실천도 젠더이슈를 부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성평등이 실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문제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이 국회의원, 고위관리직, 기업가, 전문경영인 등으로 활동하는 것을 돕기 위한 리더십 훈련 등과 같은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협력사업으로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기회요인과 장애요인

카자흐스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해 국가행동계획에 여성할당제 등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들의 정치·사회 참여가 낮고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여성각료, 여성단체, 여성학자들이

연대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3) 사업의 기대효과

리더십 훈련과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능력 배양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지도자로서의 역할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협력사업과 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 여성 NGO 네트워킹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카자흐스탄에는 많은 국제, 국내 여성단체가 존재한다. 이러한 NGO 단체들은 정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여성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념적으로 성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에서도 여성단체의 역할이 컸으며 지금까지 여성운동을 해 오면서 적지 않은 업적과 방법론을 축적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온 한국 여성단체들은 아시아에서의 여성운동을 주도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여성단체와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한·카자흐스탄의 협력관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용으로는

- ① 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등) 프로그램 교환 및 공동개발
- ② 한·카자흐스탄 미디어 모니터링 및 비교
- ③ 성평등의식 제고 캠페인

(2) 기회요인 및 장애요인

전술했듯이 카자흐스탄에는 150여개의 여성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단체가 협력파트너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에는 이미 유럽 쪽의 여성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국내 여성단체들과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해야 할 문제는 협력사업의 사회적 파장을 키울 수 있기 위해 영향력 있는 단체를 접촉해야 할 것이고 가능하면 연합되어 있는 일련의 단체들과 동시에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사업의 기대효과

NGO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협력보다 유연하면서도 사회적 파장을 크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주장을 펼 수 있다. 풀뿌리적 접근으로 사회의식에 대한 자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3. 우즈베키스탄

가. 개요

1991년 12월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이후 12개 구소련 공화국들이 독립국가연합(CIS)을 설립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이 12개 공화국 중 하나로, 8월 31일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카니스탄의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실크로드의 중심인 유라시아(Eurasia)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동서양의 주요 관문이 되어 왔다.

영토의 면적은 44만 7,400km² 영토의 2/3가 평원이고, 1/3은 산악과 언덕이다. 전체 인구는 우즈베크인 71%, 러시아인 6.3%, 타지크인 4.7%, 카자흐인 3.9%, 타타르인 2.4%, 고려인 0.8%, 유대인 0.3%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는 이슬람의 수니파가 88%를 차지하고, 그리스정교 9%, 기타 3%이다. 언어는 우즈베크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러시아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헌법상 민주주의 국가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으나 행정부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거의 권력이 없다(위키페디아 백과사전, 2008). 1995년 국민투표를 통해 이스롬 카리모브(Islom Karimov)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2002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이스롬 카리모브가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으로 장기집권하고 있다.

1) 인구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2004년 현재 26,209,000명이며, 여성은 인구의 절반인 50%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의 3/5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2/5는 타쉬켄트, 사마라칸드, 나만간, 안디잔, 부크하라, 페르가나, 코칸드와 같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의 기대수명은 67세이며, 여성은 70세, 남성은 64세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7세가 높다.

〈표 3-7〉 인구 - 우즈베키스탄

인구	1980	1990	2000	2004
전체(1000 명)	15,952	20,515	24,724	26,209
여성(전체의 %)	51	51	50	50
0-14세(전체의 %)	41	41	37	34
15-64세(전체의 %)	54	55	58	61
65세이상(전체의 %)	5.0	4.0	4.0	5.0
출산율 (여성당)	4.8	4.1	2.6	2.4
유아사망율(1000건의 출산당)	73	65	59	57
평균기대수명(년)	67	69	68	67
남성의 기대수명(년)	64	66	65	64
여성의 기대수명(년)	71	72	71	70

자료: World Bank, Genderstats

2) 경제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률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전까지만 해도 실질 GDP 증가율이 4%대에 머물렀었으나, 2004년부터 7%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1인당 GDP는 2,300달러로 아직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World Bank, 2008). 이 국가는 1차 상품을 수출하여 획득한 외화를 공업을 육성하는 수입대체산업정책에 사용하고 있다(이재영 외, 2005). 농업은 이 나라의 경제 핵심이며, 특히 면화 생산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농업은 2005년 현재 GDP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고용의 30%를 흡수하고 있다. 소비에트 당시에 우즈베키스탄은 면화 생산의 중심지로 손꼽혔으며, 아직도 세계 면화 생산에 있어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8〉 주요경제지표 - 우즈베키스탄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실질GDP증가율	%	4.3	4.2	4.5	7.7	7.1
산업생산증가율	%	8.1	8.5	6.2	9.4	7.4
소비자물가상승률	%	27.4	27.6	10.3	1.6	6.4
총투자증가율	%	..	51.7	29.4	42.6	20.1
수출	십억달러	3.2	3.0	3.7	4.9	5.4
수입	십억달러	3.1	2.7	3.0	3.8	4.1
재정수지	%/GDP	-1.0	-0.7	-0.4	-0.4	-0.3
경상수지	%/GDP	-1.0	1.2	8.7	9.7	9.8
외환보유액	십억달러	1.2	1.2	1.7	2.1	..
환율(기간평균)	Sum/달러	422.9	769	971.3	1019.2	1180

자료: 이재영 외(2007), 75쪽에서 재인용

우즈베키스탄은 면화만이 아니라 금, 천연가스, 석유, 우라늄, 구리 등의 천연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금은 면화 다음으로 이 나라의 제2수출품이다. 금은 최근 국제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여서 주요 외화획득원이 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은 2004년 현재 44.1%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에트시기에 사회주의 사상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의 참여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제도적으로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관대할 정도의 아동양육을 위한 휴가 등으로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았다. 그러나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경쟁력이 약한 여성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저임금의 임시직에 종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등록된 실업자 중 여성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다(JICA, 2005:31).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취약한 여성들의 위치로 인해 빈곤의 여성화가 우려되고 있다. 여성들은 여러 형태로 노동시장에 취업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의 분야로 분리되는 산업은 건강, 교육, 문화와 예술이다. 건강 분야에서는 전체 취업자의 72.5%가 여성으로, 이 분야의 여성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이 교육 분야로 여성이 전체의 63.5%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교육분야(63.6%), 그 다음이 문화와 예술(52.1%) 분야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 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산업은 건설업 87.2%, 운수업 81.1%, 임업 72.2% 이다.

〈표 3-9〉 전체고용인구의 여성 비율 - 우즈베키스탄

(단위: %)

	2001	2002	2003	2004
경제 고용 인구(Employed in economy- total) (including in the industry :)	43.8	43.7	44.1	44.1
산업(Industry)	30.6	30.1	29.3	28.8
농업, 임업(Agriculture and forestry)	44.2	43.3	42.7	41.8
건설업(Construction)	12.7	12.8	12.8	12.8
교통, 통신업(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18.2	19.4	18.1	18.1
운수업(Trade and catering)	29.9	30.7	30.5	30.8
주택 및 지역서비스(Housing and communal services)	29.1	30.5	28.4	28.5
건강, 훈련, 사회보장 (health, physical training and social security)	71.1	71	72.5	72.5
교육(Education)	63.6	62	63.5	63.6
문화·예술(Culture and arts)	52.4	50.2	51.8	52.1
과학(Science and science maintenance)	46.8	50.6	50.7	50.8
금융·보험 (Finance, credits, insurance)	48.5	49.8	49.2	49.2
기타(Others)	28.1	28	30.8	30.8

자료: JICA (2005), 32쪽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성별분리직종 현상은 남녀의 임금격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남성은 기계를 작동하거나 조작 또는 수리하는 엔지니어링, 금속산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 이에 반해 같은 산업분야에서도 여성들은 청소, 라벨붙이기, 포장과 같은 단순 작업이나 부품조립과 같은 일을 한다. 여성과 남성간 임금격차가 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여성에게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JICA, 2005: 3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경제, 문화 등과 맞물려 있는 젠더이슈 속에서도 어려운 전환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여성들의 움직임과 정부의 지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성들의 창업이다.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64,000 여명의 기업인 중 여성이 15,000명이고, 이 여성 기업인들 중 1,790명이 타시켄트에 있으며, 944명은 농장을 경영하고, 나머지는 소규모 벤처기업의 사장이다(Alimova and Azimova, 1999: 298). 대통령령에 따라 기업과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구성은 여성 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한 것이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사회에서 여성 기업인은 대중적인 성격보다는 엘리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Alimova and Azimova, 1999). 게다가 지방에서는 아직도 여성 기업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지방행정당국과 부딪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와 내각은 “여성의 소규모 창업지원과 여성 기업인 육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여성의 기업 활동을 돕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비공식 부문의 서비스에 종사하여 왔다. 카페트 짜기, 방직, 수공예품 생산 등으로 얻은 여성들의 소득은 전체 가구소득 증대에 지대한 역할을 하여 왔다. 최근에는 이것이 소규모 사업이나 여성들의 자영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제공이 필수적이다. 소비에트 시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시장경제로 전환하고부터는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감축되었다. 그 결과 보육시설에 등록된 아동수는 2001년 642,500명에서 575,100

명으로 줄었고, 보육시설도 같은 시기 6,865개소에서 6,603개소로 감소하였다 (JICA, 2005).

3) 교육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공한다. 우즈베키스탄의 헌법 제 41조에 따르면 교육제도는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12년 간의 의무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03년 현재 6세~23세의 연령집단에서 학교에 입학생수는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교육기간은 11.6년이고, 여성은 11.3년, 남성은 11.8년으로 불과 0.5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990년 기준으로 15-25세의 연령집단에서 여성의 99.7%, 남성의 99.6%가 읽고 쓸 수 있으며, 15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는 여성의 97.9%, 남성의 99.5%가 읽고 쓸 수 있다(World Bank, 2008). 우즈베키스탄에서는 6-7세의 어린이는 유치원교육(preschool education)을 받는다. 8세부터 19세까지는 의무교육인데, 이는 2단계로 나누어져 4년제의 초등학교 교육(primary school)과 5년제의 중학교교육(general secondary school)으로 구성된다. 그 이후는 특수직업 교육(special vocational education) 단계인 3년제 아카데미 리세움(Academic Lyceum)과 3년제 직업학교 (professional college)에 등록할 수 있다.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은 최소 3년제이며 의학과 같은 고등직업교육은 최장 12년제로 이루어져있다.

〈표 3-10〉 교육수준 - 우즈베키스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6-23세의 취학율(%) (Enrollment of 6-23 years old)	76.0	76.0	76.0	76.0	76.0	76.0	76.7	77.3	77.3
평균 교육기간(년) (Average years of schooling)	11.4	11.4	11.4	11.4	11.4	11.4	11.5	11.6	11.6
여성의 평균교육기간 (Women)	11.0	11.0	11.0	11.0	11.0	11.1	11.2	11.3	11.3
남성의 평균교육기간 (Men)	11.9	12.0	12.1	12.2	12.2	11.6	11.7	11.8	11.8
교육예산/GDP대비(State expenditures on education(as % of GDP)	7.4	7.7	7.3	7.4	7.5	6.7	6.8	6.7	6.4
교육 예산/전체 예산 대비 (State expenditures on education (as of total state)	22.8	21.1	22.6	22.3	24.2	23.2	25.5	26.0	26.2

자료: JICA (2005), 11쪽에서 재인용

Age	Name of Scholastic institution	Level of Education
31	Doctoral Study (at least 3 years)	Post-graduate education
30		
29		
28	Post-graduate study (at least 3 years)	Higher Education
27		
26		
25	Professional Higher Education program (medicine up 12 years)	Higher Education
24		
23		
22		
21	Academic Lyceum (3 years)	Secondary special Vocational Education
20		
19		
18	General Secondday School (5 years)	General Secondday Education
17		
16		
15	Primary school (4years)	Pre-school education
14		
13		
12		
11	II-stage	Pre-school education
10		
9		
8	I-stage	Pre-school education
7		
6		
5		
4		
3		
2		

Compulsoty education

Non-compulsory education

source : "the Education System of Uzbekistan(reform in figures and facts)" ADBIUNESCO
TA#2947-UZB Monitering of Implementation of Education Reform's project

자료: JICA (2005), 21쪽에서 재인용

(그림 3-1) 국가공교육 시스템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은 여성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통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정형화하여 여성의 공적영역의 활동을 제한하고,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이 사회에서는 여성은 혼전에는 부모에게 종속되고, 혼인 후에는 남편에게 종속되기 때문에 자신의 교육에 대한 선택은 부모나 남편에 의해 좌우된다. 남녀역할의 정형화로 인해 직업과 연결되는 전공분야 선택에서도 공공보건과 차후에 교사가 될 수 있는 교육 분야에 여성들이 집중되고 있다.

우즈베크 여성들은 20세 정도에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출산이 이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즉 중고등학교(general secondary education)까지 의무교육으로 인해 남녀의 교육기간에 있어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이후로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의 출현은 첫째, 소련 붕괴 이후 다시 살아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와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17세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고등교육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이 점차 감소하고,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교육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슬람 전통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점차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건강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지난 10여년은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여 년 간 보건 분야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약품과 의료기관 유지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은 줄었다(World Bank, 2008).

최근 몇 년 사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소위 사회적 질병으로 불리는 결핵, 성병, 심장혈관질환, 종양 등이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그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JICA 2005: 26). 여성의 사회적 질병의 증가는 단순히 공중보건의 취약해서 만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도 영향

을 받기 때문이다. 즉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 영양부족, 비타민부족, 빈번한 출산 등으로 건강의 균형을 맞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질병 가운데 우즈베크 여성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은 빈혈(anemia)이다.

〈표 3-11〉 모성건강 - 우즈베키스탄

	2001	2002	2003	2004
빈혈로 고통 받는 임산부 수(명) (Amount of pregnant women suffer from anemia)	64.7	68.2	64.8	62.4
모성사망률 /십만건의 출산 당(명) (Mother death on 100000 birth)	33.5	26.9	29.9	29.4
낙태 수 / 백건의 출산 당(명) (Number of abortion on 100 birth)	11.7	11.1	10.5	9.7

자료: JICA (2005), p. 10, 재인용.

빈혈은 빈번한 출산, 영양부족, 나쁜 수질에 의해 발생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여성의 약 60%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빈곤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 빈혈이 자주 발생한다. 빈곤 외에 또 다른 이유는 빈번한 출산인데, 우즈베크 여성들은 21세 정도에 첫 자녀를 출산하여 평균 2.5년 마다 자녀를 계속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우즈베크의 출산율은 2004년 2.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1990년도 4.1에 비해 하면 현격하게 감소한 것이다. 2004년 현재 영아사망율도 1,000명당 57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재생산은 건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낙태는 피임의 한 형태이다. 여성들이 피임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성관계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성병과 HIV/AIDS에 노출되기 쉽다.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도 점차 감소하고는 있다. 그러나 가임기의 여성들이 생식기 관련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산율이 높고 임신 중 질병을 앓기도 한다

(JICA 2005:28). 가임기 여성들이 이 같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은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즈베크 정부는 최근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여성의 재생산과 관련하여 건강문제와 가족계획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불결한 환경과 수질 또한 여성의 건강을 나쁘게 하고,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JICA, 2005: 27). 우즈베키스탄에서 바이러스성 간염과 같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은 수질이 나쁘고, 더운 물이 부족하고, 오수처리시설이 부족해서 발생한다. 농촌인구의 약 40%만이 중앙의 수도 공급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약 2%만이 중앙의 오수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JICA, 2005: 27). 이는 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 절반이 비위생적인 우물을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여성현황 및 성평등 관련 제도

1) 여성 대표성

소련의 붕괴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약화되었다. 소비에트 시기에는 여성을 위한 할당제의 실시로 인해 1985년 의회에서 여성비율은 35%에 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 9%, 2002년 9.9%로 여성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이렇게 감소하자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에 할당제의 재도입이 포함되기도 하였다(JICA, 2005: 36).

우즈베키스탄은 2002년 개헌국민투표에서 2004년 12월 총선 이후에는 의회를 양원제로 바꾸기로 하였다(이재영외, 2007). 그 결과 올리 마즐리스(Oliy Majlis: 최고의회)라 불리는 의회는 5년제의 상·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12월 총선 결과, 120석의 하원에서 21명(17.5%)의 여성의원 선출되었으며, 100석의 상원에서는 15명(15.0%)의 여성의원 선출되어 의회에서 여성은 전체의 16.3%를 차지하게 되었다(UNDP 2007).

〈표 3-12〉 1985-2004 여성국회의원 수 - 우즈베키스탄

연도 (Year)	국회 의원 수 (Members of Parliament)	여성비율 (Share of Woman)	
		인원 수(명)	%
1985	510	183	36
1990	500	47	9
1998	250	19	8
2002	250	24	9.9
2004	220	36	16.3

자료: JICA (2005), 재인용; UNDP(2007).

2) 여성관련 법 및 정책

가) 양성평등 관련

2004년 6월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우즈베크 여성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을 채택하였고 1995년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CEDAW)을 비준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고자 하였다(Uzbekistan 2004). 또한 이 법령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가 설립되었다.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주요 동력체인(JICA 2005: 15) 이 상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Uzbekistan 2004).

- 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상황을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것.
- ② 여성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정교화하여 여성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여성기업인의 성장을 도모할 것.
- ③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실행할 것.
- ④ 여성의 정치, 사회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국내외 NGO와 비영리부문의 여성의 정치, 사회 활동을 도모할 것.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위원회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크 여성들은 공사영역에서 아직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입안자와 일반인들에 대한 성 인지적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성별분리된 통계자료의 생산과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도입도 젠더관련 과제들의 수행과 정책제안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9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JICA, 2005). 9개의 우선순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성의 건강

- 모든 연령대 여성의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둘 것
- 유방암, HIV/AIDS, 심장병, 간염과 같은 전염성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설계
- 보건부, 교육부의 협력 하에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기초의학지식을 제공할 것
- 보건부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와의 협력 하에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실행할 것
- 임신부와 출산한 여성에게 국가에서 보장하는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
-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은 식료품 생산을 조직화할 것
- 여성과 소년에게 알콜이나 약물 중독, 흡연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② 여성의 교육

- 교육부는 여성과 소녀의 교육 정도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할 것
- 관련 기관과 NGO는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것

③ 여성과 생태환경

- 아랄해(Aral Sea)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조치를 실행 하고, 아랄해 여성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 특수한 직업과 연령에 있는 이들을(여성 포함)을 위한 영양공급을 위한 기본 규칙을 정할 것
- 여성과 환경 이슈 관련하여 환경 컨퍼런스, 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직 할 것

④ 여성의 교육과 고용

-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
- 성 인지적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사회적·법적 토대를 개선할 것

⑤ 여성의 권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기회

- 정부부처와 관련기관들은 정부서비스법(Government Service Act)과 규칙을 개정하여 양성평등을 증진
- 국제법에 준하여 여성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 여성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이 행정기관 안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프로그램 시행
- 정부, NGO 등의 협력으로 여성들의 법의식 고양
- 국회와 정부기관에 여성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할당제 도입

⑥ 소녀의 권리

- 민족과 문화적 가치를 고취하기 위해 소녀의 양육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

⑦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방지

-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 혼인과 이혼에 있어서 여성의 권리 강화

⑧ 대중매체에서의 여성

- 여성이슈를 다루는 신문,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증가
- 대중매체에서 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토론 프로그램을 증가
- 대중매체를 통해 여성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법적 지식 전파
- 성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여성들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함
- 우즈베크 여성의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과학적 출판물 생산

⑨ 여성 NGO

-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지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 공유
- 경제 및 통계부의 협력 하에 성 인지적으로 통계를 수집하고, 성별분리 통계 생산
- 여성 NGO 활동을 활성화
- 우즈베키스탄 여성에 관한 연보 생산
- 국제여성운동과 연계할 수 있는 NGO 설립 도모

나) 여성인권 관련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가정 이 가정폭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우즈베크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나이 많은 어른과 남성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비인간적 대우를 참고 견딘다(JICA 2005:43).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지 않은 경향이 있는 듯하다.

한편, 전지구화로 인신매매 등의 불법이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역시 국경을 횡단하는 이주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합법적 이주와 함께 불법 이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자들은 대부분 구소련연방국 출신이지만, 터키,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이주해 오기도

한다. 이들은 중개업소나 개인, 여행업소 등에 의해 모집되어 웨이트리스, 댄서, 유모 등으로 고용된다. 이들의 대부분이 여권을 탈취당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현실이며 고용주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착취를 당하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비인간적인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의한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Uzbekistan, 2005).

다) 가족 관련

우즈베키스탄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소비에트 시절을 겪었지만, 전통적으로 이슬람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소비에트체제의 붕괴 이후 변화한 여성의 이미지에도 이슬람의 종교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족법은 결혼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혼인은 쌍방 간에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제 결혼은 금하고 있다(Uzbekistan, 2005). 법적 혼인 연령은 남성이 18세, 여성이 17세이지만, 혼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연령이 1세 정도 낮추어 질 수 있다(JICA, 2005: 23; Uzbekistan, 2005). 하지만, 성별혼인연령의 차이는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교육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즉, 이미 교육에 드는 사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여성이 대학교육을 받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혼인연령을 남성보다 낮춘 것은 과거 전통의 부활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JICA, 2005: 23).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다처제는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일부다처를 할 경우는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신부의 혼인지참금(dowry)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신부의 혼인지참금은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만 남아 있다(Uzbekistan, 2005; 김대성, 2001: 78).

3) 여성관련 기구 및 조직

가) 국가기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

다. 1995년 3월 2일 발효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에 따라 가족, 모성, 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를 위해 부수상직(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Social Protection in the Family, Mother and Children)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내각에도 가족, 모성,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비서관직(Secretariat for the Social Protection in the Family, Mother and Children)이 신설되었고, 지방행정부 안에서 유사한 조직이 생성되었다 (Uzbekistan, 2005). 그리고 1995년 회의에 옴부즈만(Ombudsman)이 만들어져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옴부즈만은 1997년부터 시행되어 온 인권위원회(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ct)에 따라 활동해 오고 있다. 2004년 인권법을 개정하여 옴부즈만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나) 여성단체

여성 NGO의 설립과 급성장은 우즈베키스탄의 여성운동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여성위원회는 여성 NGO와 활발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여성 NGO와 기타 국가기구와 협력하여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여성 NGO는 여성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NGO와의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0개 이상의 여성 NGO가 힘을 모아 ‘메크하(Mekhr, Concern)’라 불리는 연맹을 창설하였다(Uzbekistan, 2005)⁷⁾.

다. 젠더이슈

이미 앞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현황과 관련하여 부분 부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것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의 붕괴이후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교가 국가의 정체성과 결부되어 새로이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지위도 과거 남녀평등을 사회이념으로 주장하던 사회주의 시대와 달리 이슬람교의 정체성에 맞추어 변화

7)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여성단체 명과 연락처는 부록을 참조할 것.

하고 있다.

사회주의에서 종교는 사회적 압박과 경제적 착취의 산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교의 세속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김대성, 2001). 이 과정에서 1920년대 무슬림 여성이 대규모로 베일을 벗기도 하였다. 소련치하에서 사회주의의 남녀평등주의에 따라 여성들도 사적영역에서 벗어나 공적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공적영역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성들의 부담만 증가하게 되었고, 남녀 간의 가부장적 관계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노동자로서, 가족 내에서 담당해야 할 의무로 이중의 짐을 떠안게 되었다.

소련의 붕괴이후 러시아의 문화적 잔재를 떨쳐버리고 우즈베크 민족의 부흥을 위해 전통과 정기를 되찾기 시작하였다(Saktanber and Özatas-Baykal, 1999). 우즈베크 전통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는 여성이 중요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한 예로, 출산율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인구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질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Saktanber and Özatas-Baykal, 1999). 최근 우즈베크 여성은 전통의 수호자이며, 다음 세대로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는 전통의 전달자로 인식이 되고 있다(Alimova and Azimova, 2007).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사회주의 하의 '여성-노동자-어머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슬람 전통과 문화를 복구하면서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류학자인 Sancak와 Finke(2007)는 우즈베키스탄의 부크하라(Bukhara) 지역의 농촌마을 귀리스톤(Güliston)에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젠더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즈베크 사회에서는 전통적 성별분업이 뚜렷하여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아내와 자녀에게 가부장적 권위를 행사하며, 공적영역에서 가족을 대표하는 반면 여성은 사적영역인 가족 안에서 집안 살림과 돌봄 노동을 주로 담당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로 인해 남성이 빨래 등 집안일을 거드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 사회에서는 연령 역시 젠더 못지않게 위계적인 가족구조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다. 여성은 남성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지만,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아를 출산할수록 가족 내 영향력이 증가한다(Sancak and Finke, 2007: 171). 남아를 출산할수록 여성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아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3/5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데, 집단농장과 국가 소유의 농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서 농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류는 국가통제를 받고 있다. 이런 농장에서 일하는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여성의 소득은 부차적인 경우가 많다. 가족 안에서 가부장적인 구조가 맞물려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주로 남성에게 의해 통제되고 있다(Sancak and Finke, 2007).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 이슬람교가 종교적, 문화적으로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에게 종속적인 위치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고등교육을 받은 일부 여성들은 남성우월적인 이슬람 종교의 강화를 반기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김대성, 2007). 이러한 면에서 김대성(2007)은 우즈베크 여성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여성들은 사회주의이념과 이슬람 종교의 가치 속에서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젠더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 한 바처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고용이 감소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저렴한 보육시설이 감소하고 있다. 보육시설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면 사회주의 하에서 여성들이 공사영역에서 쫓겨나고 있던 이중적 부담이 그렇게 줄어들 것만은 아니다. 현재의 전환기 역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여성들이 공적·사적영역의 안팎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하에서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서 상하수도과 전기 사용에 큰 어려움 없이 세탁기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제

반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물이 세탁용으로 사용되기에는 너무 귀한 자원이 되고 있어서 세탁기 사용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Sancak and Finke 2007). 이런 인프라의 부족은 결국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여성들의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협력사업

1)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협력사업 현황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투자진출을 시작하면서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는 있으나, 이것이 주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2006년 현재 총 66건으로 424,777천불에 이르고 있으며, 제조업이 총 43건, 394,644천불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현지 진출기업으로는 LG전자, 삼성전자, (주)대우인터내셔널 등을 포함하여 약 40개사가 진출해 있다⁸⁾.

2) 국제기구 및 선진국가와 우즈베키스탄의 여성관련 협력사업 현황

세계은행(World Bank)은 우즈베키스탄이 1992년 세계은행에 가입한 이래로 농촌지역의 의료시설 개선을 돕고 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이후 재정 부족으로 인해 의료진의 월급만 간신히 지급되고, 의료시설을 유지하거나 의약품 조달을 위한 비용이 부족해지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9년 우즈베키스탄정부는 ‘가족의료개선 프로젝트(development of family medical practice project)’를 위해 세계은행에 차관을 신청하였다. 세계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의료기술을 향상시켜 의료진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의 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보건 분야의 재정을 개혁하도록 하고 있다(World Bank, 2008). 그리고 이와

8) 자세한 것은 김은성 (2007), ‘중앙아시아의 5개국의 경제동향 및 우리의 진출확대 방안’, 참조

더불어 세계은행은 부크하라와 사마라칸트와 같은 역사적 도시에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업에서 의료와 수자원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그 국가에서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해외투자 목적이 아니고 공적개발원조(ODA)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개발 할 때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착안하여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가치의 변화가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도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나라의 특수성에 맞게, 젠더이슈에 대한 접근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남녀평등의 이념을 직접적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건강관련 사업이나, 직업훈련, 창업교육과 같은 사업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UNDP에서는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이주여성 권리 강화, UNDP 직원의 젠더문제 수행능력개발, 여성위원회 자문 제공, 성평등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농촌여성의 경제능력 개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수행해왔다. UNDP의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나 개도국 전체에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물자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인력양성 등 성평등정책의 개발·확산을 위한 준비작업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3〉 우즈베키스탄과 UNDP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번호	사업명	사업 집행 기간	자금 지원	분야	협력기관	총 예산	내용
1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Capacity Development for Women's Empowerment in Uzbekistan	2007년 3월 - 2009년 8월	UNDP	여성 인권 신장	Women's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400,000	여성관련 법률 제정, 의회-사법기관-행정기관에서 여성의 권위 향상. 여성 NGO의 능력 강화, 경제분야에 여성참여 향상, 양성평등관련 통계연구의 지원,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워크숍, 복지분야에 젠더이슈 제공
2	Promotion of the rights of women migrant workers	2008년 1월 - 2009년 12월	UNDP	여성 인권 신장	Women's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220,000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력 신장, 여성인력 자금지원, 이주여성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인식 및 법률제정을 촉진, 이주여성노동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연구, 고용기회 제공
3	Assistance to the UN Theme Group on HIV/AIDS in its efforts to mobilize and support to the coordinated national response to HIV/AIDS	2005년 5월 - 2006년 8월	UNAIDS	여성 건강	다국적 참여	\$30,711	HIV/AIDS 예방 및 관련 정책 수립, HIV/AIDS의 영향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교육 증대
4	Capacity development of UNDP Uzbekistan staff to better address gender needs through their programming	2006년 9월 - 2007년 8월	UNDP	여성 인권 신장		\$50,000	성차별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자원에 대한 컨설팅,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Capacity Building of the Women's Committee	2005년 4월 - 2006년 12월	UNDP	여성 인권 신장	Women's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50,000	성평등 분석을 통해 여성위원회에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 지방정부 공모원 및 지역 리더들에게 여성 참여 및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캠페인 유도, 위원회 설립(본부 및 지부)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킹 제공, 양성평등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주최.

78 중앙아시아와 여성정책 협력사업을 위한 탐색연구

번호	사업명	사업 집행 기간	자금 지원	분야	협력기관	총 예산	내용
6	Preparatory Assistance: Gender and Development Project	2006년 3월 - 2006년 12월	UNDP	여성 인권 신장		\$50,000	성평등 교육 및 서비스 제공에 유능한 전문인을 양성, 성평등 연구 지원, 20개국의 저널리스트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방송 미디어에서 성평등 의식 확산
7	Promotion of the rights of women migrant workers	2007년 2월 - 2007년 12월	UNDP	여성 인권 신장	Women's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100,000	이주여성노동자의 권력 신장, 여성인력 자금지원, 이주여성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인식 및 법률제정을 촉진, 이주여성 노동자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연구, 고용기회 제공
8	Rural Women Empowerment in Central Asia	2008년 8월 - 2010년 12월	UNDP	여성 인권 신장		\$600,000	농촌지역 여성의 기업지원을 위한 비교분석, 조직 및 정책 능력개발에 직접적 관여,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농촌지역 여성의 경제적 참여 및 여성평등 지원, 농촌관련 여성기업 능력 확장

우즈베키스탄에 협력사업을 가장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은 일본이다. 일본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 의해 시행된다. 일본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건강, 교육 등 총 1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여성과 개발의 영역에서는 UNAIDS의 프로그램에 따라 HIV/AIDS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0년에 여성분야 지원을 위한 study group을 만들어서 여성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의 집행을 담당할 역량을 갖추어 왔다. 1996년에는 WID Study Group을 만들어 관련 분야의 연구와 JICA 협력사업의 젠더이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해 왔다. 이를 통해 JICA의 협력사업 전반에 성 주류화 관점이 도입되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Gender and Development 영역을 새롭게 개편하여 인권보호 및 젠더 영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투자를 하고 있다(일본 국제협력기구 홈페이지, 2008).

이러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준비와 노력으로, 일본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여성정책 협력사업의 형태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UNDP, WB, UNFPA, Eurasia Fund, OSCE 등의 국제기구의 사업에 자금지원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일본국제협력기구 홈페이지, 2008).

3)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사업 제안

가) 여성의 건강과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1) 사업목적 및 내용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빈번한 출산과 비위생적인 수질로 인해 여성들이 빈혈과 같은 질병을 많이 앓고 있다. 그리고 환경과 수질의 영향으로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낙태가 피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자건강은 중요한 젠더이슈 중의 하나로, 여성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다음 세대를 생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족의 재생산을 위해, 그리고 여성 자신을 위해 여성건강에 대한 고려가 국가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재생산과 관련된 여성건강 및 모자건강을 이슈로 한 ①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②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 감소를 위한 보건 및 위생 교육 실시, ③ 가족계획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의 협력사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기회요인과 장애요인

소련체제의 붕괴이후 우즈베키스탄은 국민보건 특히 여성의 건강 및 재생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되어 왔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의료보건 혜택으로부터 점차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이를 인식한 우즈베키 정부는 최근 여성의 재생산과 건강문제 및 가족계획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적 상황을 활용하여 여성건강 및 재생산문제를

협력사업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장애요인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재생산과 가족계획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슬람 전통의 복귀로 인해 여성이슈가 정책으로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건강과 모자건강 이슈를 남녀평등의 이념적 문제에 결부시키기보다는 보건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3) 사업의 기대효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협력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 보건기술과 역량을 우즈베키스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여성건강을 이슈화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권리신장과 남녀평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 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1) 사업목적 및 내용

12년 동안의 의무교육으로 인해 그 기간 동안의 여성과 남성이 교육 받는 연수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대학교육부터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진학율이 높다. 이는 앞서서도 논의하였지만 교육비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남성을 우선시 하는 전통 속에서 여성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 든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취약해지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질 것임을 의미한다.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쟁력이 남성보다 떨어져 여성의 실업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빈곤화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여성이 변화하는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사업내용으로는 ① 우즈베키스탄 여성취업관련 시장 및 직종

조사 ② 여성을 위한 직종개발 ③ 직업훈련 프로그램개발 등이 있겠다.

(2) 기회요인과 장애요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국가행동계획에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행동계획에 맞추어 여성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직업훈련관련 사업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요인으로는, 이슬람 전통의 복귀로 인해 가부장적인 사고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이 자칫 남녀의 직종분리를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사업의 기대효과

여성의 경제력 향상은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여성이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다소나마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은 한국과의 교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여성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1) 사업목적 및 내용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창업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창업활동을 하는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보인다. 이런 상황을 활용하여 여성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의 개발과 경영자로서의 기술과 능력을 훈련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협력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회요인과 장애요인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경제적 능력 확보는 여성들이 자주적이고 주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여성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여성들의 창업활동을 돕고자하기 때문에 여성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창업이 아직도 대중적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 엘리트 여성들이 하는 일로 여겨지고 있고, 지방에서는 여성기업인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의 기대효과

여성창업지원프로그램은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여성경영인들이 경영기술과 능력의 향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으킴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공적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은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여성기업인 교류 등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키르기즈스탄

가. 개요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 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중국의 위구르 자치구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국토의 80% 이상이 해발 1,500m 이상이며, 그 중 40% 이상이 300m 이상에 달하는 산악국으로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리운다. 소비에트연방

의 해체에 따라 1991년 8월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선언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의 안보를 위해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 이에 대외정책으로는 평화공존, 안보확립, 인접국 및 국제기구와의 우호관계 유지, 실크로드 외교를 통한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표방하고 있다.

80여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나, 소연방 해체이후 러시아, 독일, 우크라이나민족의 분국 귀환으로 현재에는 키르기스인(64.9%), 우즈베크인(13.8%), 러시아인(12.5%), 우크라이나인(1.5%)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고려인은 2만 여명(0.4%)이 거주하고 있다. 언어는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종교 분포는 이슬람교(75%), 러시아정교(20%), 기타(5%)이다.

1) 인구

키르기스 공화국(키르기스스탄)은 인구 536만명(2008)의 작은 산악국이다. 인구의 1/3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2/3는 농촌에 거주한다. 여성 인구는 전 인구의 51%에 달한다. 출산율은 2.84(1989)에서 2.64(1999)%, 2.40(2001)%, 2.67(2008)%로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였다.

기대수명은 여성은 70.4세(1995)에서 73.3세(2008), 남성은 61.4세(1995)에서 65.1세(2008)로 남성, 여성 모두 늘어났으나 남성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표 3-14〉 인구 - 키르기스스탄

총 인구수 (백만)	여성인구 (%)	도시인구 (%)	인구증가율 (%)	출산율 (%)	기대수명(세)	
					남자	여자
5.36('08)	51.0('08)	-	1.38('08)	2.67('08)	65.1('08)	73.3('08)
4.98('02)	50.6('02)	35.0 ('02)	1.3('89-99)	2.40('01)	65.0('03)	72.5('03)
4.95('01)	50.6('99)	35.3 ('99)	2.0('79-89)	2.64('99)	61.4('95)	70.4('95)
4.82('99)	51.2('89)	38.2 ('89)		2.84('89)	64.2('90)	72.6('90)

자료: JICA(2004), Kyrgyzstan: Country Gender Profile, p.4.

2) 경제

키르기즈스탄은 신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주도하였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 보다 앞서 가격자유화, 대외무역 자유화, 독자 통화도입 및 사유화를 추진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토지 사유화를 비준하였으며, WTO에 가입(1998.12.)하였다.

그러나 2006년 현재 1인당 GDP가 536달러에 불과한 빈국이다. 이는 국토의 90%가 산악지대이며, 경작 가능한 토지가 국토의 7%에 불과한 지리적 환경과 빈약한 천연자원에 기인한다.

〈표 3-15〉 산업구조 - 키르기즈스탄

(단위: GDP 대비 %)

구분	1990년	200년	2006년
농업	33.6	36.7	33.0
공업 (제조업)	35.0 (27.1)	31.4 (19.5)	20.1 (12.9)
서비스업	31.4	31.9	46.9

자료: ADB(2007).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2006년 GDP의 33%, 전체 노동인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 및 제조업은 금 채굴업이 중심이다. 서비스산업은 2006년 현재 GDP의 46.9%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이다. 서비스산업은 관광산업, 요식업 및 유통업이 중심이며, 이시크-쿨(Issyk-Kul)호수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이 주요 관광자원이다.

독립 이후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1995년까지 농업생산이 급감하였으나, 최근 농지개혁으로 전체 농지의 76%가 사유화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천연자원은 빈약한 편이다. 주요 천연자원은 금, 수은, 석탄, 우라늄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금이며, 전체 산업 생산의 45%를 차지한다. 또한 수자원 보유량이 많아 중앙아시아 국가들 대상으로 전력을 수출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경제 상황은 구소련 붕괴 이후 서구형 시장경제를 도입하

며 발전을 시도하였으나, 아카예프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따른 대통령 친인척의 부정부패, 인구 5백만의 소규모 경제, 타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는 빈약한 지하자원 등으로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식 실업률은 최근 몇 년간 6%선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연간 50-60만 명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이재영, 2007: 54)

그러나 2003년 이후 전력생산시설 정비, 농업 진흥, 도로건설, IT산업 육성 등에 주력하면서 경제가 회복되어 약 7%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대중 소요사태(2005.3.), 금생산 감소 등으로 인하여 GDP성장률이 -0.6%(2005)로 떨어지며 경제 혼란을 겪었다. 무역 수지를 보면 적자 1억 8,470만\$(2004), 적자 3억 6,110만\$(2005)에 달하고 있다.

세계은행,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채권국은 파리클럽회의(2005.3.)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채무 124백만\$를 탕감하고 431백만\$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대외부채는 확대 되고 있으며, 정부는 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지위를 신청(2006.3.23.)하였다(김은성, 2007: 10).

〈표 3-16〉 주요경제지표 - 키르기스스탄

구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추정치)	2007 (추정치)
명목 GDP (백만 US\$)	1,921	2,216	2,441	2,646	2,898
GDP 성장률(%)	7.0	7.0	-0.6	5.0	5.5
1인당 GDP (US\$)	380	434	473	508	550
소비자물가지수	3.1	4.1	4.3	5.7	4.5
수출액(백만US\$)	745	942	942	1,072	1,195
수입액(백만US\$)	875	1,135	1,421	1,607	1,739
외환보유고 (백만US\$)	359	544	609	627	676

자료: 김은성(2007),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동향 및 우리의 진출확대방안, 외교통상부, 10쪽에서 재인용

여성의 노동 및 고용 현황(1999)을 보면, 교육, 건강-돌봄 및 사회 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인구의 3/4, 호텔과 식당 영업에서는 2/3, 재무 및 통상 분야의 1/2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남성은 산업(61%), 농업(56%), 운송업(80%) 과 공공 행정부문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어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뚜렷한 상황이다.

또한 경제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여성들이 경제 현장에서 '내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지난 5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 감소한 반면, 남성은 1.9% 감소하였다.

키르기즈스탄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의 67.6%(2001)이었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여성이 종사하는 분야는 남성이 점유하고 있는 분야보다 임금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낮은 임금과 일정치 않은 수입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비정규직으로라도 추가 수입원을 찾아 일하고 있는데, 12%의 여성은 이와 같이 절반만이 법적인 고용 상태에 있다.

또한 여성의 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도시 실업자의 53.3%를 차지한다. 실업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대부제가 실시되고 있다.

기업 소유자의 경우 여성은 18%, 여성 농장 소유자는 15% 뿐이다.

여성에게 지불되는 평균 연금은 남성의 86% 수준에 그치고 있다.

3) 교육

소비에트 체제 하의 교육제도는 교육 기회, 교육 수준에 있어서 남녀가 평등하였다. 교육에서의 평등한 권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이에 성별 교육 수준을 보면 눈에 띄는 차이는 없다. 도시지역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더 높다.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은 17.5%, 남성은 15.6%이며, 전문적인 중등 교육의 경우 각각 16.9%, 9.9%이다.

성인의 독해능력은 97.4%('99)이었으며, 이 중 남자는 47.8%, 여자는 49.6%이다. 이 당시 여성인구가 51.2%로 남성보다 인구수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독해 가능한 성인 중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학교 등록률을 보면, 2001/2002년 기준으로 초등교육에는 전체 등록자 중 남자가 51.3%, 여자는 48.7%, 중등교육은 남자 50.5%, 여자 49.5%가 등록하여 남학생 수가 여학생 보다 더 많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남자 총 37.6%, 여자 총 42.2%가 등록하고 있어 여자의 등록률이 남자보다 더 높다.

고등교육의 전공별 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공 선택에 있어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여 여학생은 인문, 남학생은 기술을 선택하고 있다.

〈표 3-17〉 고등교육의 전공별 여성비율 - 키르기즈스탄

(단위: %)

	신문방송	교육	체육	제조·가공	수학통계	인문	의학
2001/2002	86.3	79.1	74.4	64.6	62.7	60.3	57.3
	사회학	상경	환경보호	IT	법	건축	공학
2001/2002	54.4	53.1	40.3	37.6	30.2	23.3	20.9
	농·임·수산	교통					
2001/2002	8.1	3.9					

자료: JICA(2004), Kyrgyzstan: Country Gender Profile, p.7.

4) 건강

산모와 영아의 건강 현황을 보면, 5세 미만의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당 29.5명이다(National Statistics Committee, 2001). 영아 사망률은 21.2명이며, 이 중 여아는 17.1명, 남아는 25.1명이다. 1998-2002 기간 중 영아 사망률은 19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 특히 의료진 교육이 주효한 결과이다. 사망의 주요 요인은 태아기의 장애, 호흡기 장애, 전염병, 기생충 등이다. 태아기 아동의 높은 사망률(37.9%)은 대부분 산모의 건강상태와 연관되어 있다. 85%의 여성만이 분만 전에 의사의 검진을 받고 있다. 산모 사망은 출생아 100,000 명당 2003년에는 49.3명, 2005년에는 60.1명이었다. 산모 사망률의 80%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한다. 산모 사망의 대부분은 분만시, 분만 후, 그리고 임신 중에 일어났다. 이 수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9배, 동유럽 국가들의 2배에 해당한다. 임신한 여성의 약 60%가 빈혈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철분이 함유된 밀가루를 보급하고 있지만 국민의 10%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표 3-18〉 아동건강 - 키르기즈스탄

	사망률	
	영아 (1,000명 당)	5세 미만(1,000명 당)
2002	21.2	..
2001	21.7	29.5
1990	30.2	42.1

자료: JICA(2004), Kyrgyzstan: Country Gender Profile, p.6.

〈표 3-19〉 가족계획 - 키르기즈스탄

(단위: %, 세)

피임 보급률	출산 돌봄률	산모 사망률 (100,000명 당)	초혼 연령	출산율
41.2('03)	98.8('02)	53.5('02)	..	2.40('01)
26.6('02)	98.5('99)	42.3('99)	24.5(남)	2.64('99)
40.3('99)	98.1('96)	44.3('95)	21.3(여)('99)	2.84('89)
33.9('98)	..	62.9('90)	..	2.76('79)

자료: JICA(2004), Kyrgyzstan: Country Gender Profile, p.6.

성관계를 갖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낙태도 증가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 86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출생아 전체의 0.9%에 해당한다. 매년 800건의 낙태가 청소년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이 중 25%는 1번 이상 반복되어 일어난 경우이다. 다행히 국가 전체의 낙태율은, 청소년 1,000명당 1999년 1.8건에서 2005년 0.9건으로 줄어들었다.

HIV/AIDS 감염자의 공식 통계는 2005년에 937명이며, 이 중 18.5%(156명)는 여성이다. 여성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30% 증가하였으며, 이 중 52%는 15-29세에 분포되어 있다. 67%(76명)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감염되었다.

건강관련 정부 정책으로서 건강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AIDS 예방 법령”(1996), “국민의 재생산권”(2000), “요오드결핍증 예방 법령”(2000)

등이다. 국가 사업으로는, Manas Taalimi 건강 보호 개혁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1996-2006, 2006-2010), 국민의 정신건강(2001-2010), AIDS, 성병 및 주사에 의한 전염병 예방 법령에 관한 정부 계획(2001-2005) 등이 있다.

나. 여성현황 및 성평등 관련 제도

1) 여성 대표성

가) 국회의원 성별 비율

2000-2005 기간 내 국회의원 105명 중 여성의원은 7명으로 6.7%에 달하였다. 이는 2000년 선거에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었고, 여성들이 높은 순위를 배정받아 3명의 여성이 의회(Zhogorku Kenesh)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2003년 2월 헌법개정으로 비례대표제가 폐지되었다. 결국 2005년 선거에서는 여성의원이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다. 지방 의원의 경우, 주(regional) 12%, 시·군(rayon and urban) 13%, 읍(rural administration) 16%로서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나) 공무원 성별 비율

정부, 행정조직의 기관장 중에서 여성은 27.7% 뿐이다. 반면 여성전문가 비중을 보면 고위급이 61.1%, 중간급은 66.8%이다.

국가 공무원의 성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3-20〉 공무원 성별비율 - 키르기즈스탄

단위(%)	2003년		2005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국가공무원 전체	37.8	62.8	43.7	56.3
일반업무	36.3	63.7	43.4	56.6
· 입법업무	6.7	93.3	0	100.0
· 행정업무	36.4	63.6	43.5	56.5
국가직 및 지방직	37.1	62.9	40.0	60.0
· 조세업무	36.1	63.9	37.4	62.6
· 관세업무	16.2	83.8	18.0	82.0
· 사회경제적 행정	37.9	62.1	49.6	50.4
· 국제업무	47.0	53.0	45.1	54.9
· 사법 및 재판업무	42.8	57.2	41.3	58.7
· 사회보험 및 안전업무	50.3	49.7	53.1	46.9

자료: CEDAW(2007), p.32.

다) 사법기관 성별 비율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1993년 이래 여성이 맡고 있다. 최고재판소의 판사 중 53.3%가 여성이며, 일반 법원에서는 307명의 판사 중 81명(27%)이 여성이다. 여성비율이 높은 것은 남녀를 같은 기준에서 경쟁하게 한 결과이다. 사법부에서의 여성판사들은 사회의 중요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라) 각료 성별 비율

12명의 각료 중 여성은 2명(2001)이었으며, 지방정부에서 선출된 기관장으로서 455개의 Aiyi okmotu에서 여성 수장은 21명 뿐이다. 2005년 대통령 선거 이후 구성된 집행부에서 여성각료는 3명으로, 소관 업무는 사회기금, 이주 및 고용위원회, 재정정보서비스이다. 당초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4명을 대통령이 추천하였으나,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임명되지 못했다.

마) 기업 간부 성별 비율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직장이었던 은행에서의 여성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남성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 관리자는 60.4%에 달한다.

2) 여성관련 법 및 정책

가) 양성평등 관련

키르기즈 사회에서의 여성의 공식적인 지위는 그리 낮지 않다. 평등한 인권은 키르기즈 공화국 헌법 제15조에 보장되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이 명시되어 있다. 즉 선거, 투표권에서의 평등, 시민권의 획득·변경·보존에서의 평등,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의 평등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3조에는 성, 신앙, 민족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민법, 형법, 노동법 및 가족법에도 성평등 준수는 보장되어 있다. 노동법에는 여성 노동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가족법에는 임신 기간 및 산후 1년 이내 모성보호 등 가족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형법의 경우 성행위 강요, 결혼, 낙태, 매매춘, 일부다처, 강간죄 관련 조항은 엄격히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성평등 보장 기본 법(The Law on the Basics of State Guarantees of Gender Equality, 2003)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The Law on social and legal protection of people suffered from violence in the family, 2003) 등을 통해 모든 사회 영역에서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공행정에서의 여성지도자 유입을 위한 인적자원정책 개발 법령”(decree)은 사회, 문화-교육 이슈에 관하여 능력있는 여성들이 지방정부의 부대표로서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성평등 보장을 위하여 키르기즈스탄의 법에 대한 성분석(gender-based analysis)으로서, 2005년 HIV/AIDS관련 법에 대하여 성분석을 시도하였다(CEDAW, 2007).

젠더정책으로서는 가족, 여성 및 청소년문제 국가위원회(State Commission on Family, Women and Youth Affairs)가 주도하여 수립한 국가행동계획

2002-2006(National Action Plan for 2002-2006)이 있다. 국가행동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는 양성평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향상, 의사결정에 있어 모든 수준에서의 젠더 균형 지원, 노동, 고용 및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경제발전을 위한 젠더 요소 고려, 건강보호 시스템에서의 젠더 관점, 교육 및 문화에서의 젠더 평등, 여성에 관한 모든형태의 폭력 철폐 등이다.

나) 여성인권 관련

여성 대상 범죄는 연간 25-26%이다(2002).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는 44%, 건강 손상 등 경범죄는 48%에 달한다. 그러나 폭력 피해자의 78.9%는 경찰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경찰 신고자 중 6.6%만이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였으며, 34.1%는 불만족, 45.9%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1.1%의 신고된 피해자 중 6.6%만이 피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다수 피해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제이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1999) 자료에 의하면, 4,000명의 여성이 인신매매의 피해자이다. 중개 회사는 고임금의 해외 취업 알선을 약속하며 여성들을(나이 어린 소녀들까지도) 불법으로 해외에 수출하였으며, 그곳에서 소녀들은 성 착취로 고통을 받았다.

현재 10개의 성폭력위기센터와 쉼터 같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1997-2000년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약 3만명의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였다.

3) 여성 관련 기구 및 조직

가) 국가기구

1996년 행정부 내에 '가족, 여성 및 청소년문제 국가위원회'(State Commission on Family, Women and Youth Affairs)가 설립되어 관련 부처, 지방 정부, 시민 사회, 국가기구 등과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국가위원회의 노력으로 입법 의회 내에 ‘가족, 여성 및 청소년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1997). 국가위원회는 주(Regional, Oblast) 차원에서도 Ayalzat Centers로서 운영된다. 동 센터는 UNDP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방 조직에서의 청소년, 가족, 여성 문제의 조정업무, 여성단체, 공동체, 여성기업가, 농부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위원회(State Commission)와 가장 교류가 빈번한 파트너는 여성단체와 UNDP의 젠더국이다.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인지적 접근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젠더정책위원회’(National Council on Gender Policy)가 1998년 7월 출범하였다. 동 위원회는 정부 기관과 비정부기구의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의 3권에 소속된 기구 내에서의 성 주류화 모니터링
- 성 주류화 관련 전문가 자문 제공 및 우수 사례 발굴
- 정부 부처, 위원회 및 기관 대상으로 젠더 관련 정책 및 전략 조정
- 비정부기구 및 젠더 관련 타 기관과의 교류(coordination) 증대

2001년 ‘젠더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여성, 가족 및 젠더 개발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Women, Family and Gender Development under the President of the KR)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나) 여성단체

젠더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민주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NGO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1995년의 베이징회의는 키르기스스탄의 여성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96년에는 대통령령으로 “키르기스 여성의 해”가 선포되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이 수립되었고, 여성들의 사회적 책임 등의 사회적 기제에 의해 1998년 현재 100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결성되었다.

정부는 여성단체를 여성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있는 파트너

로 간주하고 사회적 공헌을 하는 NGO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다양한 그룹의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였으며, 사회-경제 부문에서 그들의 역량을 키워나갔다. 국가와 민간 간의 중계자로서 파트너십을 유지하였으며, 국제회의 참석 및 타 국가 유사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여성운동에도 동참하였다. Union of Women Entrepreneurs of Kyrgyzstan은 World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에 가입하였다.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와 여러 NGO 단체들이 협력하여 여성관련 이슈를 담은 책자, 달력 등의 출판물을 만들고 있다.

여성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들로서는 ICF “Meerim,” “Diamond” Association, “Women Support Center,” 여성기업인 협회, 농촌여성조직인 “Alga” 등이 있다.

여성단체들은 법·정치 교육 프로그램, 여성 리더십 훈련 등을 통해 이론 성과가 크기도 하지만 그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가 없었다. 이는 젠더 교육의 부족, 세계 여성운동 발전상에 대한 인식 부족, 여성단체 간 조정 및 네트워킹 부족, 양성평등 및 여성 지위향상을 위하여 남성과의 연대하는 중요성 간과, 열악한 단체 재정 등에 기인한다.(JICA, 2004, p.34)

다. 젠더이슈

키르기즈스탄의 CEDAW 보고서(2007)에 의하면, 성평등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CEDAW, 2007: 15).

- 제도의 불안정성
- 젠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미흡
- 지속적인 여성의 빈곤 및 실업
- 국가정책 뿐 아니라 대중의 인식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 통합의 지체
- 여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부장제와 전통 문화에 의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의 회귀
-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전통적인 가족 내 역할

에 대한 고정관념 유지 등이다.

즉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젠더이슈로는 개인 및 사회가 갖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의식 문제, 여성 빈곤 및 실업 문제, 제도적 기반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역사적으로 가족단위를 중요시 여기고, 성 위계에 의한 가부장 문화의 뿌리가 깊다. 여성은 가족 생활에서 종속적 위치에 있으며, 경제적으로 남편(신부값 지불)에게 의존하였고, 남편은 아내를 그의 소유물로 간주하였다. 또한 시어머니는 가부장적 관습을 보존하려는 주창자이자, 며느리와 가족내 다른 여자들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교조주의자였다(JICA, 2004).

여성들에게는 과도한 규칙과 제한이 있었으며, 이는 여성 자신들을 보다 더 열등한 존재로 의식하게 하였다. 출산 자녀 수를 결정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한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제로 신부를 납치하는 관습은 전형적인 성차별의 표징이라 할 수 있다. 소녀를 강간한 후 결혼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렇듯이 가부장 문화에 의한 성역할 고정관념, 이로 인해 여성에게 씌워진 굴레들을 풀어주는 것이 성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성역할 고정관념은 일상생활에서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그 위치를 지워주는 단초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 여성정책으로서 수립된 국가행동계획에서는 삶의 전 영역에서의 성평등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책과 법률 제정에 있어 젠더관점 포함,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증진, 전통적 관습에서의 여성 차별 인습 철폐,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여성빈곤의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성건강의 보호를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World Bank, UNICEP, UNFPA, WHO, UNHCR 등과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행동계획에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젠더이슈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여성건강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가장 큰 성과는 성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의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현장에서 고용주는 여성보다 남성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성별임금격차는 해소되지 않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7.6%에 불과하다(2001). 또한 여성들은 시장변화에 훨씬 취약하여 여성의 실업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에 경제현장에서의 여성들의 역량 강화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빈곤 완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한편 건강 현황을 보면 태아기 아동의 사망률이 높고(37.9%), 영아 사망률은 1,000명 당 21.2명(2002), 임신한 여성의 반 이상이 빈혈로 고통받고 있으며, 분만 시 사망하는 여성도 많다. 산모 사망은 출생아 100,000 명당 2003년에는 49.3명, 2005년에는 60.1명이었다. 산모와 영아의 사망률은 그 나라의 의료 수준과 사회 경제적인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로서, 이와 같은 통계는 키르기스스탄의 의료 서비스 현황이 열악하고, 산모의 건강 관리가 미흡함을 암시해 준다. 성관계를 갖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낙태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서 86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5%는 1번 이상 반복되어 일어난 경우이다. 또한 HIV/AIDS 감염자는 2005년에 937명, 이 중 18.5%가 여성이며, 연령층은 52%의 여성이 15-29세이다. 청소년들의 낙태, HIV/AIDS 감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라 하겠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호 개혁을 위한 국가프로그램(1996-2006, 2006-201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활동이 활발한 단체 중 하나인 Adilet Legal Clinic(젊은 변호사들 협회)의 여성국에서 2003년 이래 수행한 법률 자문의 내용을 보면, 성폭력 및 성차별, 토지에 대한 여성의 권한, 미혼모의 법적 권리,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의 시민권, 결혼 관련, 폭력 피해자를 위한 위기센터 및 쉼터, 법정에서 고객 보호 등 다양하다.

이러한 자문내용에 근거하여, 주요 젠더이슈로서 폭력관련 문제를 들 수 있다. 실제로 폭력 피해자의 78.9%는 경찰 신고를 거부하고 있으며, 경찰 신고자 중 6.6%만이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신매매의 피해도 늘고 있다. 여성인권 향상을 위하여 폭력 피해자 보호, 폭력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하면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젠더이슈로는 가부장 문화에 의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의식 문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빈곤문제, 건강문제 그리고 폭력 관련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라. 협력사업

1) 현재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협력사업 현황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992년 1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한·키르기스 문화협정('97.6.), 관광협정('06.7.), 경제협력협정('07.11) 등의 협정을 체결하였고, 아카예프 대통령 방한('97.6.), 산업자원부장관의 키르기스스탄 방문(2002) 등 주요 인사 교류가 있었다.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세종학당 개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키르기스스탄 비슈켄 인문대학과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업무 협정을 체결(2007.5.)하였다. 한·키르기스 친선 협회를 통하여 한글 표기 마을인 세종마을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키르기스 간 경제협력 사업으로는 한국 정부가 1999년 EDCF 차관 12백만불을 지원(금리 연 2.0%, 상환기간 30년 조건부)하고, 키르기스스탄 수도권 추이주 25개 지역에 45,273회선의 TDX-10교환기를 설치하여 통신 부문을 지원하였다. KOICA의 무상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1991-2005년 간 지원 실적은 총 1,293만불로 연평균 86만불을 지원하였다. 연수생 88명, 전문가 1명이 초청되었으나, 여성 관련 연수생 초청 실적은 없다. 기업의 투자로는 삼성건설의 비슈켄-오쉬 고속도로 건설사업(2002) 등이 있다.

양국간 교역 추이를 보면 312만불(1995)에서 6,159만불(2005)로 10년 사이에 거의 20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역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2005년 총 수출액 6,042만불, 수입액은 117만불에 불과하였다. 대 키르기스스탄 수출품목은 편직물, 연초류, 합성수지, 승용차, 컴퓨터,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등이며 수입품은 금, 곡류, 펄프, 비금속광물 등 원자재가 주종을 이룬다.

키르기스스탄측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키르기스스탄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희망

하고 있다. 그러나 키르기즈스탄의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 부진 등 우리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2) 국제기구 및 선진국가와 키르기즈스탄의 여성관련 협력사업 현황

키르기즈스탄에 상주하는 UN 기관의 젠더부문 담당자들은 국제협약들이 국내에서 이행되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든지 국가에서 추진하는 계획들이 부정행동강령, UN 새천년개발 목표 등과 부합되게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UNDP의 사회지배프로그램(Social Governance Programme)의 내용을 보면, 키르기즈스탄 정부를 대상으로 젠더정책 개발 및 여성의 빈곤 완화 관련 자문, 젠더 통계 생산, 정부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 통합, 고등교육기관에서 젠더 교육 촉진, 여성의 정치력 증대 도모, 변호사들의 단체인 Adilet Legal Clinic의 여성국 지원 등이 있다. 2002-2005기간에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와 노동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의 사업에 성 인지적 관점 통합을 위한 세미나를 지원하였다.

UNDP와 키르기즈스탄 정부가 함께 시행한 프로그램인 “지방정부의 정치·행정 지배(Political and Administrative Governance at the Local Level)”를 통해 1,232개의 자치단체 조직이 형성되었으며 그 중 339개의 자치단체 수장은 여성이 되었다. “젠더 연구(Academic Gender),” “교육에서의 젠더(Gender in Education)”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젠더관련 교재 및 전문 강사의 부족, 고등교육기관 행정가들의 젠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UNDP와 SIDA(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는 “Women in Politics”를 공동 수행하여 정치적 영역에서의 여성참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키르기즈스탄에서의 정치에서의 성평등 증진”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였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당지도자, 언론 대표, NGO 방문단이 스웨덴을 방문(2002-2004)하여 경험을 교류하였으며, Kiev 선거(2004)의 참여 관찰, 여성리

더십 훈련, “중소기업 및 네트워크에의 여성 참여” 컨퍼런스 개최 등이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UNDP 사업으로는 HIV/AIDS 관련 전문인력 지원,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 증진 및 지원정책 개발 등이 있다. ADB 주관 사업으로는 일본 정부와의 협력사업으로 농촌여성을 위한 수공예 산업 개발이 있다.

한편, EU에서도 키르기즈 농촌지역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협력사업이 시행되었다.

〈표 3-21〉 키르기즈스탄과 UNDP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번호	사업명	사업 집행 기간	자금지원	분야	협력기관	총예산	내용
1	Joint UN Support for the Country Response to HIV/AIDS	2006년-2010년	UNAIDS	여성 건강	UNDP, WHO, UNODC, UNFPA, UNHCR, UNICEF, WorldBank, Capacity Project, USAID, DFID, AFEW, Soros Foundation, CMCC, NatlAIDS Center, Ministry of Health,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Labor & Social Protection, ADB, AIDS Service NGOs	\$1,393,227	HIV/AIDS발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인력을 대상으로 HIV/AIDS 발생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및 기술 지원
2	Support to Rural Women-Informal Workers	2007년-2008년	UNDP, Gender TTF	경제적 관리 및 사회 개발	Ministry of Finance of the KR, WESA (Women entrepreneurs support association),GTZ,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MASHAV,RDC(Rural Development Centre)-Elet, RAS (Rural Advisory Service)	\$150,000	농촌지역 여성의 취업기회 신장, 비공식적 노동력으로서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 증진 및 지원정책 개발
3	Women in Politics	2007년 8월 - 2009년	SIDA(스웨덴)	공공 행정	Presidential Administration, Deputy Plenipotentiary of the	\$459,031	여성취업기회 및 고용평등 달성을 위한 시민서비스 창출 메

100 중앙아시아와 여성정책 협력사업을 위한 탐색연구

번호	사업명	사업 집행 기간	자금지원	분야	협력기관	총예산	내용
		12월			President in the Parliament of KR, Agency on Local Self-Governance, Civil Service Agency		커니즘 확립, 국가 공무원 관리 및 채용에 있어서 양성평 등 역량 향상, 정책-정치-구조-관리적 차원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 향상,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의 네트워크 확립, 미디어에서 여성관련 기사의 증대 유도, 전문 여성방송인 및 여성저널리스트 발굴
4	Promotion of Women in Decision Making	2007년 8월 - 2008년 12월	Finnish Government	공공 행정	Presidential Administration, Deputy Plan potentiary of the President the Parliament of KR, Agency on Local Self-Governance, Civil Service Agency	\$132,453	공공정책 및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표 3-22〉 키르기즈스탄과 EU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번호	사업명	사업 승인시기	지원 형태	분야	수혜기관	총예산
1	Increase of rural women's awareness on human rights and gender equity	2006년 7월	보조금	여성, 인권	NON-GOVERNMENTAL PUBLIC MOVEMENT CRISIS-PSYCHOLOGICAL AND REHABILITATION CENTRE ALTYNAI ASSOCIATION	30,004 €

키르기즈스탄에 협력사업을 활발히 시행 중인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스웨덴과 일본의 경험을 살펴볼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극빈국인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에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약물남용, 인신매매, 납치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UNODC(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와 동참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World Bank와 함께 아랄해 환경재해 극복을 위한 사업을 먼저 시행하였고 이후 UNDP와 민주주의, 인권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중앙아시아 협력사업으로서 집중지원 하는 분야는 민주적 정부 형성(democratic governance)과 인권신장 부분이다. 2007년 협력사업 지원 금액을 보면 카자흐스탄에는 한화 약 7억 1천만원, 키르기즈스탄에는 한화 약 79억원, 타지키스탄에는 한화 약 156억원, 우즈베키스탄에는 한화 약 8억 8천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다. 2009년에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에는 200만 크로나(한화 약 326억원)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키르기즈스탄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적 지원으로서 빈곤 퇴치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적 정부 형성 영역에서는 재정 시스템의 재건, 행정역량의 강화, 반부패, 건강 영역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 남녀의 동등한 접근성 제공, 사회안전보장 시스템 강화, 아동을 위한 건강제도 특히 HIV/AIDS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성평등(gender equality)영역에 있어서 스웨덴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특히 장애어린이 치료 및 보호, 무급직 여성 보호 등의 정책시행을 촉진하고 있다(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홈페이지, 2008).

〈표 3-23〉 키르기스스탄과 스웨덴의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영역	지원금액(SEK)	한화(원)
건강	28,882,000	약 47억원
교육	949,000	약 1억 5천4백만원
연구	0	0
민주적 정부, 인권신장	4,575,000	약 7억 4천 5백만원
안전보장, 평화유지	872,000	약 1억 4천 2백만원
인도주의적 구제	0	0
인프라구축	0	0
무역, 산업, 재정시스템	27,000	약 4백만원
천연자원 및 환경	13,475,000	약 21억 9천 6백만원
기타	185,000	약 3천만원
합계	48,965,000	약 79억 8천 1백만원

자료: SIDA 연간보고서(2007),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앞서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사업 현황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이 중앙아시아와 벌이는 여성정책 협력사업은 주로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루어진다. 대(對)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사업으로서는 2004년 8월 새로운 준거틀로서 “중앙아시아와 일본”을 선포하고 테러, 천연자원, 교통, 환경보호, 무역 등에 있어서 협력적 관계를 전략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로의 전환 지원,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 사회 각 부문간의 협동(건강 및 교육), 환경보호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기술 및 행정적 역량 강화, 경제정책의 시행, 법적 시스템 및 조세행정 확립, 통계적 수집, 중기적 경제개발 계획, 산업교육에 힘쓰고 있다.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공공시설의 관리, 전력 및 수자원 공급에 힘쓰고 있다. 셋째, 교육 개혁, 전문교육을 위한 지출 향상, 농촌지역개발, 농업기술 증진, 관광개발, 지역산업 촉진, 건강복지 개편, 모자건강 증진, 환경보호, 자연재해, 장애인 사회적 역량강화 지원 등의 사회적 영역의 재건을 위해 개발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성분야 협력사업의 형태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UNDP, WB,

UNFPA, Eurasia Fund, OSCE 등의 국제기구의 사업에 자금지원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표 3-24〉 키르기스스탄과 일본의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영역	협력사업명	사업시행기간
교육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 교육	2004년 1월 - 2005년 12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성평등 촉진	2002년 7월 - 2003년 8월
	겨울 성평등 학교	2002년 1월 - 2002년 4월
	여성 실업자 컴퓨터 교육	1996년 10월 - 1997년 10월
건강	모자 영양상태 증진	2001년 10월 -
	HIV/AIDS 등 여성 질병요인 퇴치	2003년 4월 - 5월
	여성 영양상태 보강	2001년 5월 -10월
농업, 어업, 임업	농장 및 농촌 여성기업가의 경영 상담과 직업 교육	1998년 6월
경제활동	토지개혁과정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리 보호	2002년-
법	정치영역에서 성평등 향상	2004년 6월
	폭력없는 생활 캠페인	2001년 10월
	여성 리더십 개발	2004년 1월 - 2005년 12월
	공공부문 성평등 관점 도입	2004년 1월 - 2005년 12월
	신부납치의 인권적 관점	2004년 2월
	성주류화의 사회, 경제적 이점과 비용	2002년 12월 - 2003년 2월
	중앙아시아 여성 NGO 협동	2003년 12월
	여성의 공적 참여 향상	2001년 - 2002년
	위기 상황의 여성 지원	2001년 - 2002년
	여성 리더십 향상	1999년 - 2001년
	선거의 여성 참여에 관한 사례 연구	2000년
	여성NGO 역량 향상	1998년 1월 - 1998년 12월
	여성 인권을 위한 세미나	1997년 5월 - 10월
	여성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연구	1996년 - 1997년

자료: JICA(2004)

3)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협력사업 제안

키르기스스탄은 경제가 낙후되어 있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표방하고 있기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건강, 교육에서 인권신장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키르기스스탄 협력사업의 영역은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더 포괄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 시행에 있어서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키르기스스탄의 국가정책과 병행하여 협력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부문의 국가행동계획(2002-2006)의 목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 금지 및 여성 고용 증진, 성평등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 고취,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모성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과 법적 체제 마련, 여성폭력의 철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국가행동계획에서 표방하는 여성정책의 중점 추진 분야는 여성 고용, 양성평등의식 제고 교육, 모성보호, 여성폭력 관련이라 하겠다.

앞 절에서 기술한 키르기스스탄의 젠더이슈와 국가가 우선 지원하는 중점 추진 과제를 고려하여, 한국과 키르기스 간 협력사업으로 여성의 경제력 강화, 여성 건강, 여성폭력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관련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가) 여성건강 증진 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도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건강 증진, 산전·산후 관리, 출산 및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은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영아 및 모성사망률이 높다. 산모의 건강 관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임신한 여성과 산모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이 열악하다. 또한 청소년들의 낙태가 빈번하고, 젊은 여성들의 HIV/AIDS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여성 건강 증진 프로그램, 건강 부문의 성 인지적 분석 등 건강부문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제안하는 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강화
 - 여성과 질병, 생식건강, 정신건강, 직업 및 환경적 건강의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 개발
 - 여성건강 관련 공동 연구 및 세미나
 - 임신부 및 출산 도우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0대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여성건강클리닉 운영
- ②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 보건의료 종사자 및 보건정책 담당자 대상 성 인지적 보건 교육 및 훈련
 -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기회요인과 장애요인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1996년 이래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호 개혁 프로그램에는 MDGS 목표 이행, 모자건강, 의료서비스 접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감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시설 및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여성들의 건강의식 수준이 낮다. 이에 전반적인 의료 수준 향상과 국민의식 교육이 필요하다. 건강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높으나 엄청난 재정 지원이 수반되다는 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국민 의식 개혁을 위한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한 점은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3) 사업의 기대효과

여성건강 증진 사업은 키르기스스탄의 수요(needs)에 가장 부응하는 협력

사업이 될 것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직접 그 수혜가 가고 건강한 재생산을 지원함으로써 수혜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사업의 성과도 크다 하겠다. 우리의 앞선 의료기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나) 여성의 경제력 강화 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여성의 경제력 관련 문제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남녀평등고용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 개선, 여성의 역량 강화 등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통하여 여성들의 경제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여성발전센터,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전문기관을 두고 여성 유망직종 개발, 직업교육,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을 살려 한·키르기스스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① 여성직업교육 센터 건립 및 운영

- 여성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 취업·창업 지원, 국내외 여성 직업교육기관과의 네트워킹

② 직업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③ 여성인적자원개발계획 수립

(2) 기획요인과 장애요인

키르기스스탄 여성 고용 현황의 문제점으로는 호텔, 식당 등 저임금 직업, 비정규직 고용형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문직종으로의 진출이 필요하

며, 정책적으로는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경제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장애요인으로는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여성친화적 고용환경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3) 사업의 기대효과

여성의 전문직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성인력 활용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난 극복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다) 양성평등교육 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키르기즈스탄의 여성정책은 삶의 전 영역에서의 성평등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통적 관습에서의 여성차별 인습 철폐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과 사회에서의 의식은 가부장제와 전통 문화에 의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뿌리가 깊다. 더욱이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전통적인 가족 내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지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 사회 경제구조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의 역할에도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는 UN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양성평등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회의 성평등의식 제고, 여성 역할의 재정립을 위하여 양성평등교육 사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양성평등의식 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강사 양성, 교재개발
- ② 여성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 고위직 공무원, 정치인, 여성계 지도자 대상 성 인지력 향상 교육, 양국 간 상호 교환 연수

③ 성 인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 공무원 대상 정책의 성주류화 전략 및 성 분석기법 훈련, 교재개발

④ 양성평등교육센터 설립

(2) 기회요인과 장애요인

키르기즈스탄은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러시아인의 비율이 높고 이슬람의 영향이 적은 국가로 대외개방성이 높다. 더불어 국가행동계획에서도 전통적 관습에서의 여성차별 인습 철폐를 강조하고 있다.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거부감으로 의식교육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키르기즈스탄의 경우에는 중장기적 계획 하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듯하다. 양성평등 교육은 한국의 경우 성평등한 사회 및 여성 발전을 위하여 가장 선행된 사업이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식 개선은 반복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키르기즈스탄에서도 양성평등교육 전담기관을 두고 교육대상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키르기즈스탄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지원이 사업 성공여부의 관건이라 하겠다.

(3) 사업의 기대효과

사회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 개선의 계기를 도모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키르기즈스탄 정부 정책의 성주류화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국의 분야별 인적 교류는 한·키르기즈 간 실질협력을 위한 장기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 여성인권 향상 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성폭력 및 가정폭력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규제해야 할 사회적

범죄이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처벌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의하면, 폭력 피해자의 78.9%는 경찰 신고를 거부하고 있으며, 경찰 신고자 중 6.6%만이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였다. 이에 대다수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폭력의 예방과 방지, 신고체계, 홍보,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과의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①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
 - 폭력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 여성인권세미나 개최
- ② 성매매 여성 지원 사업
 - 성매매방지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

(2) 기회요인과 장애요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1997-2000년 기간동안 폭력으로 고통받는 3만명의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1999년 4,000명의 여성이 인신매매의 피해자이다. 이에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대외적으로도 국가이미지를 위해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인권을 위한 협력사업은 문제가 공론화되고 사회에서의 지원 세력을 확보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폭력은 실제로 존재하나 철저히 은폐되어있어 인권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문제는 국가 간에 간여하기에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협력사업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대안으로 UN기구나 NGO 교류를 통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3) 사업의 기대효과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국간 유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여성인권과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의 전문화와 실효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5. 투르크메니스탄

가. 개요

카스피해 동남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국가로 북서부는 카자흐스탄, 북동부는 우즈베키스탄, 서부는 카스피해, 남부는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과 접경하고 있다. 면적은 한반도의 2.4배 크기이며 기후는 전 면적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사막(Garagum: 검은 사막)의 영향으로 아열대성 사막기후이며, 남부 코페트 다트 산맥에서는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총 면적의 4.5%만이 경작가능하며 1%만이 관개된 경작지이다. 주요 지하자원은 석유, 천연가스, 유황, 소금이다. 1991년에 러시아로부터 독립했으며 수도는 아쉬하바드(Ashgabat, 87만)이며 행정구역은 5개주(아할(Ahal), 마리(Mary), 발칸(Balkan), 다쇼구즈(Dashoguz), 레밥(Lebap))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는 무슬림(수니파 89%), 동방정교(9%), 기타(2%)이며, 헌법상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국교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종교활동을 감시하며 등록된 종교단체만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민족은 투르크메니인(85%), 러시아인(7%), 우즈베크인(5%), 기타(3%)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세기에 걸쳐 몽골, 우즈베크, 이란, 러시아와 같은 외부세력의 공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민족문화가 유입·확산되었으며 국민성도 유목문화에 군사적 요소가 가미된 독특한 부족집단 성향을 형성하고 있다(이옥련, 2007). 언어는 공식언어인 투르크멘어와 통용어인 러시아어가

사용되고 있다.

투르크멘은 구 소련권 국가 중 아직도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은둔의 나라이다. 투르크멘은 국가형성을 위한 투르크멘 사회의 통합과정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씨족적 구조가 아직도 남아있을 뿐 아니라 정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투르크멘인의 약 70%가 농촌에서 살면서 전통적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CIS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강삼구, 2004).

현재의 투르크멘의 정치문화 환경을 알기 위해서는 현 대통령 직전의 대통령인 니야조프대통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니야조프대통령은 투르크멘이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이전 1990년에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연장, 임기제한조항 철폐(1999년)로 종신대통령으로 군림하면서 스탈린식 1인 독재체제를 공고화 하였다. 대통령으로서 동시에 총리, 군 최고사령관, 집권 민주당 총재 등 요직을 겸하면서 정부를 장악하고 자신이 만든 거대한 조직의 운영을 자신과 소수 측근이 장악하게 함으로써 끊임 없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우상화작업을 계속했으며, 이러한 우상화와 권위주의는 스탈린 통치의 유산과 가부장적 부족문화, 이슬람 요소가 혼합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문화로 상징되고 있다.

독립이후 투르크멘은 CIS회원국가이면서도 대러시아 예속을 우려해 러시아신문을 폐간시키고 러시아어 사용을 금했으며 자국내 거주하는 러시아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연간 100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서는 러시아가스관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대러시아 의존을 탈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러시아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투르크멘 가스개발에 협력키로 하는 등 경제협력과 테러, 마약 근절을 위한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러시아 관계가 복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6년 니야조프 종신대통령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후 2007년 선거에서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 직면해 있으나,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이 니야조프 전대통령의 적자로 평가되고 있어 큰 정치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재영·박상

남, 2007) 2007년 2월 새로 출범한 베르디무함메도프 정부는 니야조프 정부 시절 개악되었던 제도를 재·개편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경제적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베르디무하메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이자, 보건부 장관 및 부총리를 재직할 당시, 교육 및 보건 부문의 개악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일달러의 유입으로 인한 빠른 경제성장, 가부장적 정치문화로 인해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재영·신현준, 2007) 민주화에 대한 전망은 투르크메인의 개방화와 경제교류가 활성화 될수록 대내외적으로 압력이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재영·박상남, 2007).

1) 인구

투르크메니스탄의 총인구는 2008년 현재 5,179,571명이며, 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0.2%로 절반에 해당한다. 2008년 현재 인구전체의 기대수명은 68.6세로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남성은 65.5세, 여성은 71.8세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6.3세가 높다.

〈표 3-25〉 인구 - 투르크메니스탄

인구	1990	1995	2000	2004	2008
전체(1000 명)	3,700,000	4,500,000	4,500,000	4,863,169	5,179,571
여성(전체의 %)	50.7	50.7	50.7	50.7	50.2
0-14세(전체의 %)	38.0	36.2	34.2
15-64세(전체의 %)	58.0	59.7	61.5
65세이상(전체의 %)	4.0	4.1	4.3
출산율(여성당)	3.1	2.9	2.7	2.7	3.1
평균기대수명(년)	63.0	62.5	63.0	61.3	68.6
남성의 기대수명(년)	59.0	58.0	59.0	59.9	65.5
여성의 기대수명(년)	67.0	67.0	67.0	64.9	71.8

자료: The World factbook, CIA, 각년도(<http://Genderstats.worldbank.org>.)

2) 경제

투르크메는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0%를 보유한 세계 10위권의 천연가스 보유국가이다. 또한 매장이 확인된 석유와 광대한 관개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천연가스, 석유와 석유 생산품, 전기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에 속한다.

제1기(1991-1995)는 1991년 독립 후 전통적인 경제적 유대관계의 단절, 형편없는 수확량, 그리고 경제적 관리 불찰, 지불방식, 수송과 같은 에너지 수출과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 여러 해 동안 극심한 경제 퇴보를 겪었다. CIS(독립국가연합) 국가가 지불불능 상태였던 1997년은 가장 힘들었던 해로 사실상 모든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우크라이나로 그리고 1999년-2000년에 러시아로 천연가스 수출이 재계됨에 따라 1998년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회복속도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1999년이후 부터는 연간 실질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7%씩 성장해 왔다(CIA, 2008).

투르크메니스탄 상품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석유, 석유 생산품의 늘어나는 수출액 덕분에 2000년 이후 통화잔고가 흑자로 돌아섰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최근 높게 오른 국제시장 석유가격의 주요 수혜자였으며, 2005-2006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50% 가격인상을 포함하여 천연가스 수출대금 지급조건에 대한 개선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003년에 동의한 러시아와 25년간 천연가스 수출과 중국과 30년간 천연가스 수출에 대해 정식협약을 체결함으로써(2006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지만 탄탄한 경제 성장과 탄화수소 자원으로 인한 안정적인 외화 획득은 오히려 독립이후 매우 한정된 경제개혁을 하게 만들고 있다. 즉 국가가 경제에서 우세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민영화가 시작되었지만 정부당국이 국가경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업영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기업운영이 국가계획에 종속되어 있으며 생산원료도 국가가 배분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거래계약은 국가 상품교역국에 등록해야만 하게 되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에너지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상당한 양은 인프라구축, 또 일부분은 경제적 보상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는 국가위상사업에 쓰여지고 있다(CIA, 2008).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전반은 정부통제 하에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는 정부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산의 약 70%를 사회적 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전기·가스·소금·식수의 무상제공과 집세·교통비에 대한 거의 100% 보조금 제공 등 빈곤계층에 대한 독특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이재영, 2007). 투르크메니스탄은 중립국을 선언한 국가로 EBRD,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들과 협력하고 있지만, 시장자유화에 대한 IMF의 권고는 무시하고 WHO가입도 서두르지 않아 국제신인도는 세계 최하위권이지만 국가의 외국인투자유치 성공 등 경제력이 회복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예산외기금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대외부채가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이재영, 2007).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성장의 동력은 천연가스 수출의 활성화에 있으므로 이제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으로 한정된 수출선을 주변국과 실외외교를 통한 다변화, 2003년에는 러시아와 24년, 2006년에는 중국과 30년 장기간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 안정화, 그리고 러시아 송유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유럽과 협의하는 등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거시경제적 안정성 강화, 시장자유화, 무역규제 자유화, 급격한 국가 역할 감소, 민영화는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개혁의제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핵심적 개혁의제 이외의 개혁의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CIA, 2008). 첫째, 공공부문 관리부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최고 발전 우선순위는 공공자원의 건전하고 투명한 관리의 적절성을 확신하는 일이다. 더 나은 시스템으로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상당한 천연자원으로 인한 부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과 농촌발전이다. 농촌발전은 GDP의 1/5을 차지하고 인구절반의 생활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다. 투르크멘은 1997-1988년에 대부분의 농민들이 '임대-소유자'지위로 전환하는 시도에 착수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농촌경제는 유통과 투자가 전적으로 국가통제하에 움직

이고 있어 부의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사적부문의 발전이다. 극적인 기업환경 개선이 특히 중소기업에 필요하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사적부문은 고용창출과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환경문제이다. 투르크멘은 인구 전반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환경적, 수질 그리고 생활양식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기대수명, 영아사망율과 같은 건강지표는 이전의 소비에트 국가에서도 역사적으로 최악이었으며, 최근의 공식통계에서 약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관심분야로 남아있다. 교육의 질과 기본적인 건강서비스는 지난 10년간 심각하게 나빠져 왔기 때문이다.

〈표 3-26〉 주요경제지표 - 투르크메니스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GDP(10억불)	4.3	5.2	5.8	6.4	7.5
실질 GDP 증가율(%)	12.0	13.0	9.0	6.0	6.0
소비자물가상승률(%)	8.8	5.6	5.9	10.7	11.5
수출(백만불)	2,862	3,468	3,870	4,939	5,818
수입(백만불)	2,119	2,502	3,320	3,638	4,057
외환보유고(금포함)(백만불)	2,346	2,673	2,714	3,442	3,601

출처: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동향 및 우리의 진출확대방안, 김은성, 2007, 9쪽에서 재인용
(자료원: E.I.U.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발표)

양국간 교역현황은 1992년 2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2007년 6월에 주 투르크메니스탄 상주대사관을 개설했으며, 2008년 1월 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 개관식을 가졌다. 양국간 수출입 현황으로 수출은 2001년 1,657만 불에서 시작하여 2003년 3,739만불까지 증가하다가 2004년 이후 부터는 감소하여 2006년 현재 596.9만불이며, 수입은 2005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79만불 규모이며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다. 수출품목은 담배, 차량타이어, 가전제품(세탁기), 폴리에틸렌, 합성섬유 등이며 수입품목은 면, 면사, 완구, 누에고치, 의류, 커튼, 타악기 등으로 면제품이 많다.

〈표 3-27〉 양국간 교역현황 - 투르크메니스탄

구분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수출	만불	1,657	2,301	3,739	1,429	778	596.9
수입	만불	190	144	95	16	133	179

자료: 외교통상부(2008)

전체적인 경제활동인구는 1980년 34.5%에서 1990년 54.1%로 증가하다가 2000년에는 44.4%로 떨어졌다가 2004년에도 41.7%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절반을 약간 밑도는 46%~47%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0년부터 2004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83%~86%정도에 이르면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표 3-28〉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 투르크메니스탄

	1980	1990	2000	2004
경제활동참가인구(백만)	1(34.5%)	2(54.1%)	2(44.4%)	2(41.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7	47	46	47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85	86	83	85

자료: The world bank, database of gender statistics(2005)

2003년도 현재 여성의 농업부문 종사자 비율은 48.9%로 매우 높은 편이며, 2002년도 현재 비농업부문은 20.6%로 농업부문 종사자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무급가족노동 비율에서 남성은 10.2%인 반면 여성은 51.3%로 5배에 달한다.

〈표 3-29〉 유급·무급노동 종사자 현황 - 투르크메니스탄

	2002	2002-2003
비농업부문 여성의 유급종사자 비율	20.6	..
농업부문의 여성 유급종사자 비율	..	48.9
남성 무급 가족노동 종사자	..	10.2
여성 무급 가족노동 조사자	..	51.3

자료: 200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3) 교육

2006년 말 심장마비로 급사한 니야조프 대통령은 재직시에 교육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05년 12월 전국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을 중단하고 자력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지시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학교가 폐교되었다. 또한 의무중등교육을 10년에서 9년으로, 대학과정을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했다. 또 2004년부터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를 인정해주지 않아, 해외유학과들의 두뇌유출 현상이 만연하고 있었다. 2008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의무교육을 9년에서 10년으로, 대학과정도 2년에서 5년으로 확충하는 조치 등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2006년도 초등학교 등록율과 수료율은 모두 86.0%로 무상교육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표 3-30〉 초등학교 등록율과 문해율 - 투르크메니스탄

	1990	1995	2000	2006
초등학교 등록율	84	..	83	86
초등학교 수료율	79	..	83	86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ions database 2006

문해율은 초등학교 등록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남성대비 여성의 문해율은 2006년에 93% 수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문해율이 약간 낮으나 그리 큰 차이는 아니다.

〈표 3-31〉 성별 문해율 - 투르크메니스탄

	1990	1995	2000	2006
여성 문해율(15-24세)	79	84
남성 문해율(15-24세)	88	91
여성 문해율(남성대비)	90	93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ions database 2006

학교급별 등록율을 보면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는 성별격차 없이 동일한 비율로 진학을 한다. 그러나 3차 고등교육에서는 2006년의 경우 남성대비 여성의 등록율이 105%로 남성보다 더 많다. 이는 인구구성에서 여성이 약간 많다는 점도 작용하겠지만 남성보다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표 3-32〉 여성의 학교급별 등록율(남성대비) - 투르크메니스탄

	1990	1995	2000	2006
여성의 초등학교 등록율(남성대비)	89	..	92	95
여성의 중등학교 등록율(남성대비)	92	94
여성의 3차교육 등록율(남성대비)	96	105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ions database 2006

독립시기에 직업교육에 큰 변화가 생겨 1997~1998년 사이에 7학년부터 시작되는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에 특수교육기관, 기업체, 농업조합, 학교 등의 기관을 통해 카페트 짜기, 요리, 편물, 회계, 컴퓨터 오프레이션, 운전사, 트랙터 운전기사 등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CEDAW, 2004).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여성은 중학교 혹은 직업중학교를 제때 졸업하며 졸업시험시기에 병으로 아플 경우 그 이후에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비우호적인 가정환경으로 학업이 중단될 경우 장애가 없다면 다시 학교에 복귀하여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보인다(CEDAW, 2004).

4) 건강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재직시에 보건부분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보건부분을 붕괴시켰다. 2004년 12월에는 보건의료부분에 대한 정부 보조를 중단하고, 전국의 모든 의료시설 및 인력을 수도인 아쉬하바트에 집중시키면서 지방 보건의료체제를 마비시켰다.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가) 모성사망률

여성의 재생산 건강 관련 통계를 보면 젊은 나이의 출산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전문의료진에 의한 출산율은 2006년 65%로 아직도 많은 여성들은 병원이나 전문의료인의 도움없이 출산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출산환경은 높은 모성사망율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가족 계획, 원치 않는 임신방지, 최적의 출산시기의 선택, 건강한 생활양식, 육아관련 정보제공 등을 위해 208개의 여성클리닉과 어린이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도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3-33〉 모성건강 - 투르크메니스탄

	1990	1995	2000	2006
초기 출산(15-19세 여성 1,000명 당)	..	65	63	52
전문 의료진에 의한 출산(%)	65
피임약보급률(15-49세 여성, %)	57	60
모성사망률(출산 10만명당, 명)	430	400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ions database 2006

나)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은 2006년 출생 천명 당 50명으로 높은 수준이며, 5세 이하 유아사망률 역시 천명당 73명으로 매우 높다. 영양결핍인구가 전체의 14%나 되며, 특히 5세이하 유아의 영양결핍률은 23.5%나 달한다. 영양결핍은 결핵과도 일정정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핵발생률을 보면 2006년도에 인구 10만명당 139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결핵발견율은 높아지는 반면 결핵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영양이나 위생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아사망률도 해마다 약간 낮아지고는 있지만 2006년 현재 1,000명당 50명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홍역 면역률은 1990년 73%에서 2006년 80%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표 3-34〉 영아, 유아 사망률 및 영양결핍 - 투르크메니스탄

	1990	1995	2000	2006
홍역면역(12-23개월 영아, %)	73	74	73	80
영아사망률(출생 1천명당 명)	63	60	56	50
5세이하 유아사망률(1천명당, 명)	92	88	84	73
전체인구중 영양결핍비율(%)	17	15	..	14
5세이하 유아 영양결핍(%)	23.5
결핵발생률(인구 10만명당)	124	128	136	139
결핵발견율(under DOTS, %)	..	14	29	62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ions database 2006

양질의 수자원에 비해 공중위생, 하수시설이 절반정도 밖에 구비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 확보뿐 아니라 하수도시설 미비로 공중위생에 큰 어려움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5〉 공중위생, 하수시설 - 투르크메니스탄

	1990	1995	2000	2006
공중위생, 하수시설(%)	45	50	55	57
양질의 수자원	76	79	81	83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ions database 2006

나. 여성현황 및 성평등 관련 제도

1) 여성 대표성

투르크메니스탄의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비율에서 국회의원의 경우 2004년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관급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새 헌법에 서 입법기구의 권한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의원정수는 125명에서 50명으로 감축되었다(강삼구, 1997). 2004년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가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003년의 경우 지방의회(Gengeshi)에는 여성위원이 14%가 선출되었으며 국민대표(Khaik Maslakhaty)에는 30%의 여성이 선출되었다(CEDAW, 2004). 여성들은 2020년까지 국가발전계획과 정부정책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기구에 37.6%가 참여하고 있으며, 재정, 교육, 공중보건,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CEDAW, 2004).

〈표 3-36〉 의사결정직 여성비율 - 투르크메니스탄

	1980	1990	2000	2004	전체인원
국회의원비율	..	26%	26%	26%	50명
장관급 비율(%)	4	10	

자료: Genderstats, the world bank group(2004)

2) 여성관련 법 및 정책

투르크메니스탄은 1996년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CEDAW)을 비준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고자 하였다(2004, CEDAW).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법제정 분과가 마련되었다.

여성관련 법·제도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는 현재는 없다.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협력은 독립적 사회연합체인 ‘투르크메니스탄 여성동맹’(Gurbansoitan-eje)에서 제공하며, 여성동맹은 모든 행정센터, 도시, 교육기관, 기업체, 국가기구에 조직되어 있다. 여성동맹(Gurbansoltan-eje)의 회원은 대략 100만명에 달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젠더요인 관련 발전지표(IDGF)는 0.716으로 이 지표는 인간발전지표(IDHP: the index of development of human potential)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인간발전지표의 99.4%에 해당되는 수치로 인간발전부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최소한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CEDAW, 2004) 통계로 나타나는 현실과는 거리감이 크다. 여성들은 정치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나 다른 이슬람국가와는 다르게 얼굴을 가리는 베일 착용이나 엄격한 이슬람 규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여성정책관련 기구가 없어 공식적인 여성정책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CIA에서 나온 낙태 관련 정책을 보기로 한다.

가) 낙태 관련 정책

- 출산율에 대한 관점: 1995년-2000년 동안 출산율은 3.6명이며 15-19세의 1,000명당 출산율은 20명으로 정부는 출산율에 만족하고 있다
- 출산율에 대한 개입: 아무런 정책적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 낙태 대한 입장: 피임약에 대한 지원이 없으며 낙태에 비우호적이며 낙태에 대한 의존이 주요한 가족계획의 방식이 되고 있다.
-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체적 건강을 위해, 정신건강을 위해, 강간이나 근친상간, 경제·사회적 원인, 요구가 정당할 때로 한정시키고 있다.
- 낙태를 위한 추가적 요건: 임신한 여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병원이나 승인된 의료기관에 의해 수술할 때 가능하다. 낙태는 임신 12주내에 가능하며 인공유산은 법률적, 유전적, 포괄적인 의료적 사회적 근거로 가능하며, 개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 내과의사의 특별 승인이 있어야 한다.
- 향후 관련 정책: 출산율이 1995-2000년 4.0에서 3.6으로 하락하자 인구문제에 대한 국가적 조정기구를 고려하고 있다.

3) 여성 관련 기구 및 조직

가) 국가기구

투르크멘은 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부와 인민평의회(할크 마슬라하티)에 의한 권력분립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통령중심제국가로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인민평의회는 대통령과 3부 및 지방의 지도급 인사 등 총 2,507명으로 구성되는 투르크멘의 전통적 협의방식을 계승하여 발족된 최고권력기구로, 헌법제정 및 국정 전반의 주요사안 결정 등 최고 국가권력·통치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보유하는 기구이다. 국가기구 내 여성을 위한 별도의 기구는 없으며 인민평의회 대의원 2,507명 중에 여성동맹의 지도자가 포함되는 정도이다. 국회(마즐리즈)는 국민직선으로 구성되며, 법률

채택·국가예산안 승인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전제기능은 미약하며, 경제사회정책위원회, 과학교육위원회, 문화위원회, 법무위원회, 외교위원회의 5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이옥련, 2007), 국회에도 별도의 여성위원회는 없다.

나) 여성단체

투르크멘의 대표적인 사회단체로는 70개 이상의 사회단체 및 예술동맹 등이 참여하는 전국민운동본부(갈퀴니쉬: 국가부흥), 약 120만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각종 직업동맹, 약 8,000명의 주·군·시의 참전용사 관련단체를 포함한 참전군인회(‘아타무라트 나야조프’:투르크메니스탄 영웅), 56만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투르크메니스탄 청년동맹(‘막통굴리’), 전국 하부조직을 운영하는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투르크메니스탄 여성동맹(‘구르반 솔탄 에드제’), 대통령지원하에 해외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세계투르크멘 인도주의협회가 있다(CEDAW, 2004). 이 중에서 여성관련 사회단체인 ‘구르반 솔탄에드제’는 1994년 4월에 창성되었으며 단체명은 나야조프 전대통령 어머니의 이름이다. 전국에 하부조직이 있으며 ‘갈퀴니쉬’(전국민국가부흥운동)에 가입되어 활동하며, 여성들의 권익보호 등 대통령의 사회정책을 적극 수행하는 단체이다(이옥련, 2007). 여성은 정치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다른 이슬람국가와는 달리 얼굴을 가리는 베일착용이나 엄격한 이슬람 규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이옥련, 2007). 이런 맥락에서 볼때 ‘투르크메니스탄 여성동맹’은 여성 NGO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젠더이슈

1) 아들, 시댁생활 적응, 가사솜씨로 결정되는 여성의 지위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족, 어린이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이다. 3가정에 1가정은 5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며, 재생산 기능과 현재 국가

전통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은 아이양육과 가사전담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통계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이지만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많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성들은 투르크멘사회에서는 최고의 사회적 위상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시스템 역시 혜택과 특혜로 이를 격려하고 있다(CEDAW, 2004).

투르크메니스탄의 문화는 일부일처제가 예외가 아닌 규칙이며 신부값은 관습으로 확립되어 있고, 결혼은 대부분 중매결혼이며 씨족간 결속의 기능을 한다. 여성은 결혼으로 남성문중의 일원이 되며 가족내 지위는 가문의 계승에 기여하는 남자어린이의 수와 수공예 기술, 가사솜씨,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적응도, 신부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가족내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출산율은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는 이유로 정당화된다. 여성은 친정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부의 미래는 아들에 좌우된다. 아들을 낳으면 미래에 가족내에서 시어머니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회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필수적이다(Nuran Hortacsu & Sharon Bastug, 2000). 또 재생산 자체가 중시되어, 자녀가 없는 남성은 남편형제의 아이(가능하다면 남자)를 입양 받으면 부정적 시선이 완화되며 이때 남편형제의 며느리들은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여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Sharon Bastug&Nuran Hortacsu, 2000).

투르크멘사회에서는 딸과 자매는 낮은 가치가 부여되지만 결혼한 여성, 며느리, 어머니에게는 높은 가치가 부여된다. 여성의 결혼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이 투르크멘사람들에게는 인식이 되어 있다. 여성의 지위는 결혼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투르크에서 결혼은 신부값을 지불함으로써 여성의 권리가 친정집에서 시댁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개념이며 결혼식에는 이러한 절차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결혼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인은 신랑아버지가 신부아버지에게 지불하는 신부값, 신랑어머니와 가족이 주는 옷 등의 혼수와 신부집에서 신부값의 일부 혹은 전부로 구입하여 신부에게 주는 가구, 옷 등 간접적인 혼수, 그리고 결혼첫날부터 시작되는 결혼이라는 어렵고 긴 통과의례인데 이중 가장 중요한 설명축은 신부값이

라고 할 수 있다(Sharon Bastug&Nuran Hortacsu, 2000).

신부값은 여성을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여성의 가정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개념이라고 한다. 신부값으로 받은 돈은 혼수의 형태로 시집에 갈 때 가져가서 결국 남편가정에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신랑이나 신랑 아버지쪽에서는 신부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기 위해 신랑이 어렸을때부터 그 돈을 모아서 지불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 또한 낮은 지위를 부여받던 딸이나 자매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여성, 며느리, 어머니라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결혼식과 결혼제도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처럼 어려운 결혼생활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의해 판단되며 따라서 이 역할을 잘 수행해 내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다른 무엇보다 신부의 재생산 역할을 보상하는 시스템을 수용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르크멘사회에서 아버지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신부값을 치를 수 있는 소수의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여성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버지와 부계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부계중심, 문중중심의 사회문화가 지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계혈통이 강한 투르크멘사회의 여성의 위상을 결정하는 핵심축은 신부값이며, 신부값과 혼수, 결혼제도에 대한 성찰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나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신부값에 대한 요구는 강하게 지지되는 편이다. 현재의 변화양상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터키 문화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1995년도 수도(Ashkabad)에서 시행한 조사의 경우, 신부값은 대중들, 특히 여성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한다(Sharon Bastug & Nuran Hortacsu,2000). 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9%가 그들이 결혼할 때 신부값을 받았으며, 여성응답자의 64%는 그들의 딸이 결혼하면 신부값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으며, 남성은 34%가 반대했다. 70%의 여성은 아들이 결혼할 때 신부값을 지불할 것이라고 했으며 남성은 50%가 반대했다. 이러한 대중들의 높은 지지는 신부값이 이러한 시스템과 문화가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산상속도 남성만 대상이 되며 딸들은 제외되고 며느리는 집안의 가재도구들을 물려받게 되어 있어, 성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2) 여성 빈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0.1%(2003년)이며 국가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가 1998년 29.9%로, 매년 국가통계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변화양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오일머니에도 불구하고 심한 빈부 격차로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이 1/3에 달한다는 점, 통상적으로 여성, 어린이가 빈곤의 주 대상이라는 점에서 영양결핍, 질병 등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열악한 출산환경과 여성 건강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교육, 건강부문의 복지예산을 삭감하여 서비스 수준을 후퇴시켰으며 특히 의료복지시설을 수도중심으로 축소하여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열악해졌다. 2008년 새 대통령의 선출로 교육, 의료, 복지서비스 부문의 개혁을 단행하여 농촌으로 보내는 의사를 할당하고 있다. 조혼으로 인해 많은 아이를 출산하고 있으나 전문의료진에 의한 출산율이 낮다는 점은 높은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감축으로 농촌지역의 의료진이나 의료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의료환경에서 여성들의 낙태, 출산과 관련하여 건강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은 이러한 부실한 의료수준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하겠다. 여성은 친정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제도와 남아출산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하지만 이는 매우 지난한 과정으로 보인다. 부족한 의료시설의 확충, 의료기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 의료기술진, 피임약의 보급 등 설비부분과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가족계획과 출산결정에 대한 권리,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피임에 대한 지식, 위생과 건강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이 요청된다.

4) 높은 영아사망률, 유아사망률, 영양결핍, 질병

영아사망률은 해마다 약간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2006년 출생 천명 당 50명

으로 높은 수준이며, 5세 이하 유아사망률 역시 천명당 73명으로 매우 높다. 영양결핍인구가 전체의 14%나 되며, 특히 5세이하 유아의 영양결핍률은 23.5%나 달한다. 영양결핍은 결핵과도 일정정도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핵발생률은 2006년도에 인구 10만명당 139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난 추세이다. 결핵발견율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결핵발생률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영양이나 위생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협력사업

1) 현재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의 협력사업 현황

1992년 2월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으며, 2007년 6월에 주 투르크메니스탄 상주대사관을 개설, 2008년 1월에 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 개관식을 가졌다. 양국간 수출입 현황을 보면 2006년 현재 596.9만불이며, 수입은 179만불 규모이며, 수출품목은 담배, 차량타이어, 세탁기, 백신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져, 투자요건이 호전되면 에너지부문과 소비재부문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지지만 현재는 제3국의 달러를 이용하여 수도인 아쉬하비드에 우리나라 기업이 지사를 개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경향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원조를 하고 있다. 대외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통한 유상원조인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통한 무상원조는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총 143천불을 지원하였다. 무상원조 내용을 보면 1995년-1996년 기간에는 컴퓨터, 전화기, 프린트 등의 물자를 106천불 지원하였다. 인적지원에 있어서는 한국어 연수 및 경제개발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연수생 14명을 초청하였으며 전부 남성으로 여성연수생은 한명도 없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 2007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08년도에도 지원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주요 국가별 투자를 보면 영국은 해상유전의 석유 채굴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건설, 러시아는 유전탐사, 무선호출서비스에, 미국은 해상유전 채굴사업, 인터넷사업, 미국-투르크메니스탄 직통 전화구축사업, 유전탐사사업에, 독일은 유전탐사, 천연가스 처리공장사업에, 중국은 디젤기관차열차 및 설비도입, 유정수리 및 굴착사업, 유전 증산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강명구, 2006).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각종 투자유인정책을 실시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업, 건축업 및 건축자재산업 등의 산업부문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강명구, 2006).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국가들은 지나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진출을 바라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 미국의 3국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강대국이라는 점에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재호, 2006). 따라서 정치적인 측면보다 순수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진출은 유럽 및 중동지역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재호, 2006).

2) 국제기구 및 선진국가와 투르크메니스탄의 여성관련 협력사업 현황

가) UNDP 협력사업

UNDP와 협력사업으로 2005-2006년에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성 주류화 지원사업’을 수행했으며 사업내용은 젠더이슈와 성차별에 대한 대중인식 바로잡기, 양성평등에 대한 국가의 노력증진, 의사결정 및 권력에 있어서 젊은 여성의 참여 유도, CEDAW의 준수여부 모니터링, 여성의 대중미디어 대표성, 고등교육과 교사양성, 건강복지부문 고용 등의 캠페인, 대중에게 젠더이슈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양성평등한 입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에 성평등 관련 법·제도를 도

입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보인다. 또 5년에 걸친(2005-2009년) 장기사업으로 HIV/AIDS 예방사업이 있다.

〈표 3-37〉 투르크메니스탄과 UNDP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분야	협력기관	총예산	내용
1	Support to Gender Mainstreaming in Policy Making in Turkmenistan	'05. 4 - '06. 12	민주적 정부	Women's Union of Turkmenistan, British Embassy in Turkmenistan	\$175,085	젠더이슈와 성차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바로잡음. 양성평등에 대한 국가의 노력을 증진시키고 의사결정 및 권력에 있어서 젊은 여성의 참여를 유도함. CEDAW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함. 여성의 대중미디어 대표성, 고등교육 교사 양성, 건강복지 부문 고용 등의 캠페인. 젠더이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함.
2	Gender-based Review of Legislation of Turkmenistan	2007년 1월 - 2007년 12월	민주적 정부 & 양성평등 등	Union of Economists in Turkmenist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Institut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102,566	양성평등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 법적조치와 치안의 연결성을 높임. 공공부문 및 사부문에서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성인지를 반영한 법적 조항 성문화, 경제적 및 성적 평등을 위한 전문적 학교 및 교육센터 운영 촉진
3	HIV/AIDS Prevention in Turkmenistan	2005년 - 2009년	여성건강	Ministry of Health and Medical Industry,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Defence, Ministry of Interior, Women's Union, Youth Organization		HIV/AIDS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HIV/AIDS 검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정보, 서비스를제공. HIV/AIDS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주의를 도모함. 관련부처, 지방정부, 자금지원자의 협력도모. 각종 워크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정부의 해당 질병 컨설팅 역량 향상. 캠페인.

나) ADB(Asian Development Bank)

ADB는 도로이용과 기구의 생활수준 통계조사를 포함한 기술지원 프로젝트에 기금을 조달해 왔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첫째, 진행중인 환경보호시설을 포함한 지역기술지원 프로젝트와 10월에 종료된 여성건강 프로젝트가 있다. 여성건강 프로젝트는 여성과 어린이가 건강지도사(health worker)에게 더 나은 접근법을 제공했으며, 재생산연령 여성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필요한 건강설비를 지원했다. 8월에 완료된 정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The access to justice program)은 시민사회가 정의전달 개선에, 경찰에 대한 공공의 감시강화에, 독립적이고 특화된 고소서비스(prosecution service) 확립에 관여하게 해주었다(www.adb.org/trrkmenistann, a fact sheet, 2008).

다) WB(세계은행)의 소액지원 사업

세계은행은 투르크메니스탄의 5개의 비정부기관에게 주변화되고 소외된 집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액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35,000을 승인했다. 34개 지원서 중 기금평가위원회는 요건에 맞는 5개 사업을 승인했다. 사업은 장애인의 직업훈련,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기본능력 지원, 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과 생활안전 지원사업, 일반시민의 법에 대한 지식 향상, 그리고 취약한 지역에서 온 여성에게 고용과정에서 필요한 젠더교육 사업이다.

그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사업은 “Keyik Okara”으로, 고용과 관련 문제에 대해 젠더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을 증진하려는 사업이다. 취약한 Ashgabat 도시와 Akhal 지방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경쟁과 기업가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줌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업기간 동안 취약한 곳에서 온 150명의 젊은이들에게 고용에 있어 젠더 스트레오 타입, 기업가 정신의 기초, 사업예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을 학습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방법과 광고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있다(World Bank, 2008).

3)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협력사업 제안

투르크메니스탄의 여성문제와 관련한 협력사업은 아직까지 시도된 바가 없으며, 중앙아시아의 은둔국가로 칭해지는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여성관련 협력사업을 탐색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의 국내정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새 대통령 선출이후 외국에 보다 개방적이며 교육, 보건, 정보기술, 사회복지와 같은 영역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우선 교육부문을 보면, 의무교육인 초등, 중등교육의 교육연한을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으며, 수업에서는 투르크어, 영어, 러시아어의 3가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새로운 교과과정이 마련되어 새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교사교육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고, 선발된 교사는 해외연수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부문은 농촌지역에 보다 더 많은 의사를 할당하고 있으며, 특수병원을 짓고 있으나 국가는 숙련된 의료기술자와 자격을 갖춘 의사 충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정보기술부문에서는 국민들이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있다. 사회복지부문에서는 연금과 사회안전 영역 일부가 포함되는 사회개혁법이 2007년 5월 19일 공포되었다. 협력사업은 정부가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대해 단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개혁중인 사업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영역은 교육, 건강, 정보기술, 사회복지(연금, 사회안전)부문이므로 4가지 영역을 염두에 두고 탐색해 보고자 한다.

가) 여성의 건강 및 모자보건 사업 - 여성클리닉센터를 활용한 보건의료요원 (간호사, 산파) 훈련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족을 중시하며 조혼 관습을 가진,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국가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국가는 현재의 출산율에 만족하므로 낙태에 비우호적이며 피임에 대한 지원도 없으며, 주요한 가족계획이 낙태에 대한

의존이라 할 수 있다. 자격증이 없는 의사나 전문설비가 없는 장소에서의 낙태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는 등 낙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지원이 없어 낙태는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인구 대다수가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시설과 의료진은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영아사망을 등 여러 가지 결과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시스템, 부족한 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의사의 부족, 낮은 피임약 보급률 등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여성의 재생산과 관련한 생식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남아출산 여부와 남아출생수로 여성의 위상이 결정되기에 출산이 장려되는 사회에서, 출산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확충과 의료기술진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의료기기 확충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인력육성이 요청된다. 현재 지역기반의 여성클리닉센터에서는 임신에 적합한 시기, 가족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성클리닉을 활용하여 부족한 의료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조산원, 산과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활용으로 피임약 보급, 낙태의 위험성과 위생 등 현재 여성건강에 시급한 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기회요인과 장애요인

새로 출범한 정부는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병원을 분산시키고자 농촌지역에 의사수를 할당하고 특수병원들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의 열악한 의료시설에 주목하여 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별 설치되어 있는 여성클리닉센터, 아동클리닉센터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교육, 세미나, 강의, 상담 등을 통해 확충해 나가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요인으로는 첫째는 외국인이나 외국 NGO 기구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3월 ‘외국인관리청’을 신설, 외국인을 감시하고 장기거주를 규제하는 등 외국의 인권·민주주의 간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외국 NGO기구의 등록과 활동을 금지하고 UN·EU

등 일부 국제기구의 활동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이옥련, 2007). 두 번째로는 전문의료기기와 전문의료인력이 있어야 안전한 출산이나 낙태가 가능할 것이나 의료기구나 인력충원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문적인 조산원교육(산과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 확충과 의료기기를 잘 다루는 전문의료기술교육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 사업의 기대효과

보건생식분야 의료기기 확충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산과 훈련사업으로 인한 간호인력양성은 모성사망율, 영아사망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피임약 보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며, 여성의 가족계획, 생식보건 관련 지식 및 정보 제공으로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나) 여성대상 이용, 미용, 양재, 지압(맛사지) 직업훈련사업 - 여성대상 소규모사업 창업노하우 및 창업역량 교육

(1) 사업의 내용 및 목적

사회문화와 의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가사노동은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무급노동으로 간주되므로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여성자신의 양성평등의식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성 평등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 투르크멘에서 여성들은 옷을 직접 만들거나 양장점을 이용하는 형태이므로 양장, 이용, 미용, 지압(맛사지)훈련은 취업기회를 열어줄 뿐 아니라 소규모 창업도 가능한 업종으로 보인다. 투르크멘의 카펫, 그 중 양털로 짠 카펫은 최상품으로 많은 여성들이 카펫을 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카펫사업 자체가 국가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인은 설립이 불가하여 시장에 소량 내다 팔수만 있으므로 소규모 창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아이টে็ม으로 보인다.

(2) 기회요인과 장애요인

여성의 지위는 여성의 경제활동, 경제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위상변화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역량과 활동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기회요인은 여성들이 직접 옷을 만들어 입고 양장점을 이용하는 형태이므로 수요가 있어 훈련후 창업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장애요인은 여성은 집안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남편과 가사일을 돌보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여성들도 이를 수용하고 내재화하는 문화이므로, 여성이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는 데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개인적 제한과 사회적 한계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3) 사업의 기대효과

어느 나라에서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여성의 낮은 지위를 올려주는 가장 중심적이고 빠른 축으로 작용해 왔다.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여성의 일, 가정양립지원방안들이 논의되었고 여성의 경제력은 낮은 여성의 지위를 지탱해 주던 문화와 관습을 깨고 이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원천이었다. 투르크멘 여성의 낮은 지위도 자신의 친정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결혼을 강요당하고 아들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에 원인이 있는 만큼 여성의 경제력을 가지게 하는 취업훈련은 현재 가족 내에서도 힘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신감, 자기정체성 형성, 양성평등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 줄 든든한 자원이 될 것이다.

다) 여성대상 IT인력 양성훈련 사업

(1) 사업의 내용 및 목적

투르크멘은 인터넷 회선수나 이용률이 아직은 낮은 국가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풀고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여성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지금도 KOICA에는 IT교육생이 초빙되어 훈련을 받고 있다. IT초기에 여성인력을

양성한다면 국가의 인터넷 사업초기부터 중요한 인력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새로운 영역의 직업이 주는 프리미엄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기회요인 및 장애요인

투르크멘의 외국 투자진출사업에서 미국은 MCI와 인터넷 사업을, US Telecommunication과 10개년 통신발전 프로그램 컨설팅 사업을, 러시아 Mobil Telesystem과는 무선 호출기 서비스사업을 독일 Aleatel과는 지방전화국건설 등 통신관련 사업을, 프랑스 Thompson사와는 아쉬하바드 국제공항 관제시스템 건설이 추진중이다. 따라서 투르크멘 사회에서 IT부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인터넷 호스트는 97(worldfact, CIS, 2007년)개, 인터넷 이용자는 64,800(worldfact, CIS, 2006년)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인터넷 등 통신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 중이므로 정부 관심에 부응하여 통신부분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한-투르메니스탄간 교류는 앞으로 더 활발해지겠지만, 이제까지 있었던 훈련초빙대상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여성은 한명도 없다. 여성이 없는 이유는 교류지원영역이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중심으로 이루어다보니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에서 여성이 배제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2006년 미 하원 인권문제 국제관계 소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온라인 자유법’안에서 쿠바,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12개국을 매년 검토가 필요한 감시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있어(이옥련, 2007), IT분야 발전이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3) 사업의 기대효과

IT분야는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성별 진입장벽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투르크멘에서는 임금수준, 승진기회 등 언제나 새로운 직업분야종사에 따른 프리미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들도 IT분야에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양성교육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제력 강화는 여성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 한국어 교육 및 현지인 강사양성 사업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투르크메니스탄 아자디 국립 세계언어대학교(Azadi Turkmen National Institute of World Language)에 2008년 9월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10명의 신입생이 모집되었으며, 김익환 교수가 새로 신설된 한국어과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고려인협회도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류 영향 등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지인의 한국어교육 강사양성사업도 일자리 창출과 양국문화 교류에 기여할 것이다

(2) 기회요인과 장애요인

세계언어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는 점은 양국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좋은 기회로 보여진다.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이 없이는 이러한 사업진출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과 관련하여 같이 일할 정부조직이나 기구가 없다는 점으로 인해 여성관련 협력사업을 위한 파트너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3) 사업의 기대효과

교류협력에서 언어는 매우 중요하며, 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는 점은 국가와 공식적인 협력사업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협력관계 형성에 일조할 것이며, 다른 사업을 위한 교두보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타지키스탄

가. 개요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은 동으로는 중국, 북으로는 키르키스탄, 남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북서로는 우즈베키스탄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산악 내륙국가로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0.6배인 14만 3100km²로 7,211,884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64.9%가 타지크인이며, 25%가 우즈베크인, 3.5%가 러시아인, 6.6%가 기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는 인구의 90%가 이슬람교(수니파 85%, 시아파 5%)를 믿고 있으며, 10% 가량이 러시아 정교 등 기타 종교를 가지고 있다. 타직어와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어가 공용언어이다.

현재 타지키스탄의 정부 형태는 임기 7년의 대통령 중심제로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상원 33석, 하원 63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정당으로는 인민민주당, 공산당, 이슬람 부흥당 등이 있다. 1991년 9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타지키스탄은 1992년-1997년간의 내전 이후 라흐마노프 대통령 등 남부지역 출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2003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2020년까지 라흐마노프 대통령의 임기를 확보한 상황이지만, 구소련시절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북부 후잔드 지방 출신들이 배제되고, 남부 출신의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간 갈등 및 정치사회적 불안정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정치상황을 보이고 있다. 인구의 60%가 절대빈곤인구로서 구소련 독립연합국가중 최대 빈국으로 많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의 빈곤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타지키스탄의 경제 상황은 불균등한 구조개혁, 취약한 거버넌스, 높은 실업률, 고위 외채로 인하여 매우 취약하다. 인구 7백만의 1인당 소득이 US\$410(2007)의 저임금 최빈국에 속한다. 우리나라와는 1992년4월27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 인구

타지키스탄의 인구는 2008년 7월 현재 7,211,884명으로 남성 0.99명당 여성 1명의 인구 성비를 보이고 있다. 인구 증가율은 2008년 기준으로 1.897%로 출생률은 1,000명당 27.18명(여성 1인당 3.04명), 사망률은 1,000명당 6.94명이며, 기대수명은 남성 61.95세, 여성 68.15세로 평균 64.97세이다. 타지키스탄의 주요 인종은 타지크인이며, 소수의 우즈베크인과 러시아인이 거주하고는 있지만 인접국으로 점차 이주해감에 따라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각한 빈곤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98% 이상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대부분이 타지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 및 국제 무역 공식문건은 러시아어를 토대로 하고 있다.

2) 경제

타지키스탄은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지대인 내륙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교통 및 통신 등 각종 인프라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2006년 1인당 GDP는 400불 남짓한 수준의 최빈국으로서 인구의 약 2/3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력의 1/3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경제 빈곤 상태는 5년간의 내전과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산업 기반시설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마약밀매와 관련된 부패 및 조직범죄도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이재영·신현준, 2007: 60-61). 타지크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공공시설 복원 및 빈곤타파’로서 IMF와의 협조하에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다.

수출은 알루미늄, 목화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총 수입량의 80%를 CIS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반면 총 수출량의 65%를 비 CIS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주요수입품목은 전기, 석유제품, 천연가스이며 주요 교역대상국은 유럽(수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수입)이다. 주요 농산품은 면화이며, 지하자원으로는 은, 금, 우라늄 텅스텐 등이 있다. 주요 산업분야는 알루미늄 생산 및 수력자원 개발이며 이밖에도 경공업과 식품처리 산업이 있으나 시설이 매우

낙후된 상황이다. 러시아 거주 타지크 교민들의 해외 송금과 해외로부터의 원조, 경제 규제완화 및 정치적 안정 등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7.6%(2005년 8%, 2006년 7%, 2007년 7.8%)의 GDP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의 2/3 가까이가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불균등한 구조 개혁, 부패, 열악한 거버넌스, 실업 등이 타지키스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주요 경제지표는 아래와 같다.

〈표 3-38〉 주요경제지표 - 타지키스탄

GDP 성장률	7.8% (2007년 기준)
1인당 국민 소득	\$1,800 (2007년 기준)
GDP 소득 분야 (2007년 기준)	농업: 23.4 % / 산업: 30.4% / 서비스: 46.1 %
노동인구	210 만 명
노동인구의 직업별 비율	농업- 67.2%, 산업- 7.5%, 서비스 25.3% (2000년 기준)
15세에서 75세 사이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 - 77.8 % / 여성 - 55.4 %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 비율	60% (2007년 기준)
지니계수 (Gini index)	32.6 (2003년 기준)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비율	13.2% (2007년 기준)
국가 예산 (2007년 기준)	수입 - \$ 700 백만 / 지출 - \$673 백만

자료: CIA World Fact Book(2008).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ti.html>

한편 지속적인 GDP 성장과는 달리 고용시장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1999년 현재 공식 등록된 일자리 수는 1만8천개였으나 이 수치는 2002년에 1만 7천5백 개로 감소하였고, 이런 노동시장의 위축은 해외 이주 노동자의 증가, 비공식부문의 노동자 양산, 그리고 취업 포기자 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2002년 현재 타지키스탄의 해외 이주 노동자의 수는 약 500,000명으로, 이들이 2002년 한해 동안 본국에 송금한 금액은 7천8백3십만 달러로, 타지키스탄의 경제성장에 주요 기반이 되고 있다(ADB, 2006: 33).

구소련 당시만 해도 타지키스탄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직장 내 보육 시설 제공 등의 지원을 보장했었다. 하지만, 구소련 붕괴이후 대전환기를 맞으

면서 타지키스탄의 여성들은 점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시작했고, 여성들이 비공식부문으로 밀려나게 되어 경제적 지위가 크게 하락하게 되었다. 동시에 여성들에게 투자하는 고등 교육 혜택의 기회가 줄어들고, 교육 및 보건과 같은 여성들이 주로 담당했던 고용 영역이 정부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위축되면서 여성들은 단순 노무직이나 무임금 가사노동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77%인데 비해 남성은 63%이며, 산업분야의 고용시장 악화로 농업분야에 흡수된 노동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다. 아래의 표는 보건, 교육, 농업과 같은 최하임금 직업집단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9〉 직업분야와 젠더에 따른 고용비율 (1999년/2003년) - 타지키스탄
(단위: %)

분야	1999			2003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군사	0.8	1.4	0.0	0.4	0.7	0.0
입법, 고위 관부 및 관리직	1.2	1.6	0.6	0.9	1.4	0.3
전문직	5.9	8.0	5.0	10.9	12.3	8.9
기술직	2.6	2.7	2.3	2.2	1.9	2.6
종업원	9.3	9.2	9.4	0.7	0.4	1.0
서비스 및 판매	5.9	6.6	4.7	8.1	9.2	6.6
기술농업직	11.0	11.3	10.6	1.2	1.6	0.6
수공업 및 무역	1.6	2.5	0.2	4.5	5.6	2.9
설비 및 장비	3.2	4.9	0.6	2.3	3.9	0.1
단순직	42.8	37.9	50.3	68.8	62.9	76.9
기타	10.4	9.9	10.9	0.0	0.0	0.0

자료: ADB(2006, 36)

위의 표에서 여성의 비율이 입법, 고위 관부 및 관리직의 경우 1999년의 0.6%에서 2003년에는 0.3%로, 전문농업직의 경우는 1999년의 10.6%에서 2003년의 0.6%로 크게 하락한 반면 단순직의 여성 비율은 1999년의 50.3%에서 2003년의 76.9%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밖에 2003년 현재 여

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의 46%에 불과하여 임금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05: 16).

3) 교육

타지키스탄에서는 7세에서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취학률은 전통적으로 매우 높은 편인데 1989년 당시도 취학률이 94.3%에 달했고, 90년대 내전을 치른 2003년 예도 취학연령 아동 중 88.4%가 학교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1년 GDP의 11%에 달하던 교육관련 정부 예산은 1999년에 2.1%로 급감하였고, 지난 2003년에는 2.4%로 소폭 증가하였다. 교육예산 중에서는 초등교육과 일반 2차 교육에 대한 예산비율이 1992년 44%에서 2003년 75%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초등 및 일반 2차 교육 개선을 정부 주요 목표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교육예산의 80%가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및 교육 질의 담보가 지역의 예산사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한계를 안고 있다.

유치원교육(preschool education)이 특히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유치원 교육을 받는 아동의 수가 1991년과 2001년 사이에 59%나 감소하였다. 이는 정부가 유치원 교육 예산을 없애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조달할 수 없어, 시설들이 없어지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상황은 농촌지역이 특히 심각한데, 농촌지역의 1세에서 6세 아동 중 유치원 교육을 받은 아동 비율은 2001년 현재 1.2%에 불과하다. 도시지역은 19.6%로 높은 편이다. 이런 결과는 궁극적으로 여성들에게 육아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고립을 이끄는 결과를 낳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취학연령은 7세이며, 기초교육(primary education)을 통해 1~4학년, 일반 2차 교육(general secondary education)에서 5~9학년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일반 2차 교육이 끝나면 10~11학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이후 3차 교육 및 대학 교육을 받게 된다. 기술 직업교육은 9학년 이후 혹은 11

학년 이후 가능한데 9학년 이후 과정은 3~4년 과정이며, 11학년 이후는 2년 과정이다. 취학아동의 성별 차이는 기초교육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10~11학년 과정에 들어오면 여학생의 수가 현저히 떨어짐을 볼 수 있다. 2001년 현재 11학년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은 36.7%인 반면 남학생의 비율은 63.3%에 달하고 있다. 11학년 이후 과정에서도 여학생의 비율은 매우 낮는데, 팔목할만한 특징은 이들 여학생들의 대다수가 보건, 육아, 교육과 같은 분야를 전공으로 택하고 있어, 농업분야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40〉 고등 2차 전문 교육 참여 여학생 비율 (교육 분야별) - 타지키스탄
(단위: %)

교육 분야	1991-1992	2003-2004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Institution)	34	25
· 산업	12	17
· 농업	7	10
· 경제	19	20
· 보건, 문화, 스포츠	29	27
· 교육, 예술, 영화	42	36
2차 전문교육기관 (Secondary Professional Institution)	44	53
· 산업, 건설	19	14
· 농업	5	7
· 교육	30	24
· 보건, 문화, 스포츠	75	67
· 교육, 예술, 영화	60	70

자료: ADB(2006, 64)

타지키스탄 정부의 교육 방침이 의무교육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비의무교육 분야의 성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교육 혜택 수혜 여부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취업, 경제적 지위 등 장기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건강

구소련 해체 이전의 타지키스탄의 의료 및 건강 시설들은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사업장 및 학교에 의료시설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대다수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독립이후 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1991년 당시 국민 기대수명이 70.1세(남성 67.3세/ 여성 72.9세)였던 것이, 2002년에는 68.6세 (남성 66세/ 여성 71.3세)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런 결과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정부의 건강관련 분야의 예산삭감이 언급되고 있다. 사실 타지키스탄의 공중보건 분야의 예산은 1990년 당시 국가 GDP의 4.8%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에는 0.9%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5%보다 낮은 수치이다. 2001년 국민 1인당 공중 보건 예산은 \$1.6로 1990년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열악해져 성 평등 지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ADB, 2006).

여성과 아동의 높은 사망률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이들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정도와 높은 연관이 있다. 모성사망률은 1995년에는 100,000명당 98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50.6명으로 그 수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역별 차이가 커 특정 지역에서는 100,000명당 1,075명인 경우도 있다. 산모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의사 부재로 인해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1990년에만 해도 가정 출산은 10%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40%이상, 지역에 따라서는 80% 이상까지도 병원을 찾지 않고 가정에서 분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사망률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사망한 영아 중 48%가 출산 전 태아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산모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GRT and UNDP, 2003).

가족계획 및 피임에 대한 정보 부족도 여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약 37% 가량이 출산 후 재임신 기간이 2년 미만이며 1년에 2회 출산하는 여성의 비율이 5.7%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지원 및 원조를 받아 프로그램과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15-49세의 가임 여성에 대한 피임 사용정도는 1994년 이후 3배로 증가하였지만, 2003년 현재 20%에 불과해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낙태가 매우 일반적인 피임의 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데 2003년 현재 1,000명의 태아 중 88.5명이 낙태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한 낙태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0대 여성의 사망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ADB, 2006).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민 건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빈곤 여성과 아동 보건 지원을 포함한 국가 보건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분야 개혁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는데 그 후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이 함께하면서 의료 기반 시설 및 보건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에이즈, 여성 및 아동 건강과 같은 특정분야에 초점을 맞춘 보건관련 계획도 발표하였는데, 1997년 에이즈에 대한 다자간 국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에이즈 확산을 막고, 2002년에는 청소년, 마약 중독자, 성 매매자, 이주자, 군인과 같은 위험 그룹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전략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편 2004년에는 여성과 아동 건강에 주안점을 둔 생식 건강 전략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나. 여성현황 및 성평등 관련 제도

1) 여성 대표성

가) 국회의원 성별비율

타지키스탄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중심 국가 체제이다. 의회 형태는 양원제로 상원의원 33석 하원의원 63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4분의 3은 국민 대표단에 의해 선출되며, 4분의 1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정부 내각의 주요 인사로는 정부위원장(Chairman of Government), 국무총리, 그리고 각 정부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련붕괴 이전에는 모든 정부 기관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여, 적어도 정당 위원회에 1인 이상은 여성이어

야 하며 최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여성이 임명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런 할당제를 기반으로 1989년도에는 정부 내 고직위의 26%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독립 후 할당제가 폐지되면서 국민 대표회의 여성 비율이 3.9% (230명중 9명)로 급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은 그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하원의원으로 11명의 여성이 당선되어 전 의석의 18%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상원의 경우 12.1%, 지방의회에도 11.5%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여성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다(ADB, 2006).

〈표 3-41〉 정당별 여성 의석 비율 - 타지키스탄

정당	전체 의원	정당내 여성비율
Democratic Party of Tajikistan	19명	5%
Islamic Revival Party	15명	20%
Communist Party	20명	10%
People's Democratic Party	21명	32%
Socialist Party	18명	11%
Adolatkohkh	15명	7%
Total	108명	11%

자료: CEDAW(2005)

나) 사법기관 공무원 성별 비율

2004년 현재 국가 사법기관의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판사 중 여성 비율은 18.6%로 51명에 달하며, 헌법재판소는 12.7%로 1명, 헌법재판소 위원장에 0%, 대법원에는 17.5%로 7명, 대법원 위원장에 0%, 고등경제법원은 36%로 나타나고 있다(CEDAW 2005, pp.15-21).

다) 고위행정직 중 여성 비율

국가 고위행정직 중 여성 비율은 2003년 4월 1일 현재 최고 간부(Chief Executive)에 0%, 제1위원(First Deputy)에 4%, 일반위원(Deputy)에는 11.1%,

행정 최고직(Administration Chief)에 8.8%, 부 행정 최고직 (Deputy Administration Chief)에는 11.2%, 부서장 (Division Head)에 9.4%, 부 부서장 (Deputy Division Head)에 4.9%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여성의 참여 비율이 양호한 편이다. 지방 정부의 경우 2003년 4월 1일 현재 주지사(Oblast Chairperson) 중 여성 비율은 0%, 부 주지사 (Deputy Oblast Chairperson)중 여성은 4명으로 18%, 시장(City and Rayon Chairperson)은 9%로 7명에 달하며, 제1부시장(City and Rayon First Deputy Chairperson)은 6명으로 9%, 부 시장(City and Rayon Deputy Chairperson)은 60명으로 34%에 달하고 있다 (CEDAW, 2005: 15-21).

〈표 3-42〉 공무원 중 여성비율 - 타지키스탄

(단위: %)

지위	2000년 5월		2005년 4월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장관	93.2	6.8	100.0	..
차관	100.0	..	96.0	4.0
차관보	90.7	9.3	88.9	11.1
국장	86.9	13.1	91.2	8.8
부국장	70.9	29.1	88.9	11.2
서기관(급)	70.8	29.2	90.6	9.4
사무관(급)	60.3	39.7	95.1	4.9

자료: CEDAW(2005)

2) 여성관련 법 및 정책

가) 양성평등 관련

타지키스탄 정부는 여성 관련법과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자신들이 비준한 국제사회의 협약과 정책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국가 헌법 제 10항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국제협약은 타지키스탄 정부의 법제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만약 정부의 법이 국제협약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국제협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헌법상의

의무조항에 의거하여 타지키스탄의 여성관련 정책과 법이 집행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1995년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CEDAW)을 비롯한 11개의 국제협약을 비준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이후 타지키스탄은 성 평등 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취해왔다. 여성 건강과 교육 기회 확대 및 경제적·법적 지위향상, 모든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 평등 보장, 여성 폭력 근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1998-2005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타지키스탄의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for Enhancing the Status and Role of Women for the Period 1998-2005)”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보건 정책상 그리고 가족계획 및 생식권 관련 국가 수준의 대책 개발을 위해 “공중 생식 보건을 위한 타지키스탄 정부의 전략계획(2014년까지)(The Strategic Plan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for the Reproductive Health of the Public for the Period up to 2014)”을 2004년에 채택하였다. 이밖에도 노동법, 국가사회보장법, 보건법, 생식건강과 생식권 법 등과 같은 기타 일반 법률을 통해서도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해왔다.

나) 여성인권 관련

타지키스탄은 1991년 여성 빈곤과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과 가족 위원회(Committee on Women and the Family)’를 설립하고, 여성 빈곤 퇴치를 위한 입법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국회 하원의회 소속의 “가족, 건강, 사회적 보장과 환경위원회(Committee on the Family, Health Care, social Protection and the Environment)”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노동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는 젠더문제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uncil on Gender Problems)를 열어 여성의 취업과 생계 보장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여성폭력 관련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인권보호와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을 헌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형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여성 차별적

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는데 크게 강간(138항), 성추행(139항), 강제성행위(140항), 16세 이하 대상과 성 접촉 혹은 성행위를 하는 행위(141항), 성폭행(142항), 3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을 합당한 이유 없이 해고 혹은 고용거부(155항)로 명시하고 있다.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해 현재 타지키스탄 정부는 “2001-2010년도 타지키스탄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기회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정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 State policy to ensure equal rights and equal opportunities for men and women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for the period 2001-2010)”을 통해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한 ‘국립 분석 센터 (National Analytical Centre)’를 설립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세미나 및 회의 조직, 여성폭력근절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법기관의 여성 폭력관련 교육 실시 등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인신매매 및 성매매 근절의 노력도 보이고 있다. 내전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여성의 빈곤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성매매가 증가하게 되고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단속하기 시작했다. 형법 제 238항은 강요, 위협, 당사자의 취약성, 재산상의 손해 및 파괴, 위협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시키는 행위는 월급의 500-1,000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하거나 3년 구금 혹은 2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The Convention for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in 2001에 의거한 조치이다. 2002년 현재 26건이 조사 대상이었으며, 2003년에는 46건으로 증가하였다(CEDAW, 2005).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 여성과 알선업자는 처벌 대상이지만, 구매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강간 등과 같은 여성 폭력 관련법에도 저촉을 받고 있다.

3) 여성 관련 기구 및 조직

가) 국가기구

타지키스탄의 주요 여성관련 정부 기구로는 여성발전국(Women in Development Bureau, WID)이 있다. 이 기구는 1995년에 설립된 준정부 기구로 타지키스탄의 시장경제로의 변화과정에서 여성의 이해를 돕고, 여성 시민단체 및 여성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지역기구와 국제기구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WID 프로젝트는 UNDP 지원으로 1996년 1월부터 실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의 건강과 법적 권리에 관한 정보 배포 및 교육을 포함하는 훈련 및 사회 활동, 젠더/여성 계획의 정책적 정치적 지원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소련 시절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Committee on Women and the Family, CWF)’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정부 위원회로 제도권 안에서 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및 법률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직이다.

나) 여성단체

학계 및 시민단체 영역으로는 2000년 현재 약 54개의 여성관련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데, 이들의 활동이 실질적인 사회변화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표적인 기관과 주요 역할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3〉 주요 여성관련 단체 및 활동 - 타지키스탄

단체명	활동
Union of Women of Tajikistan	여성의 권리 보장, 중앙 조정역할
Simo	생식권과 환경에 대한 교육, 여성 고용 촉진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여성의 권리 보장
Club "women's Initiative"	모자가정 지원
Komila	여성 권리, 교육, 생식 건강 관련
Women of Science of Tajikistan	여성권리 보호와 여성 폭력 방지 관련
Dignity and Charity	법적 권리 관련
"Ona"	여성 권리와 여성 정치 참여 관련
Traditions and Modernity	젠더 연구 및 훈련, 여성 권리 보호
"Modar"	인권, 정치참여 권장
"Opean Asia"	젠더이슈에 대한 연구, 여성폭력방지 관련

자료: ADB(2000, 31)

다. 젠더이슈

타지키스탄은 이슬람 국교체제하의 젠더 정체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남성 우위의 문화가 만연해 있다. 오늘날까지도 전통적인 이상적 여성상은 남편이나 부모에게 순종적이고 가정적인 여성으로, 여성들은 성장과정에서부터 이러한 태도를 갖도록 강요받는다. 일례로 여성들은 남성의 동행없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은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외출 시에는 항상 머리에 스카프를 써서 가족 아닌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해왔으나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머리에 두건만 두르기도 한다. 최근까지도 현지인 가정에 외국 손님이 방문하였을 때 남편은 손님에게 아내를 보여주기를 꺼려한다고 한다(장종순, 2008).

타지키스탄은 1929년 구소련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하나가 되었으며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1991년 9월에 독립하였다. 독립 이후로도 전통적인 여성 정체성이 존속하는데 그 이유로는 (1)여성들은 종교 및 관습상의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이상적인 타적 여성의 정체성을 강요받았으며 (2) 여성들이 사회에 허용되는 스스로의 이미지 보존을 위해, 혹은 주변인들로부터 공격받지

않기 위해 전통적 이미지로 위장하기로 선택한 결과 (3) 구소련체제는 타지키스탄 남성들이 (표면적으로) 약하고 무기력하게끔 하고자 시도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전통적인 성 정체성 보존을 강화 (4) 취약한 사회·경제적 개발 상황은 타지키스탄의 문화적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현대의 타지키스탄 여성의 '이상적'인 성 정체성은 사회 혹은 남성에 의해서만 강요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여성이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높은 자부심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분석되기도 한다 (Colette Harris, 2000).

1991년 소비에트 연합의 해체 이후로 나타난 타지키스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장기간에 걸친 내전은 심각한 식량부족난과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내전 중 살인과 강도, 그리고 유괴, 강간사태는 더욱 증가하였고, 젊은 남성과 여성 간의 성비 불균형을 가져와 일부다처제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여성들을 보건, 교육, 고용 기회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빈곤으로 인해 혹은 딸의 성폭행 혹은 자유연애로 인해 혼전에 순결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 조기결혼이 일반화되기도 하였다.

구소련 독립이후 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지역의 소녀들의 경우가 그렇다. 비싼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딸들은 중등교육을 마치자마자 결혼을 시키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하는 젊은 여성의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높은 출산율을 부모의 재산과 위신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겨 가구당 자녀 수는 평균 5-7명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 유엔기구(특히 UNFPA)의 홍보로 도시와 농촌의 젊은 부부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양식의 변화를 위해 대가족을 선호하기 보다는 자녀수를 제한하려고 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쟁으로 인한 남편의 부재 혹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남편을 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이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한 부모 가정이 되고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타직여성들은 공적생활 영역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환경 또한 여성들의 의사결정직 진출에 의호적이지 못하다. 타직사회가 남성중심 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여성운동의 발전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화의 과도기에 처해 있는 실정에서 보면 여성 스스로가 공적영역에의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자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나, 남성과 남성 중심의 타직 사회와 협상한다면 향후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본다.

라. 협력사업

1) 현재 타지키스탄과 한국의 협력사업 현황

타지키스탄과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주요품목은 일반기계, 섬유사, 화학제품으로서 2005년 현재 12,740불로 전년도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의 투자진출은 2005년말 현재 2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외교통상부, 2007a: 14).

알루미늄, 면화, 금, 은, 석탄, 우라늄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우리나라와 자원분야의 협력 가능성이 높고,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지대여서 운송 및 물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이다. 높은 인구성장률로 인해 국가차원에서 이주와 고용이 현안문제로 대두된다. 총체적인 우선과제로서 국가발전전략과 빈곤감소전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유엔 및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처음으로 2015 국가발전 전략과 부속문서로 2007-2009빈곤감소전략을 마련하였다. 이 전략은 국가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과 시민사회 형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명시하고 있다. 2005년에 타지키스탄과 한국 양국간 통상경제협력과 유망협력분야에 대한 논의를 거쳐 통상경제협력 협정안 검토가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양국간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 서명에 기반한 한-타지키스탄 합작회사들이 10개 이상이다. 섬유원료 가공 '타직-카불-텍스타일즈'사와 마르카지TV 탁히신 치칼롭스트, 태봉선라이즈 면화가공 및 이차폐기물 가공회사, 바르크 김

간 사가 있다(외교통상부, 2007b: 107-112). 우리나라와 타지키스탄간의 경제 교류는 최근에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2) 국제기구 및 선진국가와 타지키스탄의 여성관련 협력사업 현황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걸쳐 이루어진 UNDP 주관의 협력사업으로 여성센터 재건 및 물자제공, 여성센터 내 공예학교 및 사회교육센터 설립, 여성단체 강화, 여성 컴퓨터훈련, 수공예 수입창출지원 사업 등이 제공되었으나, 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지원으로 진행되었다. EU 주관의 협력사업에는 교육, 여성리더 양성, 가정폭력 방지, 정보기술 교육 등이 시행되었다.

〈표 3-44〉 타지키스탄과 UNDP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번호	사업명	사업집행기간	총예산
1	Strengthening of women center and support to sewing workshop "Zuhal"	1999. 8. - 1999년 10월	\$16,196
2	Procurement and manufacture of wedding dresses for newly married brides	1998년 11월 - 1999년 1월	\$4,600
3	Rehabilitation, provision of equipment and furniture to women center	1997년6월-1998년3월	\$12,211
4	Rehabilitation of social center	1997년 6월 - 1997년 9월	\$15,900
5	Establishment of women social and educational center, establishment of art and craft school under women center	1997년 8월 - 1999년 12월	\$7,201
6	Seminarongenderissuesunderwomencenter	1999년 5월 - 1999년 10월	\$1,050
7	Establishment of women social and educational center		\$19,777
8	Rehabilitation of women center, provision of equipment and furniture	1997년 9월 - 1997년 12월	\$13,350
9	Rehabilitation of women center, provision of equipment and furniture	1997년 12월 - 1999년 6월	\$5,250
10	Strengthening of women organizations	1999년 8월 - 2000년 2월	\$17,250
11	Sustainable women computer skills training	1999년 6월 - 1999년 11월	\$6,630
12	Supporting traditional handicraft for income		\$700
13	Women counseling services	1999년 7월 - 1999년 11월	\$4,170

〈표 3-45〉 타지키스탄과 EU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번호	사업명	사업 승인시기	지원 형태	분야	수혜기관	총예산
1	"Education for each girl"	2006년 8월	보조금	여성, 인권	NGO Charitable centre of support of children "Munis"	100,000 €
2	"The way from a woman-leader to a woman-deputy in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06년 9월	보조금	여성, 인권	Public Association "Jahon"	85,644 €
3	Establishment of the collective potential for family violence resistance	2006년 10월	보조금	여성, 인권	NGO Association of women scientists of Tajikistan	46,132 €
4	"Access of women to the information"	2006년 11월	보조금	여성, 인권	NGO Group of initiative volunteers ACCENT	91,299 €

타지키스탄과에 왕성한 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는 선진국가로는 스웨덴과 캐나다를 들 수 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개발협력사업 중 성평등(gender equality)부분은 주로 빈곤퇴치와 관련되어 있다. 여성문제는 곧 인권향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발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축진에 관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특히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 협력사업 지원 금액을 보면 카자흐스탄에는 한화 약 7억 1천만원, 키르기스스탄에는 한화 약 79억원, 타지키스탄에는 한화 약 156억원, 우즈베키스탄에는 한화 약 8억 8천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다. 2009년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는 200만 크로나(한화 약 326억원)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지키스탄에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은 주로 농촌지역개발, 건강 및 복지 영역이다.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해 토지개간, 종자배포 등의 사업을 UNDP, FAO 등과 함께 하고 있으며 NGO와 협력하여 공중보건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에는 여성 지

위력 향상, 여성가장의 생활력 지원을 위해 성평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홈페이지, 2008).

캐나다의 국제개발청(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에서는 여성 생계 유지 및 식품 안전에 대하여 \$1,987,000의 예산으로 2006-2008년에 걸쳐 3년간 시행되고 있다(캐나다 국제개발청 홈페이지, 2008).

〈표 3-46〉 타지키스탄과 스웨덴의 협력사업(젠더이슈 관련)

영역	지원금액(SEK)	한화(원)
건강	24,840,000	약 40억 4천 8백만원
교육	460,000	약 7천 498만원
연구	0	0
민주적 정부, 인권신장	21,563,000	약 35억 1400만원
안전보장, 평화유지	1,679,000	약 2천 7백만원
인도주의적 구제	3,976,000	약 6억 4천8백만원
인프라 구축	0	0
무역, 산업, 재정시스템	2,897,000	약 4억 7천2백만원
천연자원 및 환경	37,256,000	약 60억원
기타	3,259,000	약 5억 3천만원
합계	95,930,000	약 156억 3천 6백만원

자료: SIDA 연간보고서(2007),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타지키스탄은 구소련 독립 이후 경제정치, 사회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인구의 2/3가 빈곤상태인 최빈국으로 특히 여성과 아동의 빈곤상태가 심각하다. 산업기반의 붕괴로 인한 고용시장의 악화는 교육, 보건 등 여성이 담당했던 고용영역이 없어지면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급격하게 하락, 여성들은 단순 노무직이나 무임금 가사노동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의료 및 건강상태의 악화 또한 성 평등 지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와 ODA를 통한 지원을 통하여 실천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한국과 타지키스탄의 협력사업 제안

가) 여성보건 증진 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많은 여성들이 의료 전문가 없이 가정에서 분만함에 따른 장애아의 출산, 산모와 영아의 높은 사망률, 건강상의 낙태 및 피임, 가족계획 및 피임에 대한 정보 부족, 낙태증가 및 10대 여성사망률 증가 등의 상황은 여성 건강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의사나 산파의 의료상 실수로 후천성 장애아가 되어 영구적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타지키스탄의 한국병원 초청연수나, 의료기기 사용법 교육, 조산원 교육, 산모교육 사업 등을 실시, 실제 수혜자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타지키스탄 여성의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 ① 빈곤여성과 아동보건 지원 프로그램 개발
- ② 가족계획 인식제고 프로그램 개발
- ③ 생식보건의료종사자 초청 연수 사업

(2) 기획요인과 장애요인

타지키스탄은 여성평등보장, 여성폭력 근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여성지위향상 국가행동계획과 재생산보건 전략계획, 생식보건 관련법 등을 채택하여 국가차원에서 여성의 건강 및 재생산에 대한 관심을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위원회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이 국민건강 사업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보건분야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반 시설 및 보건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여성들의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정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는 타지키스탄 여성들의 재생산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의 기대효과

한국과 타지키스탄의 협력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 가족계획사업, 보건기술과 역량을 타지키스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건강을 이슈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권리신장과 남녀평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나) 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1) 사업목적 및 내용

구소련 해체이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던 여성들은 비공식 민간 부문으로 밀려나게 되어 경제적 지위가 크게 하락했다. 이와 동시에 여성들에게 투자하는 고등 교육 혜택의 기회가 줄어들고, 교육 및 보건과 같은 여성들이 주로 담당했던 고용 영역이 정부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위축되면서 여성들은 단순 노무직이나 무임금 가사노동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은 여성 빈곤화의 연결고리가 된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여성이 변화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직업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여성의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하던 기술 훈련, 봉제, 음식, 청소, 육아 등과 관련된 훈련을 통해 여성의 인적자원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회요인과 장애요인

타지키스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기회가 극히 드물어서 여성의 실업율이 높을 뿐 아니라, 주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빈곤화로 연결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술훈련을 통한 여성인력개발과 수입증대를 도모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협력국의 주요사업 분야와,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술훈련의 내용이나 성격이 결정되어야 하며, 또한 여성의 외부 활동 자율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장애요인으로는, 이슬람 전통으로 복귀함에 따라 가부장적인 사고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이 자칫 남녀의 직종분리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사업의 기대효과

여성의 경제력 향상은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여성이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타국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많은 남성들의 해외이주로 인해 발생한 여성가장의 경제력 확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의 인력향상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발전에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또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은 한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장

중앙아시아와의 여성정책 협력사업의 전망과 추진전략

- | | |
|--------------|-----|
| 1. 협력사업의 전망 | 161 |
| 2. 협력사업 추진전략 | 175 |

1. 협력사업의 전망

가. 협력사업의 분야와 형태

중앙아시아와의 여성관련 협력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앞의 국가별 협력사업 제안에서 보는 것처럼 협력사업이 가능한 분야는 여성의 건강, 직업, 정치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인권(성매매, 인신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의식(성평등), 성주류화(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등이다. 건강 분야는 피임의 방법과 낙태실패, 임신 중 건강진단, 모성사망률 같은 생식건강, 영아사망률과 질병률 같은 모자건강,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성질환, 영양상태와 관련한 여성건강 상태와 질환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직업분야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 실시, 자금력이 없는 여성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정치사회참여 및 역량강화는 공무원, 정부 의사결정직, 국회의원 등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차원에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도록 리더십 훈련이나 정책 메커니즘 형성, 네트워킹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 분야는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 구축,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센터 설립,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폭력예방 교육 등을 포함한다. 또한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개발 등도 있을 수 있다. 의식분야는 성평등의식이나 여성의식의 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자기개발 훈련 등을 포함한다. 성주류화 분야는 국가 정책 입안 및 시행, 국가 예산 편성 등에 있어 성별영향을 파악하고 성별 예산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법령 마련과 공무원 성 인지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에 대한 성주류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의 형태는 인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물적 인프라 구축, 여성관련 데이터 생산 및 연구, 그리고 홍보 사업 등이 있을 수 있다. 인적 역량 강

화는 대상국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초청연수사업이나 한국의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도자의 리더십 함양, 공무원 및 NGO 실무자, 연구자 등의 교육, 기술직의 기술교육 등이 있을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은 보건이나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나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 의식 교육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등이 있다. 물적 인프라 구축은 시설이나 기구 등을 건립,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센터, 교육센터 혹은 여성센터 등을 건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동협력 방법으로 사업대상국에서 부지나 건물을 마련하고 한국에서 건축비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 외에 홍보사업은 미디어를 통한 홍보나 각국의 실정에 맞는 홍보사업을 말하는데 가족계획이나 성교육/캠페인 등을 내용으로 할 수 있다.

나. 우선 협력 분야

앞 장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여성관련 협력사업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가 보유 자원으로 인해 앞으로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은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머물고 있어 외국으로부터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슬람 종교적 영향으로 성평등과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성적 관점에서의 협력사업도 필요한 것이다.

1) 여성 생식 건강 관련 사업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중앙아시아의 경우 여성의 생식건강과 직업교육이라고 하겠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면서 사회주의체제 하에서의 복지시스템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의료지원 금액이 축소되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는데 의료시설과 의약품의 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의료시설과 의료진에 대한 접근이 더욱 더 힘들게 되었다. 의료서비스 부족문제는

특히 여성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잦은 출산을 하며 영양이 부족한 상태이며,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는 여성건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의료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우즈베크인데 이 정부는 1999년 가족의료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는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의료수준을 높이고 의료장비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우즈베크의 사업도 특별히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공통적으로 오염된 환경, 낮은 피임기구 사용률, 잦은 출산 때문에 여성의 생식건강에 문제가 있다. 우선 조산율이 높고 임신 중 낮은 검진을 때문에 임신 중 질병을 앓기도 한다. 출산 중 여성사망률도 높은데 산모 10만명 당 우즈베키스탄 29.4명, 카자흐스탄 42.1명, 키르기스스탄 53.5명, 투르크메니스탄 400명, 타지키스탄 50.6명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는 의료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출산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낙태건수도 출산 1,000명 당 100건에 다다른다. 빈번한 낙태는 피임보급률이 낮은 가운데 낙태를 피임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관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 간 간격이 짧은 것도 여성건강 악화의 원인인데 임신 중 질환, 영양부족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빈혈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다. 또한 영아사망률은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높다. 타지키스탄에서는 임신 중 사산률이 전체 영아사망 중 48%에 달한다.

이처럼 여성의 생식건강이 5개국의 공통되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생식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성건강증진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한 분야이기도 한데 중앙아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도 아직 여성 생식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이 분야를 제안한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 ① 피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피임기구 보급
- ②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 감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③ 태아의 유전적 질환 실태 조사
- ④ 임신 중 건강검진을 제고 지원 프로그램
- ⑤ 환경오염과 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한 공동연구
- ⑥ 10대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 사업들은 5개국에 공통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각 국가의 요구에 따라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직업 교육 관련 사업

직업교육도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협력사업 분야이다. 중앙아시아 5국은 사회주의체제의 유산으로 무상의무교육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국민의 문해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초, 중등 교육까지는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지 않은데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남성의 참여율이 높은 국가(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가 있고 오히려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국가(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도 있다. 하지만 제도교육의 참여가 반드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5개국 모두 남성의 참여율보다 낮고 여성의 임금도 남성의 60-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의 산업과 시장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 맞는 취업교육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경제적으로 중앙아시아 보다는 앞서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직업교육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앙아시아에 나누어줄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중앙아시아로부터 산업연수생을 받고 있고 특히 정보화나 지식기반산업에 우위가 있어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의 첨단에 있는 편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와 공동으로 여성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물적 기반을 마련하며 한국에서의 연수나 전문가 현지 파견 같은 행사들도 계획해 볼 수 있겠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 ① 중아시아 노동시장 조사 및 여성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교육프로그램 분야 예시)
 - IT 분야
 - 외국어(영어, 한국어 등)
 - 의료기술 및 서비스
 - 이, 미용, 양재
- ② 직업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 ③ 직업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 ④ 직업교육생 및 강사 한국 산업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의 공적원조사업계획에 이러한 분야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국제협력단과 협력하고 이 외에 중아시아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체의 협조를 얻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 장기 협력 분야

중아시아와 여성관련 협력사업 분야로 건강, 직업, 정치세력화 및 역량강화, 인권, 양성평등의식, 성 주류화 분야를 제안하였으며 이 중 건강과 직업 분야는 중아시아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협력 분야로 논의되었다. 정치세력화 및 역량강화, 인권, 양성평등의식, 성주류화 분야의 협력사업을 탐색하는 것은 국제원조사업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강화 뿐 아니라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양성평등 달성으로 장기적인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조사업에서 젠더이슈를 반영하거나 양성평등한 개발이 선택을 넘어서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는 하지만 경제위기나 경제성장이라는 아젠다에 여전히 우선순위를 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중아시아에서 국제원조사업에 젠더이슈 반영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를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망해 보기로 한다.

1) 관점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정치세력화 및 역량강화, 인권, 성평등의식, 성주류화 분야에 대한 사업전망은 각 국가의 경제발전수준, 국가의 개방수준, 이슬람교의 영향, 민족구성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여성관련 협력사업 수행가능성 탐색을 논함에 있어서는 국가별 이슬람교의 진보 혹은 보수 성향 정도와 전체 민족구성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 사회주의적인 여성관과 이슬람적인 여성관이 혼재된 상황에서, 국가들은 독립이후 국가정체성 확립을 중요한 국가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바, 이 과정에서 이슬람적 성향을 더 강하게 부활시키고자 하는 국가인지, 전통요소를 도입하면서도 현재의 사회현실을 더 반영하는 국가인지 여부는 여성의 위상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국가의 인종구성에서 러시아인이 많은 비율을 점하는 국가인 경우 평등주의적인 러시아문화의 영향력으로 여성의 위상 또한 높아지는 경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협력 분야의 4가지 영역은 우선 협력분야와 달리 가치문제인 젠더이슈 즉, 사회의 성 차별성을 드러내고 개선해 나가려는 성격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분야이므로 국가의 특성에 따른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요구된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 협력사업에 있어서 정치세력화 및 역량강화, 인권, 성 평등의식, 성주류화 분야는 이슬람교의 보수적 성향이 약하고 러시아인의 비중이 높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접근이 가능하나, 국가 정체성이나 정통성 확립을 위해 이슬람교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고 민족구성에서 러시아인들의 비중이 낮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국가들은 상당기간 동안은 가치문제가 배제된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사업 전망을 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유의사항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혜국의 요구나 입장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와 여성관련 협력사업 추진타진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처럼 이슬람교의 보수적 영향이 크고 러시아인의 비율도 낮은 국가는 여성이 처한 현실이나 위상면에서 여성의식향상 관련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가경제도 발전되고 있고 여성NGO가 양적으로 많이 생겨나 자생적인 여성운동의 단초가 마련되고 있고, 보수적인 이슬람교의 강화로 가부장제가 강화되어 여성들의 반발이 생겨나는 상황이라 양성평등의식 제고가 매우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지만 국가전체의 지향성과 배치되기 때문에 사업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개발협력사업에서 주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공여국이 아닌 수혜국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상대국가의 호응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국가가 처한 사회문화적인 토양을 간과하고 외부의 계몽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 여성관련 협력사업은 사업수행의 기본토양 형성이 상대적으로 빠른 도시지역에서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발협력사업의 특혜가 도농 간 고르게 갈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여성의식관련 사업의 경우는 도·농 균형 관점이기보다는 도시지역이 우선적용 대상이라는 점이다. 통상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농촌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여성관련 협력사업과 같은 그 사회의 성차별 현실을 드러내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은 보다 개방적이고 덜 저항적인 도시지역에서 먼저 수행하고 농촌지역으로 파급될 때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도·농간 생활수준의 격차도 크지만 이슬람교가 미치는 영향력의 격차로 도·농간 문화격차 역시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2) 국가별 가능성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앙아시아 5개국을 경제발전정도와 국가개방정도, 이슬람교의 영향정도, 민족구성 특히 러시아인의 비율에 따라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한다.

가) 카자흐스탄

- 풍부한 에너지자원 보유로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5개국 중 가장 경제수준이 높다(1인당 GNP 5,120불, 2006).
-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07~2008년도 국제경쟁력지수에서 중앙아시아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1위에 올랐으며,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경제자유도에서도 157개국 중 75위로 다소 자유롭다는 평가(moderately free)를 받고 있고, 국제기구 사무실과 국제NGO, 국내 시민단체도 구성되어 있으며 개방정도가 높다
-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카자흐인들은 명목적인 무슬림이라고 할 정도로 5개국 중 이슬람의 영향이 가장 미약하여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이나 공무원의 성비가 유사하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종교로 인한 남녀 차별이 주변국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 따라서 정치세력화 및 역량강화사업-인권사업-성평등의식사업-성주류화 관련 사업의 순서로 4가지 영역의 순차적 사업전개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 장기 협력이 가능한 사업분야 - 카자흐스탄

<p>정치세력화 및 역량강화 분야</p>	<p>여성정치 후보자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여성단체, 시민단체 대표 및 실무자 대상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p>
<p>인권 분야</p>	<p>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연구 상담 및 피해여성 보호센터(쉼터) 건립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자 양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p>
<p>양성평등의식 분야</p>	<p>대학생 대상 양성평등의식 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단체, 시민단체간 협력망 구축 방송매체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 훈련프로그램 한·카자흐스탄 미디어 모니터링 및 비교 성평등의식 제고 캠페인</p>
<p>성 주류화 분야</p>	<p>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통계 등) 프로그램 교환 및 공동개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분석기법 교육 ODA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기법 교육사업</p>

나) 우즈베키스탄

- 세계 5대 원면생산국이자 2대 수출국으로 최근 높은 경제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높은 경제신장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현황은 느린 시장개방 속도, 지지부진한 국영사업 민영화 속도, 국가의 높은 경제규제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 독립이후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슬람의 부활과 강화 쪽으로 방향을 택함으로써 남성중심의 가부장문화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독립이전 러시아시절에 고등교육을 받아 활동하는 여성들이 다수 존재하나 다른 한편 이슬람으로 회귀하려는 정책으로 인해 과거전통으로 회귀하려는 남성중심주의와 이에 호의적이지 않은 여성들의 가치관이 대립되고 있다.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가장 여성관련 협력사업이 필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보수적인 이슬람교의 강한 영향으로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여성 NGO가 설립되고 급성장하고 있고 최근 여성 NGO는 여성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NGO와의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내 개방성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국가규제가 심하여 한정된 개방성에 머무르고 있다.
- 민족구성에서, 러시아인의 비중이 낮고 우즈베크족이 대부분으로 이슬람교의 영향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여성들은 이슬람교 강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남성은 이슬람교 강화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사회를 지향하는 등 다른 어떤 국가보다 여성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진단되지만, 보수적인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여성주의적 가치가 부각되는 협력사업은 상당기간 동안은 힘들다고 판단되므로, 가치문제가 배제되면서 젠더협력사업의 기반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분야 사업이 적절하다.

〈표 4-2〉 장기 협력이 가능한 사업분야 - 우즈베키스탄

여성 창업지원 분야	창업직종 개발을 위한 여성 직종조사 창업직종 개발을 위한 여성 수요조사 창업역량강화훈련 프로그램 개발 창업역량강화훈련을 위한 여성 연수생 초청사업
여성 직업훈련 분야	직업훈련분야 개발을 위한 직종조사 및 수요조사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금세공 기술 훈련프로그램 직업훈련센터 건립

다) 키르기스스탄

- 국토의 90%가 산악지대이고, 금, 수은, 석탄,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 천연자원이 빈약하여 2006년 1인당 GNP가 536달러에 불과한 빈국으로 경제가 낙후되어 있다.
- 독립이후 신자유주의 개혁 노선을 선택하고 가격자유화, 서구식 민법도입, 최초로 토지사유화 비준, WTO 가입(1998년) 등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시행하여 개방성은 매우 높은 국가이다.
- 러시아인의 비율이 높고 이슬람의 영향이 적은 국가로 전체적으로 대외개방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2005년 출범한 새 정권은 2006년에 ‘2007~2010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발전전략’을 수립했는데, 전략에 언급된 정부목표 중에는 국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 개선, 사회통합, 국민의 교육 및 도덕적 가치의 유지 및 발전, 시민권 보호 및 양성평등 달성, 효율적인 민주적 관리를 지향한다고 하여 여성관련 사업가능성은 매우 높은 나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는 어려운 양성평등의식관련 사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 할 수 있다. 인권사업-양성평등의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4-3〉 장기 협력이 가능한 사업분야 - 키르기스스탄

인권분야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 사업 폭력관련 서비스 연계망 구축사업 여성인권 관련 국내외 세미나 개최
양성평등의식 분야	양성평등의식 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강사 양성) 여성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공무원 대상 성 인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양성평등교육센터 설립

라) 투르크메니스탄

- 천연가스 세계매장량의 10%를 보유한 에너지부국으로, 독립 직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으나 최근 유가상승의 수혜국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천연가스량이 많이 줄고 있고, 2010년까지 물, 가스, 전기의 무상제공에 정부재원의 70%가 사용되고 있어 재정압박 문제를 안고 있다.
- 중앙아시아에서 IMF의 권고를 무시하는 유일한 국가로 WHO가입도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2005년도 Fitch사가 신용등급을 철회할 정도로 국제신인도가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는 나라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정치, 문화 발전전략 2020(Stratgy of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urkmenistan for the period up to 2020)을 보면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대외지향적 전략보다는 기존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내부의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자립경제를 달성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어, 중앙아시아의 은둔의 국가라고 표현할 정도로 외부에 폐쇄적이다.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폐쇄적이며 백만회원을 가진 여성동맹이 있으나 NGO라기보다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가 하부조직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어 시민단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작으며, 대부분이 투르크족이며 이슬

람교의 영향이 매우 강하다. 특히 독립이후 국가정체성을 이슬람교의 부활에서 찾는 방식을 택하면서, 농촌지역에서는 강한 가부장제가 지속되고 있다.

- 투르크멘은 중앙아시아에서 중위권의 소득수준을 가진 국가이며 해마다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으나, 시장경제보다는 자립자족에 기반을 둔 계획경제를 지향하고 있고 중앙아시아의 은둔의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이며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슬람교의 강화를 동원하고 있어 국가폐쇄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는 등 사회개혁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폐쇄성이 높다. 인권, 민주주의, 시민의식, 평등의식관련 사업은 시기상조로 보이므로, 경제 분야에 주력하여 여성의 역량강화를 다져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4〉 장기 협력이 가능한 사업분야 - 투르크메니스탄

여성 직업훈련 분야	소규모사업 창업노하우 교육프로그램 (이용사, 미용사, 양재사, 스포츠맛사지지도사, 조리사, 요리사) IT부문 여성인력 국내초빙 교육훈련 사업 한국어 현지 강사 양성사업 한국어 여성연수생 초청사업
-------------------	--

마) 타지키스탄

- 국토 90%이상이 산악지대로 구 소련시절부터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받을 정도로 독자적인 경제기반이 부족하고, 지정학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원면, 전력이 주요 수출품목이지만 석유, 석탄 등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순에너지 수입국이다. 키르기즈스탄과 함께 가장 낙후된 국가로, 1인당 GNP는 400달러 남짓한 최빈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의 범주에 속한다.
- 5개 국가 중 최빈국으로 빈곤퇴치가 가장 중요한 국가과업이므로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국제기구 등 외부에 대해 패쇄적이지 않다.
- 러시아인의 비중이 낮으며 이슬람의 보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국가이

다. 무슬림중 시아파 무슬림으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영향으로 원리주의인 성향이 강해 여성들은 이슬람 규율을 철저히 따르도록 강요되고 있다.

- 천연자원이 빈약하여 경제수준도 낮으며, 러시아인의 비율도 낮고, 무슬림 중에서도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시아파로 인해 여성관련 협력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척박한 토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4가지 사업의 가능성은 아직 요원하다고 판단되며, 여성과 아동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분야에 당분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5〉 장기 협력이 가능한 사업분야 - 타지키스탄

여성 직업훈련 분야	조산원, 산파 훈련사업 관광가이드 양성훈련과정 개발 은제품 공예전문가 훈련 사업 관광상품 관련 여성대상 소규모사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	--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제시한 국가별 장기 협력 분야를 종합해보면, <표 4-6>과 같다. 비교적 개방적 체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인권분야, 양성평등의식 분야에까지 점차적인 협력사업의 도입이 가능하지만,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이슬람 가부장 문화가 매우 강하고 여성인권 및 지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여성 창업 지원 및 직업 훈련 분야로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장기 협력 분야는 수혜국의 경제적 발달, 인식의 개방성, 외국과의 협력에 대한 경험의 정도에 따라 오랜 기간의 준비와 노력을 통해 도입되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의 파악 및 구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표 4-6〉 장기 협력 분야 국가별 비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정치 세력화 및 역량강화 분야	-여성 정치후보자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여성단체, 시민단체 대표 및 실무자 대상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인권분야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연구 -상담 및 피해여성 보호센터(쉼터) 건립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자 양성교육,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 사업 -폭력관련 서비스 연계망 구축사업 -여성인권 관련 국내외 세미나 개최		
양성평등의식 분야	-대학생 대상 양성평등의식 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단체, 시민단체간 협력망 구축 -방송매체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 훈련 프로그램 -한·카자흐스탄 미디어 모니터링 및 비교, 성평등의식 제고 캠페인		-양성평등의식 전문 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강사 양성) -여성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양성평등교육센터 설립		
성주류화 분야	-성주류화(성별영향 평가, 성인지통계 등) 프로그램 교환 및 공동개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분석기법 교육, ODA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기법 교육 사업				
여성창업 지원 및 직업훈련		-창업직종 개발을 위한 여성 직종 및 수요조사 -창업역량강화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생 초청 -직업훈련분야 개발을 위한 직종조사 및 수요조사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금세공 기술 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센터 건립		-소규모사업 창업노하우 교육프로그램(이용사, 미용사, 양재사, 스포츠맛사지지도사, 조리사, 요리사) -IT부문 여성인력 국내초빙 교육훈련 사업 -한국어 현지 강사 양성사업 -한국어 여성연수생 초청	-조산원, 산파 훈련 사업 -관광가이드 양성훈련과정 개발 -은제품 공예전문가 훈련 사업 -관광상품 관련 여성대상 소규모사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2. 협력사업 추진전략

중앙아시아 5개국과 협력사업의 가능성 및 기대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에 여성협력사업의 전례가 없고 후자에 성평등의 사회적 공감대가 약하기 때문에 여성관련 협력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와 사전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쪽에서는 중앙아시아 여성관련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을 조성해야 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는 여성 관련 기구나 단체와 접촉하여 사업파트너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일정한 패러다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전술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무상원조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예산은 국제협력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무상원조에 기반하는 여성협력사업은 국제협력단과의 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 관련 국제기구에서 국가별 추진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산발적이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이며 공동사업도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선 후에야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추진전략은 국제협력단과의 사업가능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원국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공여국에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도 상대국가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가들이 여성관련 사업을 국가의 우선 과제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중앙아시아 국가에 성 인지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여성협력사업을 제안해 올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힘들고 따라서 여성협력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각국의 경제개발 단계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좀 더 적극적인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에서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력사업에 대해 민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나라는 협력사업 이전에 학술적인 명목 등으로 먼저 교류에 물꼬를 트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협력사업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안한다.

가. 국제 컨퍼런스

앞의 협력사업 제안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아시아 5개국의 공통적 여성 이슈는 여성 혹은 모자건강과 여성의 경제, 사회, 정치적 역량강화로 수렴된다. 따라서 이 두 이슈를 가지고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면 양자 사이에 관련 분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인력교류도 이루어져 협력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컨퍼런스 주제로는

- ①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여성 생식건강 현황과 개선방안
- ② 중앙아시아의 모자건강 증진방안
- ③ (글로벌 경제시대/지식기반산업시대/디지털 시대의)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여성직업교육 실태와 미래
- ④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소규모 여성창업과 양자 간 협력방안

나. 각국의 여성관련 조직 및 여성단체 조사, 연락 및 방문

각국의 여성관련 국가기구, 학술단체, 그리고 여성단체는 양자 간 협력사업을 위한 주요 파트너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부, 그리고 여성단체들의 존재와 기능을 알리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들도 소개하여 파트너십의 기반을 만든다. 한국의 여성정책과 이에 따른 성과를 소개하여 정책 컨설팅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다. 주한 각국 대사관 및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과 협력체계 조성

이제 한국에는 중앙아시아 3개국의 대사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1개국의 명예영사관(타지키스탄)이 들어와 있다. 이들에게도 나의 조직, 단체들에게처럼 한국의 여성정책기반 조직과 활동을 소개하고 협력체제의 기반을 만든다.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존재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을 알리고 가능한 협력사업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조체계 조성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공적원조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은 한국국제협력단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와 국제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국제협력단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한국국제협력단에 성 인지적 관점의 공적원조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차후 사업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 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간 협력체계 조성
- ② 양자 간 양해각서 교환
- ③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국제협력단의 공동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 인지적 공적원조사업을 위한 연구수행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국제협력단의 정례적 포럼 실시
 -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인력 파견 등의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 론

이상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협력사업 수행의 타당성 및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탐색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對 중앙아시아 여성관련 협력사업 수행은 충분한 당위성을 갖는다.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해방이후 불과 20여년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다. 이제는 선진공여국 반열에 들어가기 위하여 2010년 OECD/DAC 가입을 목표로 대외 원조 규모를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대외무상원조에서 아직 性인지적 접근이 시도되지 않고 있다. 영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ODA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개발협력 프로젝트 사업에서 환경·여성분야의 지원 실적은 1.6%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에서 여성관련 분야 지원의 필요성이 아직 공론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아시아는 보유 자원으로 인해 앞으로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아직은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머물고 있어 외국으로부터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슬람 종교적 영향으로 성평등과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성적 관점에서의 협력사업도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수원국의 여성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적 관점의 개발협력 사업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對 중앙아시아 여성관련 협력사업”수행을 탐색하는 것은 충분한 당위성을 갖는다.

둘째, 국가별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개발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실업률, 산업구조, 문맹률, 전공별 성별 비율,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 의사결정직 성별 비율, 여성관련 법 및 정책, 여성 관련 기구 및 조직 등을 조사하여 국가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가 현황과 전통적인 역사·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주요 젠더이슈를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발수요에 걸맞는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사업을 총괄해 보면, 여성건강과 모자건강 증진 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역량강화 프로그램, NGO 네트워크이다. 국가별로 제안하는 사업 영역이 유사하지만 국가의 여건과 상황에 근거하여 도출된 사업이기에 타당성을 갖는다. 한편 최근 제시된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의 전략적 지원 분야는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로서 보건위생·환경, 교육 및 직업훈련, 인프라구축, IT 등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협력분야도 국가의 전략적 지원 분야와 일치하고 있다.

셋째, 사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 협력사업과 장기 협력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에는 상호간에 공통성과 차별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현재 이슬람적인 여성관과 사회주의적인 여성관이 혼재되어 있다 하겠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사회의 진보 혹은 보수 성향 정도가 다르다. 이러한 국가 간의 상이점에 따라 사업 추진의 완급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선 협력이 가능한 사업과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분해 보았다. 우선 협력사업 분야로는 여성의 생식건강과 직업교육을 제안하였다. 여성의 건강 문제는 중앙아시아의 열악한 의료시설, 여성들의 과도한 노동, 잦은 출산, 영양부족, 환경오염 등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한편 산업과 시장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는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사업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의 첨단에 있다. 따라서 우선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중앙아시아와 협력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5개국에 공통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각 국의 요구에 따라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장기 협력사업은 다음의 4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제안하였다. 즉, 각 국가의 경제발전수준, 국가의 개방수준, 이슬람교의 영향, 민족구성을 고려하였다. 이들 요인에 따라 대상국이 협력사업을 대하는 관심과 적극성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예를 들면 러시아인의 비율도 낮고 이슬람의 보수적 성향이 강하며 폐쇄적인 투르크메니스탄이나 타지키스탄에서는 인권, 시민의식, 양성평등의식 관련 사업은 당장은 협력사업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궁극적으로 여성의식관련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 협력사업의 가능성 및 기대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에

여성협력사업의 전례가 없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약하기 때문에 여성관련 협력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와 사전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측에서는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을 조성하고 중앙아시아의 여성 관련 기구나 단체와 접촉하여 사업파트너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양 국가의 핵심인력을 교환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국의 여성관련 조직 및 단체들 간의 파트너십 기반 또한 중요하다. 파트너십은 서로 상생하는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개발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성공의 관건은 양국 간의 우호적인 협력체제 구축이라 생각한다. 한편 국가 간의 진정한 협력 관계는 경제적 이해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KOICA, 여성관련 조직 및 단체, 대사관 및 관계자들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제개발협력에서 젠더관점의 접근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전략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도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젠더관점 통합을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가 정책에 성 주류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축적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젠더이슈에 대한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명구(2006).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가발전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유라시아 연구, 제3권 제2호(통권6호)
- 고재남(2002). “CIS통합운동의 동향과 전망: 러시아의 CIS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북방학회논집, 제 9권 81-126쪽.
- 김대성(2001).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과 여성”.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1권 67-85쪽.
- 김대성·조희선 외(2004). 이슬람 사회의 여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상철(2008). “중앙아시아와 종교문제”. 자문회의, 2008. 7.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수(2007). “한국문화의 중앙아시아 5개국 진출전략”. 제1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세미나 자료집, 외교통상부.
- 김은성(2007). “중앙아시아의 5개국의 경제동향 및 우리의 진출확대방안”. 제1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세미나 자료집, 외교통상부.
- 김일겸(2005). “한국과 카자흐스탄 신화에 나타난 남성상·여성상의 비교 연구”. 민족문화논총, 제 32권 17-26쪽.
- 외교통상부(2007a). “우리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5개국 진출안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제 1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세미나 자료집, 외교통상부
- (2007b). 제1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결과보고서. 외교통상부
- 이옥련(2007). 은둔의 나라 투르크멘, 도서출판 베델기획
- 이재영·박상남 편저(2007).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영·신현준 편저(2007). 한국의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영 외(2005).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대외경제연구원.
- 한국국제협력단(2007).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Alimova, D. and Azimova, N.(1999). “Women’s Position in Uzbekistan Before and After Independence”, in F. Acar and A. Günes-Ayata (eds), *Gender and Identity Construction*, Brill, Leiden.
- Asian Development Bank(ADB)(2000). *Country Briefing Paper: Women and Gender Relations in Tajikistan*. Manila.

- (2006). *Country Gender Assessment: Republic of Tajikistan*. Manila.
- Colette Harris.(2000). "The Changing identity of women in Tajikistan in the Post-Soviet Peirod," *Gender and identity construction - women of Central Asia, the Caucasus and Turkey*, ed. Feride Acar & Ayse Gunes-Ayata, Brill-Leiden.Boston.Koln 2000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GRT).(2006).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Dushanbe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GRT)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2003).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 2003: Tapping the Potential Improving Water Management in Tajikistan*. Dushanbe.
- JICA.(2004). *Kyrgyzstan: Country Gender Profile*, JICA.
- (2005). *Uzbekistan: Country Gender Profile*, JICA
- Kyrgyzstan.(2007).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ird periodic report of States Parties: UN CEDAW*.
- Nuran Hortacsu & Sharon Bastug.(2000). *Women in marriage in Ashkabad, Baku and Ankara women of central Asia, the Caucasus and Turkey*. edited by Feride acar & ayse gunes-ayata, Brill, 2000
- Saktanber, A. and Özatas-Baykal, A.(1999). "Homeland within Homeland: Women and the Formation of Uzbek National Identity, in F. Acar and A. Günes-Ayata" (eds), *Gender and Identity Construction*, Brill, Leiden.
- Sancak, M. and Finke, P.(2007). *Konstitiutsiya buzildi: Gender Relation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J. Sabadeo and R. Zanca (eds), *Everyday Life in Central Asia: Past an Present*,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 Sharon Bastug & Nuran Hortacsu(2000). "The price of value: kinship, marriage and metannarratives of Gender in Turkmenistan" Feride acar & ayse gunes-ayata (eds), *Gender and Identity Construction: women of central Asia, the Caucasus and Turkey.*, Brill
- Tajikistan(2005).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ates Parties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s against Women, Combined initial,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UN CEDAW.

Tulegeneva, N.(2008). “카자흐스탄의 여성지위: 여성문제 분야 국가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4차 평등정책 콜로키움. 2008. 7. 29.

Uzbekistan(2004).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UN CEDAW.

UNDP.(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NY, UNDP.

World Bank.(2005). *Poverty Assessment Update*. Washington DC.

<http://planipolis.iiep.unesco.org/upload/Tajikistan/Tajikistan%20HDR%202003.pdf>

http://www.adb.org/Documents/Books/Country_Briefing_Papers/Women_in_Tajikistan/women_in_tajikistan.pdf

<http://www.adb.org/Documents/Reports/Country-Gender-Assessments/cga-taj.pdf>

<http://www.trukmenistan.gov.tm>

<http://www.worldbank.org>

http://www-wds.worldbank.org/servlet/WDSContentServer/WDSP/IB/2005/03/25/000011823_20050325151619/Rendered/PDF/308530TJ0white0cover0P07911701public1.pdf

<http://www.untj.org/files/reports/PRSP2FirstDraft.pdf>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ti.html>

위키백과사전, http://en.wikipedia.org/wiki/Republic_of_Uzbekistan.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홈페이지, <http://www.sida.se>

일본 국제개발협력기구 홈페이지, <http://www.jica.go.jp/english/countries/cac/index.html>

캐나다 국제개발청 홈페이지, <http://www.cida.org>

한국국제협력단 통계사이트, <http://www.koica.go.kr>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http://stat.koica.go.kr>



부 록

- | | |
|--------------------------------|-----|
| 1. 중앙아시아 5개국 현황 비교 | 191 |
| 2. 중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계자 명단 | 195 |
| 3. 국제기구의 對 중앙아시아 젠더관련
협력사업 | 199 |

1. 중앙아시아 5개국 현황 비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국가 일반 현황	인종	카자흐인60%, 러시아인22%	우즈베크인71%, 러시아인6.3%, 타지크인4.7%, 카자크인3.9%	키르기즈인65%, 우즈베크인14%, 러시아인12.5%	투르크인85%, 러시아인7%, 우즈베크인5%	타지크인64.9%, 우즈베크인25%, 러시아인3.5%
	종교	이슬람	이슬람교88%, 그리스정교9%	이슬람교75%, 러시아정교20%	이슬람교89%	이슬람교90%
	언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투르크멘어, 러시아어	타지크어, 러시아어
인구	인구	1천 520만(2006)	2천620만(2004)	536만(2008)	517만(2008)	720만(2008)
	여성 인구	52%(2004)	50%(2004)	51%(2008)	50.2%(2008)	남성 0.99명당 여성 1명
	출산율	1,000명당 16.63명(2003)	2.4명(2004)	2.67명(2008)	3.07명(2008)	1,000명당 23.18명(2008)
	인구 증가율	0.6%(2003)	0.965%(2008)	1.38%(2008)	1.596%(2008)	1.897%(2008)
	기대 수명	남자60.45세, 여자71.46세 (2003)	남자64세, 여자70세 (2004)	남자65.1세, 여자73.3세 (2008)	남자65.5세, 여자71.8세 (2008)	남자61.95세, 여자68.15세 (2008)
경제	GNP, GDP	1인당GDP \$5,100(2006)	1인당 GDP \$2,300(2007)	1인당 GDP \$536(2006)	1인당 GDP \$5,200(2007)	1인당 GDP \$339(2005)
	GDP 성장률	9.4%(2005)	7.1%(2005)	5.5%(2007)	6.0%(2006)	7.8%(2007)
	수출액	\$278억 (2005)	\$54억 (2005)	\$942백만 (2005)	\$5,818백만 (2006)	\$1,108백만 (2005)
	수입액	\$173억 (2005)	\$41억 (2005)	\$1,421백만 (2005)	\$4,057백만 (2006)	\$1,431백만 (2005)
	외환 보유고	\$70.69억 (2005)	\$21억 (2004)	\$609백만 (2005)	\$3,601백만 (2006)	\$163백만 (2005)
	주요 천연 자원	석탄, 천연가스, 금, 니켈, 등	금, 천연가스, 석유, 우라늄, 구리, 등	금, 은, 석탄, 우라늄, 등	세계천연가스 매장량의 10%, 석유, 면화	금, 은, 우라늄, 텅스텐, 등
	여성 노동 및 고용 현황	여성경제활동참 여율90%(2003), 농업34%, 제조업10%, 서비스업56%	경제고용인구 중 여성 비율 44.1%(2004), 농업임업41.8%, 산업28.8%, 건설업12.8%, 건강 및 사회보장72.5%, 교육63.6%, 과학50.8%	교육, 건강돌봄 및 사회서비스 3/4, 호텔과 식당 2/3, 재무및 통상 1/2가 여성	여성 47%, 남성대비 여성 85%(2004), 농업48.9%(2003), 무급가족노동 비율 51.3%	여성55.4%(2008), 저임금 단순노동직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 77%, 입법 및 관리직 0.3%(2003)
	여성평 균임금	남성의 60.8%(2003)		남성의 67.6%(2001)		남성의 46%(2003)

192 중앙아시아와 여성정책 협력사업을 위한 탐색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교육	문해률	99.8%	15-25세 여성 99.7%, 남성 99.6%(1990)	97.4%(1999)	여성 84%, 남성 91%(2006)	98%
	국민평균교육연수		여성 11.3년, 남성 11.8년(2003)	고등교육받은 여성 17.5%, 남성 15.6%		
	전공별 성별 비율	자연과학65.9%, 교육75.5%, 전력11.2%, 건설26.5%		건축23.3%, 공학20.9%, 신문방송86.3%, 교육79.1%, 제조가공64.6%, 의학57.3%, 사회학54.4%, 상경53.1%, IT37.6%		산업17%, 교육예술36%, 농업10%
	학교 등록률	고등교육비율 여성57%, 남성43%(2004)		초등교육 (남자 51.3%, 여자 48.7%), 중등교육 (남자 50.5%, 여자49.5%), 고등교육 (남자 37.6%, 여자 42.2%) (2001/2002)	초등고등률86%, 초등교수료86%, 남성대비여성 초등고등률95%, 남성대비여성 중등고등률94%, 남성대비여성 3차교육등록율 105%(2006)	88.4%(2003)
건강	산모 사망률	출산10만명당 42.1명(2003)	출산10만명당 29.4명(2004)	출산 10만명당 53.5명(2002)	출산10만명당 400명(2006)	출산10만명당 50.6명(2002)
	낙태 건수	15-49세 1천명당 29.1명(2005)	출산 1백명당 9.7건(2004)			출산 1천명당 88.5명(2003)
	영아 사망률	1,000명당 15.67명(2003)	1,000명당 (유아)57명 (2004)	1,000명당 21.2명(2002)	1,000명당50명, 유아사망률 출생 1,000명당 73명(2006)	사망한 유아 중 48%가 출산전 태아상태에서 사망(2002)
	피임 보급률	38.3%(2005)		41.2%(2003)	60%(2006)	20%(2003)
	출산 돌봄률 (의료)			98.8%(1999)	65%(2006)	
	출산율	1,000명당 16.63명(2003)	2.4명(2004)	2.4명(2001)	3.07명(2008)	1,000명당 23.18명(2008)
	건강 관련법	마약중독자의 의료와 사회재활법, 흡연예방 및 금연법,		에이즈예방법령 (1996). 국민의재생산권 (2000). 요오드결핍증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철분결핍증 예방법, 생식권과 실행보장법		방법령(2000)		
	국가 사업			국가건강돌봄 개혁프로그램 (1996-2006), 국민의 정신건강 (2001-2010), 성병및주사에 의한전염병예방 법령에관한정부 계획(2001-2005)		보건분야 개혁 계획 발표
여성 대표성	국회의원 성별 비율	국회의원 9.5%, 지방의원 17.1% (2004), 12개 정당 중 2개 정당은 여성이 당수	16.3%(2004)	6.7%(2001)	26%(2004)	국회의원 18%, 지방의원 11.5% (2005)
	공무원 성별 비율	전체의 58.5%, 의사결정직 11.1% (2004)		전체의 43.7%(2005)	장관급 10%(2004),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여성위원 53%, 지방의원 14%, 국민대표 30%, 행정기관 37.6%(2004)	입법, 고위관부 및 관리직 0.3% (2003)
	사법 기관 성별 비율			1993년 이래 헌법재판소장 여성, 최고재판소의 판사 중 53.3%, 일반법원 27%		판사 중 여성비율 18.6%, 헌법재판소는 12.7%, 대법원 17.5%, 고등경제법원 36%(2004)
	각료 성별 비율	여성부총리 1명, 여성장관 2명, 여성차관 9명, 산하단체장 1명, 여성주지사 7명		여성각료 2명, 455개 자치단체 중 여성 수장은 21명 16.7%(2002), 여성각료 3명 (2005)		제1위원 4%, 일반위원 11.1%, 행정최고직 8.8%, 부행정최고직 11.2%, 부서장 9.4%, 부부서장 4.9%, 주지사 0%, 부주지사 18%, 시장 9%, 제1 부시장 9%, 부시장 34% (2003)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여성 관련 제도	여성 관련 법 및 정책	카자흐스탄 여성지위 개선을 위한 국가적 정책지침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옴부즈만	헌법, 성평등보장기본법,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법, 공공행정예의 여성지도자 유입을 위한 인적자원정책 개발 법령, 국가행동계획		여성차별철폐협약 을 비롯한 11개 국제협약 비준, 헌법 제 10항, 1998-2005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타지키스탄의 국가행동계획, 공중생식 보건을 위한 타지키스탄 정부의 전략 계획	
	여성 관련 기구, 조직	국가 기구	가족, 여성 및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문회의회, 여성과 가족 국가위원회	가족, 모성,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부수상직 (대통령령), 가족, 모성,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비서관직	가족, 여성 및 청소년문제 국가위원회, 젠더정책위원회	여성과 가족 위원회, 여성과 가족위원회, 젠더문제조정위 원회, 여성발전국, 여성가족위원회	
		여성 단체	2,430개 중150개가 여성기관(2003)	50개 이상의 여성 NGO		투르크메니스탄 여성연합(독립적 사회연합체)	547개(2000)
	여성 인권 정책	여성 폭력	여성대상 범죄 91%, 이중 65%는 성범죄, 폭력희생 아동과 여성을 위한 38개 센터 운영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지 않음, 인신매매 등의 불법 이민 증가	여성대상범죄는 연간 25-26% (2002), 10개의 성폭력위기센터와 쉼터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운영 (1997-2000년 동안 약 3만명의 여성이 서비스 를 받음)		형법상의 처벌 (138-142, 155항), 2001-2010년도 타지키스탄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기회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정책 가이드라인
		가정 폭력					형법 제 155항, 여성폭력에 대한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한 국립 분석센터
	인신 매매 및 성매매		비인간적인 성매매, 인신매매	인신매매피해 4,000명(1999)		형법 제 238항, 2002년 23건, 2003년 46건 처벌,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 여성과 알선업자는 처벌 대상이지만, 구매자는 처벌 대상이 아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가족 정책			가족법, 법적 혼인연령(남성 18세, 여성 17세), 일부일처제, 혼인지참금		낙태 관련 정책	중혼, 일부다처제가 매우 일반적인 결혼 형태이나 법적으로는 금지(형법 제 170항), 중혼과 일부다처제로 처벌받은 건수는 2002년 30건, 2003년 56건

2. 중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계자 명단

가. 각 국 주재 한국대사관

국 가	대 사	재외공관 연락처	재외공관 개설일자	수교일자
카자흐스탄	김일수 대사 (Kim Il-Su)	주소: Kazakhstan, Astana, 010000, Office No.91,92,93 «Kaskad» business-centre, Kabanbai Batyr Av.6/1 전화: (7-7172)925-591,592,593 팩스: (7-7172)925-596 이메일: koreaemb-kz@mofat.go.kr	1993.7.12	1992. 1.
우즈베키스탄	견제민 대사 (Kyun Jea-min)	주소: Afrosiab st. 7, Tashkent, Uzbekistan 전화: 998-71) 252 - 3151 ~ 3 팩스: 998-71) 140 - 0248 이메일: uzkoremb@koremb.uz	1992.12.	1992. 1.
키르기즈스탄	김일수 주카자흐스탄 대사 겸임 (Kim Il-Su)	주소: Matrosova 67/8, 720005, Bishkek 전화 : 996-312-560271 팩스 : 996-312-576004 이메일: koreanemb.kg@gmail.com		1992.1
투르크메니스탄	김종열 대사 (Kim Chong-yul)	주소: Archabil Shayoly, 25, Berzengi, Ashgabat, Turkmenistan 전화: (993-12) 48-97-61(62) 팩스: (993-12) 48-97-60	2007.6.8	1992.2.7
타지키스탄	대사대리 김흥수 (Kim, Heung-soo)	주소: 61, Ghani Abdullo st., Dushanbe, Tajikistan 전화: 992-44) 600 - 9114 팩스: 998-44) 600 - 9115 이메일: tjkorem@mofat.go.kr	2008. 2	1992. 4

나. 각 국 주한 대사관 · 영사관

국 가	대 사	연락처	신임장 제정일	부임일
카자흐스탄	Darkhan BERDALIYEV	주소: 274-5, Hannam-dong, Yongsan-gu, Seoul 전화: 379-9714, 394-9716 Consular section : 391-8906 팩스: 395-9766 Consular section : 395-9719 이메일: kazkor@chollian.net	2008.7.18	2008. 6.30
우즈베키스탄	Vitali V. FEN	주소: Room 701, Diplomatic Center 1376-1 Seocho 2-dong, Seocho-gu, Seoul 전화: 574-6554, 577-3660 팩스: 578-0576 이메일: uzkoremb@koremb.uz	99.11.18	99.11. 1
키르기즈스탄	Tuigunaaly ABDRAIMOV	주소: 종로구 평창동 422 전화 : 379-0951 팩스 : 379-0953 이메일: koreanemb.kg@gmail.com	2008.9.4	2008. 7.28
투르크메니스탄	Kurbanmukha -mmed KASYMOV	주소: King's Garden Villa D-26, 18 Xiaoyunlu Road, Beijing, China, 100016 전화: (86-10) 6532-6975 팩스: (86-10) 6532-6976 이메일: china@a-1.net.cn	비상주	상주국가 (중국)
타지키스탄	박창호 (명예영사)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1가 1-1번지 서울 YMCA 6층 전화: 02-3705-5813 팩스: 02-545-1737		

다. 중앙아시아 지역전문가

이 름	기 관	소 속	연락처
문하영	외교통상부	제주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전 우즈베키스탄 대사	82-064 710-2900
권영아	외교통상부	유럽지역협력과 서기관	02-2100-0150
문상원	한국국제협력단	지역정책부 지역1팀 대리	031-7400-232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장	02-3497-7649
조정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글로벌기획팀장	02-3660-3641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02-3460-1089
박상남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031-379-0496
나일라 틀레게노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김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031-330-4145

이름	기관	소속	연락처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010-9852-4713
박찬석	한 키르기즈스탄 친선교류협회	한-키르기즈스탄 의원연맹 회장	02-6333-7100
이옥련	사단법인 한·중앙아 문화교류협회	한·중앙아 문화교류협회장	2278-2398
김익환	아자디 국립세계 언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2008. 9월 한국어학과 개설)	
이종분	타지키스탄 선민 국제학교	타지키스탄 선민국제학교, 선민신학교, 후 잔 치칼레스카시 종합병원 설립자, 책임자	992-92-777-9191 (타지키스탄)

라. 주요 여성단체

(우즈베키스탄)

단체명	이름	직위	전화	팩스	E-mail
Association of Business Woman "Tadbirkor Ayol"	Alimbekova Dildora	Chair woman	+998(71) 144-3522, 148-0875	+998(71) 144-3522	bwa@freenet.uz
Association of Women's NGOs "Mehr"	Tukhtakhodjaeva Zulfiya	Chair woman	+998(71) 139-1046	+998(71) 139-1598	zulfiya@pubadmin.bcc .com.uz
Association of Reproductive Health	Nazarova Rahima	Chair woman	+998(71) 120-4889, 120-4890	+998(71) 120-4889, 120-4890	rakhima@eurasia.sark or.uz
"Mehkri" Women's Society	Kholmukhamedova Naima	Chair woman	+998(71) 134-0553, 134-5457	+998(71) 114-5255	mehri@freenet.uz
"Woman and Society" Institute	Muravyova Natalya	Director	+998(71) 132-6126	+998(71) 152-4080	ingo@albatros..uz
"Gender: Innovation and Development" Fund	Vinogradova Galina	Director	+998(71) 133-4593		galina_v@uzsci.net
"Bilim va jamiyat" Training Center	Elena Sabirova	Director	+998(712) 67-9048		lenas@ahome.post.t ps.uz
Uzbek Association on Reproductive Health	Nazarova Rakhima	President	+998(71) 152-1347, 152-3984, (712)68-6965 *mobile +998(97) 111-9774	+998(71) 137-4915	uarh@eanetways.com, rakhima@osi.uz

(타지키스탄)

단체명	이름	직위	전화	주소
Women Lawyers League	Khamidova Kanoat	chairmen	992/372/212149, 21-19-33	Ayni 53 Street, Apt, 3, Dushanbe, Tajikistan
Fidikor	Dilbar Khalilova	director	992/372/247442	Loik Sherall 93 Street, Dushanbe, Tajikistan

3. 국제기구의 對 중앙아시아 젠더관련 협력사업

가. UNDP의 對 중앙아시아 젠더관련 협력사업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Expanded micro-credit support for women in Semipalatinsk region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Capacity Development for Women's Empowerment in Uzbekistan	Joint UN Support for the Country Response to HIV/AIDS	Support to Gender Mainstreaming in Policy Making in Turkmenistan	Strengthening of women center and support to sewing workshop "Zuhal"
Status and economic advancement of women in Kazakhstan	Promotion of the rights of women migrant workers	Support to Rural Women- Informal Workers	Gender-based Revision of Legislation of Turkmenistan	Procurement and manufacture of wedding dresses for newly married brides
Support to the Programme on counteracting the AIDS epidemic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01-2005	Assistance to the UN Theme Group on HIV/AIDS in its efforts to mobilize and support to the coordinated national response to HIV/AIDS	Women in Politics	HIV/AIDS Prevention in Turkmenistan	Rehabilitation, provision of equipment and furniture to women center
Tomiris: Gender, leadership and networking across borders	Capacity development of UNDP Uzbekistan staff to better address gender needs through their programming	Promotion of Women in Decision Making		Rehabilitation of social center
Building capacity of women's organisations to implement National Action Plan on improving the status of women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Capacity Building of the Women's Committee			Establishment of women social and educational center, establishment of art and craft school under women center
Gender mainstreaming in decision making in Kyzyl-Orda	Preparatory Assistance: Gender and Development Project			Seminar on gender issues under women center

200 중앙아시아와 여성정책 협력사업을 위한 탐색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Gender in Development Bureau	Promotion of the rights of women migrant workers			Establishment of women social and educational center
	Rural Women Empowerment in CentralAsia			Rehabilitation of women center, provision of equipment and furniture
				Rehabilitation of women center, provision of equipment and furniture
				Strengthening of women organizations
				Sustainable women computer skills training
				Supporting traditional handicraft for income
				Women counseling services

나. EU의 對 중앙아시아 젠더관련 협력사업

국가	사업명	사업 승인시기	지원 형태	분야	수혜기관	총예산
카자흐스탄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Infringement Rights and Interests of Aged Citizens and Women, Legal assistance Provided to Socially	2005년 11월	보조금	여성, 인권	LEGAL ASSISTANCE PROVIDED TO VETERANS AND PENSIONERS	33,543 €
	Strengthening Civil Society through Gender Policy Integration in Rural Cross-border and Conflict Prone Areas.	2005년 12월	보조금	여성, 인권	"BEREKE" PUBLIC ASSOCIATION	61,229 €
	Support of activity of human rights defenders, protecting the rights of vulnerable layers of the population	2006년 2월	보조금	여성, 인권	ASIAN SOCIETY FOR RIGHTS OF DISABLED PERSONS ZHAN PUBLIC ASSOCIATION	25,326 €
	Establishment of the network program on teaching women's rights "Your rights make your wealthy"	2006년 3월	보조금	여성, 인권	PUBLIC ASSOCIATION "STREET LAW" - KAZAKHSTAN	42,050 €
	Women and Human Rights	2006년 5월	보조금	여성, 인권	PUBLIC ASSOCIATION "SARYARKA WOMEN"	26,047 €
	Legal Education for Women and Fostering a Culture of Human Rights in NGOs and National Agencies of	2006년 5월	보조금	여성, 인권	PUBLIC ASSOCIATION WOMEN RIGHTS CENTER	41,760 €

202 중앙아시아와 여성정책 협력사업을 위한 탐색연구

국가	사업명	사업 승인시기	지원 형태	분야	수혜기관	총예산
	Kazakhstan					
	Women in prison	2006년 4월	보조금	여성, 인권	CRISIS CENTER "ZABOTA"	24,584 €
우즈베키스탄	-	-	-	-	-	-
키르기즈스탄	Increase of rural women's awareness on human rights and gender equity	2006년 7월	보조금	여성, 인권	NON-GOVERNEMENTAL PUBLIC MOVEMENT CRISIS-PSYCHOLOGICAL AND REHABILITATION CENTRE ALTYNAI ASSOCIATION	30,004 €
투르크메니스탄	-	-	-	-	-	-
타지키스탄	"Education for each girl"	2006년 8월	보조금	여성, 인권	NGO Charitable centre of support of children "Munis"	100,000 €
	"The way from a woman-leader to a woman-deputy in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06년 9월	보조금	여성, 인권	Public Association "Jahon"	85,644 €
	Establishment of the collective potential for family violence resistance	2006년 10월	보조금	여성, 인권	NGO Association of women scientists of Tajikistan	46,132 €
	"Access of women to the information"	2006년 11월	보조금	여성, 인권	NGO Group of initiative volunteers ACCENT	91,299 €

다. ADB의 對 중앙아시아 젠더관련 협력사업

국가	사업명	사업 승인시기	지원 형태	분야	협력기관	총예산
카자흐스탄	Early Childhood and Women's Development	2001년 10월	기술적 지원	건강, 사회보호	Agency for Health Affairs	US\$ 6십만
우즈베키스탄	Woman and Child Health Development	2003년 4월	대부 기술지원	모성 건강, 아동건강	Japan Special Fund	US\$ 480만
키르기즈스탄	Improving Livelihoods of Rural Women through Development of Handicrafts Industry	2007년 1월	보조금	여성, 산업성장	Japan Fund for Poverty Reduction,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Industry	US\$ 2백만
투르크메니스탄	-	-	-	-	-	-
타지키스탄	-	-	-	-	-	-

2008 연구보고서(수시과제)-1

**중앙아시아와 여성정책 협력사업을
위한 탐색연구**

2008년 9월 28일 인쇄

2008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태 현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229-8 93330

<정가: 11,500원>